

정책연구

2024-03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Support Policy for the Activities of Culture and Arts Mediators for
the Disabled

조현성·김홍규·정병은·최보연·최선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Support Policy for the Activities of Culture and Arts Mediators for
the Disabled

조현성 · 김홍규 · 정병은 · 최보연 · 최선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병은 작은물결연구소 대표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총괄 자문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가.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창작자 지원을 넘어 독자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문화예술(생태)계의 구성원인 매개인력의 개체 수 증가, 전문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정책 사업과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 목적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매개인력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현재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 현재와 미래의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연구 내용을 보고서 목차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누구인가?(1장 3절).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2장 1절). 장애인 매개인력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2장 2절). 정책적 시사점과 매개인력 관련 쟁점사항을 도출했다(2장 3절).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매개활동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전문가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3장). 넷째, 매개인력이 현재보다 늘어나고 더욱 전문성을 지니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정책의 기본 방향, 매개인력 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4장).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년 정도로 설정한다. 이 기간은 1차 장애예술인 기본계획 시기와 동일하다. 연구는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했다. 면담조사는 현재 매개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일부 문화예술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했다. 대면온라인 면담을 주로 진행했고 일부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참여자(피조사자)는 30명이다. 설문조사는 현재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뿐 아니라, 매개활동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진행했으며, 304명이 온라인 웹조사에 참여했다.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현황

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개념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 매개인력은 예술인은 아니지만 향유자(소비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혹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들은 주로 향유자의 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나. 매개인력 정책 및 매개활동의 특징

매개인력 정책과 매개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보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관련 정책 사업은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개인력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둘째,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은 ① 창작 활동 지원, ② 문화예술 교육, ③ 예술단체 운영, ④ 접근성 제고 등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한 사람(하나의 집단)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매개인력은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로 나뉘볼 수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매개활동 관련 소득은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매개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을 진행되지 않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직무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축적한다.

다섯째, 매개활동은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무 유형(공공 vs 민간, 단체 소속 vs. 프리랜서), 매개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다. 매개인력 개념·범위 설정의 쟁점사항

관련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개념의 문제인데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① 첫 번째는 매개인력이란 용어의 적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사항은 어떤 이름(매개자, 매개활동 참여자, 매개인력 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아니고, 현 상황에서 장애예술인 매개인력 정책이 가능한지 하는 점이다. 인력으로 접근하면 자격 제도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이 같은 정책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①-② 두 번째는 창작 지원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의 문제다. ①-③ 세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무엇이 다른가의 문제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에 포함되는 사람, 곧 매개인력 범위의 문제인데, 이것 역시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②-① 첫 번째는 예술인이 매개인력의 껍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②-② 두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가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②-③ 세 번째는 장애인 부모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②-④ 네 번째는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자가 매개인력에 포함되는지 문제다.

3. 면담조사와 설문조사의 시사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 첫 번째로 매개유형에 따라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현재는 매개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매개활동을 해야 하는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계자들까지 포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두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특히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예술 전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매개활동에서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③ 세 번째로 현재 매개인력과 미래 매개인력을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교육과 신규 교육에 걸맞은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④ 네 번째로 매개인력은 공연과 미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근성 관련해서는 거의 공연에 한정되는데, 지원 정책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해야 한다.

⑤ 다섯 번째로 프리랜서인지 단체 소속인지에 따라 욕구가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 형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장애예술인뿐 아니라 매개인력까지 포괄해야 한다. 셋째, 매개인력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매개활동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매개활동에서 필요한 역량, 매개인력에게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섯째, 매개활동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처와 공급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정책 방향과 쟁점사항 대응

정책 방안 설정의 기본 방향은 다섯 가지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포괄성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매개활동 지원 정책, 장르와 지역 등에서 포용적 정책 수행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연계성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연계, 양성(교육)사업과 활동 여건 조성의 연계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탄력성으로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범위의 탄력적 적용,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지만 현장에서는 탄력 적용을 가리킨다. 네 번째는 현실(적합)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정책 수립과 기존 정책 사업 활용하면서 신규 사업 계획을 가리킨다. 다섯 번째는 미래 지향성으로 현실적인 사업을 개발하지만 중장기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양성과 일자리 관계를 예상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쟁점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매개활동 지원 정책: 방향과 쟁점사항 대응 방안

구분		기준, 쟁점사항	내용
기본 방향	기본 방향	포괄성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매개활동 지원 정책 수행 장르와 지역 등을 포괄하는 정책 수행
		연계성	문화예술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연계 양성(교육)사업과 활동 여건 조성의 연계
		탄력성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범위의 탄력적 적용 맞춤형 지원에 맞게 실행하지만 현장에서는 탄력 적용

구분		기준, 쟁점사항	내용
쟁점사항		현실 적합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실태조사 필요) 기존 정책 사업 활용하면서 신규사업 계획
		미래 지향성	현실적인 사업을 개발하지만 중장기적 효과를 고려함 양성과 일자리 관계 예상하고 사업 개발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개념	용어 사용	매개활동 용어 적극 사용: 창작 지원, 교육, 행정기획유통- 판매홍보, 그리고 접근성 제고 등의 활동에 지원 방안을 구 체화시켜야 함 매개인력 용어: 일자리 사업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선불리 자격 제도 신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유의하면서 용어 사용
		장애인 매개인력 vs. 비장애인 매개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비교하여 향유 자원분 아니라 창작 지원 역할을 수행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창작 지원을 포함하여 상대적 으로 포괄적이지만, 문화예술계(작품 창작과 향유)의 밀도와 완성도를 제고하는 역할이란 매개활동의 본질은 다르지 않 음
		창작 지원 매개활동의 범위	넓은 의미의 창작 지원은 광범위함(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 근성과 겹침) 하지만 연구에서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창작 지원을 다룸(장애인 곁에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활동을 지 원하는 현장의 활동)
	매개활동 참여자 범위	예술인의 매개활동	실연자와 창작자를 제외한 예술인(기술 지원 등)을 매개인 력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
		장애인의 매개활동	장애인은 매개활동의 주체임 장애예술인의 적극 참여 유도
		장애인 부모의 매개활동	장애인 부모가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현실이지만 활 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불가함 경제적 보상은 불가하지만 나머지 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담당자의 매개활동	앞으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문화시설 관계자와 장애 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매개인력으로 설정 (정기적 공연 전시, 예술누림 사업 등에서 중요 역할 담당)
	매개활동 유형화	매개활동 유형화	① 예술 창작 지원: 현장에서 예술적 표현 지원 ② 문화예술 교육 활동: 장애예술인 교육 및 장애인 교육 ③ 예술단체 운영: 프리랜서, 기획행정, 유통판매 포함 ④ 접근성 제고: 접근성 매니저, 접근성 제고 활동(음성해 설, 수어통역, 자막해설 등) ⑤ 공공기관: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 정책 및 지원기관, 국공 립 문화시설, 공공 복지시설
		통합적 지원정책	교육(전문성 제고)은 유형별로 실시하지만 지원 사업은 통 합적으로 실시함
	맞춤형 지원	비수도권 지역 매개활동 기회	비수도권 광역시, 기초 사군 몇 군데에서 매개인력 교육 위 크숍 개최

구분		기준, 쟁점사항	내용
		확대	예술 특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 장애인 예술단체의 참여 유도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 교육 분화	교육과정 분화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의 멘티-멘토 참여 학습 모임 지원
		예술 장르와 장애유형 고려	장애예술계 일반에서도 예술 장르와 장애유형이 편중됨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장르와 장애유형 다변화
		단체 소속과 프리랜서	소속이든 프리랜서이든 정보 부족, 적합한 보상 받지 못하 지만 상대적으로 프리랜서 정보 부족 매개활동 참여(의향)자를 개별자로 인식하고 정보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자격 제도 및 실태조사	자격 제도	매개인력 관련하여 자격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자격 제도 도입은 매개활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서 장기적인 관점 검토
		실태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조사 기획·실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수첩 제작

5. 양성 및 활동 지원 방안

가. 매개인력 양성 방안

매개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학습 모임을 지원한다. 매개활동이 표준화될 수 없고, 개인들이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의형 교육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임과 워크숍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점차 사례 비교 분석, 교재 개발 등까지 수행한다.

두 번째로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하여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 덧붙여 대학교의 예술 전공학과와 매개 관련 학과의 장애인 문화예술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매개유형(창작 지원, 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업무)별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창작 지원에서는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 교육과정에 일부 문화예술 교육 과목을 포함하고, 창작 협력자의 소모임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다. 매개인력 양성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매개인력 양성 방안

구분	사업, 유형	내용
학습 모임과 사례 연구 지원	학습 모임 지원	매개활동이 표준화될 수 없고, 개인들이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의형 교육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임과 워크숍 형태의 교육 확대 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많은 학습 모임과 적은 학습 모임의 멘토링 제도 연 단위 학습 모임의 발표회 개최
	매개활동 사례 비교 연구	정책 연구자, 학술 연구자, 현장의 매개인력 참여 매개활동 유형, 지역, 장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개별성과 구분되는 매개활동의 고유성 추출 우수 사례 비교 연구 외국 사례 비교 연구
	DB 구축 및 교재 개발	학습 모임과 사례 비교 연구 자료를 취합하여 DB 구축 DB 바탕으로 교재 개발(공통과정 및 특화과정,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인쇄물과 영상물)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내 장애인 교육 문체부 및 지역문화재단의 매개인력 교육과정에 장애(인) 이해과목 포함시킴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에 문화예술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신규 인력을 양성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기관인 지역 내 장애인단체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시범 교육 실시
	대학교육	대학교의 예술 전공학과와 매개관련 학과의 장애인 문화예술 과목 개설을 지원
매개유형별 양성 방안	창작 지원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내 문화예술 이해 과목을 포함시키고, 몇 군데에서 시범적 운영 창작 협력자의 소모임 지원과 교육 지원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내 장애(인) 이해 포함 장애인 예술강사 아카데미 진행(장문원, 교육진흥원)
	예술단체 운영	매개유형별 위의 교육에 참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학습 모임 형태로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
	접근성 제고	국공립 문화시설(기관) 종사자 대상 접근성 직무 교육 국공립 문화시설 종사자들 가운데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성 심화 과정 워크숍 장문원뿐 아니라 국립 문화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타 기관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사람 포함)
	공공기관	문화시설 담당자 교육: 정기적 공연·전시 대비(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 문화 정책 담당자(정부 및 지자체) 교육: 이음 아카데미 대비 쉬운 교육, 지역문화재단이나 연구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를 중심으로 워크숍 실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체육과 연계하여 진행 복지시설 담당자 교육: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운영자 및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관내 장애인 복지관과 다른 장애인 시설을 짝으로 묶어 복지관이 멘토 역할 수행(지역문화재단이 아니라 지자체 직접 수행)

나. 매개활동 지원 방안

매개활동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매개활동 플랫폼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매개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장문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향후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요처와 공급자의 매칭을 대행하지는 않는다. 한편, 플랫폼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 모임, 매개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장문원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TFT를 구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매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데, 매개인력 참여 할당제(장문원 전체 사업 가운데 매개인력 활용 사업의 할당, 활용 사업 내 매개인력 예산 할당), 새로운 지원 단위 사업 진행(매개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군[群] 설정), 기존 사업 개선(공공만이 참여하는 무장애 향유사업 내 민간 참여) 등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총액이 증액돼야 한다. 할당이든 새로운 지원 사업 단위 설정이든 예산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존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된다. 매개활동 지원과 장애예술인 지원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한편, 매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매개유형, 장애유형, 예술 장르, 지역별로 매개인력의 보수 관련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적정 보수 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매개유형(창작 지원, 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업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작 지원에서는 장애인 복지인력의 활용 방안과 창작 협력자 지원 방안을, 교육에서는 적극적 플랫폼 활용을, 예술단체에는 외국과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의 대행자 역할을, 접근성 제고에서는 접근성 활동 인력 플랫폼 활용과 인력 제도 시행을, 공공기관에서는 외부 전문가 협력하여 업무 수행, 전담직원 지정, 예술 특화 복지기관 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매개활동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매개활동 지원 방안

구분	사업, 유형	내용
매개활동 플랫폼 및 전담 부서 설치	매개활동 플랫폼 구축	매개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성 초기에는 장문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향후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요처와 공급자의 매칭을 대행하지는 않음
	전담부서 역할 담당	플랫폼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 모임, 매개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 장문원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TFT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담당 전담부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플랫폼 운영 주체임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방법 ① 매개인력 참여 할당제	장문원 전체 사업 가운데 매개인력 활용 사업의 할당, 활용 사업 내 매개인력 예산 할당
	방법 ② 새로운 지원 단위 사업 진행	매개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군[群] 설정 매개자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매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방법 ③ 기존 관련 사업 개선	기존 관련 사업을 개선하는 것 예를 들어, 기존 공공만이 참여하는 무장애 향유사업 내 민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하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총액이 증액돼야 함(총액이 늘지 않으면 기존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을 나누는 것이에 불과함)
	매개활동 비용 산출	매개유형, 장애유형, 예술 장르, 지역별로 매개인력의 보수에 대한 자료 적정 보수 산정을 위한 비교 분석 및 연구
매개유형별 양성 방안	창작 지원	복지제도 연계 활동 지원(예술 특화 근로지원인, 예술 특화 활동 지원사) 창작 협력자(복지 전문인력보다 예술적 전문성 있음) 지원 정책 수행
	문화예술 교육	예술누림 사업을 포괄하는 플랫폼 활성화
	예술단체 운영	외국의 우수사례 적용, 외국과 협력 공공과 민간의 연계자 역할 수행 작품 판매 굿즈 제작판매, 신기술과 장애인 예술 접목, 장애예술인 고용 창출 및 관리
	접근성 제고	접근성 매개 서비스 통합 지원(자체체 공연 및 전시를 준비하는 기관 대상) 접근성 활동 인력 플랫폼 활용과 인력제도 시행 국공립 문화시설 내 접근성 직무를 포함한 부서 운영 국공립 문화시설 홈페이지 웹 접근성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구분	사업, 유형	내용
	공공기관	<p>문화시설: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여 매개활동 참여, 외부 전문가 협력하여 매개활동 참여, 담당자에게 최고의 예술 작품 접할 기회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직원 지정,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기초 지역 단위로 업무 수행, 도 지역과 비수도권에서는 광역 지자체(협약체)에서 기초 단위 업무까지 수행</p> <p>복지시설: 예술 특화 복지기관 운영, 대도시에서는 두 세 개의 특화 복지관이 있으면 대도시 지역 내 모두 참여 가능하지만 도 지역과 비수도권에서는 기초 지자체별로 특화 복지관이 있어야 함. 몇몇 지역에서 시범 사업 진행</p>

목차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4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5
1. 연구 내용 및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개념 정리	7
1. 선행연구 검토	7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개념	13
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정책 및 현황 분석	17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정책	19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계획과 매개인력	19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정책 사업	23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현황	33
1.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활동	33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	39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	49
4. 장애인 접근성 제고 활동	55
제3절 시사점과 쟁점사항	68
1. 정책적 시사점	68
2. 매개인력 개념·범위의 쟁점사항	69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73

제1절 전문가 면담조사 분석	75
1. 조사 개요	75
2. 면담조사 주요 결과	76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97
1. 조사 개요	97
2. 조사 결과	100
제3절 요약과 시사점	123
1. 주요 결과 요약	123
2. 정책적 시사점	129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지원 정책의 과제 131

제1절 기본 방향과 쟁점사항 대응 방안	133
1. 정책 과제 설정의 기본 방향	133
2.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의 개념 정리	136
3. 매개활동 참여자의 범위: 예술인, 장애인(부모) 등	138
4. 매개활동 유형화 및 통합적 지원	140
5. 맞춤형 지원	143
6. 자격 제도 및 실태조사	145
제2절 매개인력 양성 방안	147
1. 학습 모임과 사례 연구 지원	147
2.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	149
3. 매개유형별 양성 방안	152
제3절 매개활동 지원 방안	162
1. 매개활동 플랫폼 구성	162
2.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166
3. 매개유형별 지원 방안	170

제5장 맺음말 179

참고문헌 / 189

ABSTRACT / 193

표 목차

〈표 1-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선행연구	7
〈표 1-2〉 문화 매개인력 유형: 전달 체계별	11
〈표 1-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15
〈표 2-1〉 1차 기본계획 내 전문인력 교육지원	21
〈표 2-2〉 6차 종합계획 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22
〈표 2-3〉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과정(2020~2023)	23
〈표 2-4〉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참여자(2022)	26
〈표 2-5〉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 프로그램 및 참여자(2023)	28
〈표 2-6〉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 프로그램 및 참여자(2024)	29
〈표 2-7〉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접근성 과정(2024)	30
〈표 2-8〉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2011~2020)	40
〈표 2-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제 분류(2022)	40
〈표 2-1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열 분류(2022)	41
〈표 2-11〉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기초통계(2020~2023)	41
〈표 2-12〉 특수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기초통계(2018~2022)	41
〈표 2-13〉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부서 설치(2024)	43
〈표 2-14〉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 근무 여부(2024)	43
〈표 2-15〉 접근성 매개활동 관련 기관 사례	66
〈표 3-1〉 설문조사: 설문항	98
〈표 3-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9
〈표 3-3〉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 장르	101
〈표 3-4〉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 기간	102
〈표 3-5〉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 이유	104
〈표 3-6〉 설문조사: 매개활동 만족도	105
〈표 3-7〉 설문조사: 매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106
〈표 3-8〉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108
〈표 3-9〉 설문조사: 매개인력의 수요와 공급	109

〈표 3-10〉 설문조사: 매개활동이 필요한 시설	110
〈표 3-11〉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가 갖춰야 할 것	112
〈표 3-12〉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113
〈표 3-13〉 설문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 의향	114
〈표 3-14〉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	116
〈표 3-15〉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 확대 방안	118
〈표 3-16〉 설문조사: 매개활동 활성화 정책 사업	120
〈표 3-17〉 설문조사: 매개활동 정책 수행의 주체	121
〈표 4-1〉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바우처) 인정 요건	154
〈표 4-2〉 문화시설의 이용자 중 장애인 비율	158
〈표 4-3〉 장애인복지시설: 최근 1년 동안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진행 여부	160
〈표 4-4〉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 교육 부서 및 인력 유무	160
〈표 4-5〉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	170
〈표 4-6〉 공연장 접근성 활동 인력의 역할	174
〈표 5-1〉 매개활동 지원 정책: 방향과 쟁점사항 대응 방안	182
〈표 5-2〉 매개인력 양성 방안	184
〈표 5-3〉 매개활동 지원 방안	185

그림 목차

[그림 1-1] 문화 매개인력 유형	11
[그림 2-1] 「제1차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5대 전략	20
[그림 2-2] 스페셜아트의 예술교육	46
[그림 2-3] 영국 접근성 가이드 샘플	56
[그림 3-1] 설문조사: 장애인 매개활동 참여 경험	100
[그림 3-2] 설문조사: 매개활동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03
[그림 3-3] 설문조사: 매개활동 관련 정보 취득 방법	103
[그림 3-4] 설문조사: 매개활동_창작 중심 vs. 향유 중심	107
[그림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장애인 접근성 강화)	156
[그림 4-2] 국립중앙박물관: 접근성 관련 워크숍(2023)	157
[그림 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장애학과 만나다(2024)	159
[그림 4-4] 장애인의 복지기관 이용 경험(2023)	161
[그림 4-5] 장애인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센터	164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제정 이후,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발표(2022),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실시(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2023),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2024)가 대표 사례다.

법률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 제도와 정기적 공연·전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통 예술 정책이 창작(자) 지원 → 향유(자) 지원 → 유통 지원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두 가지 제도는 유통 활성화를 통한 창작 지원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을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에 대입해 보면 매개활동 참여 인력의 양성과 활동 지원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뿐 아니라 창작자와 향유자를 매개하는 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그것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장애예술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예술인뿐 아니라 매개인력의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매개인력 정책은 2022년 발표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과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하 6차 종합계획)에서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된 바 있다. 1차 기본계획의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6차 종합계획의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으로 연결된다. 계획은 그렇지만 아직 매개인력 정책(사업)은 활성화돼 있지 않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에서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내 매

개자 과정을 개설운영하는데 참여 의향자를 모두 받지 못하고 소규모로 이뤄진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창작자 지원을 넘어 독자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문화예술(생태)계의 구성원인 매개인력의 개체 수 증가, 전문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정책 사업과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연구 목적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매개인력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현재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 현재와 미래의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을 보고서 목차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누구인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매개인력, 장애인 매개인력 등의 개념을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을 개념화한다(1장 3절).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1차 기본계획과 6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그리고 장문원의 매개인력 정책 사업을 살펴본다(2장 1절). 장애인 매개인력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1장에서 개념화한 매개인력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관련 활동의 범위와 사례 등을 살펴본다(2장 2절). 정책적 시사점과 매개인력 관련 쟁점사항을 도출한다(2장 3절).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매개활동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매개인력 관련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조사(3장 1절)와 설문조사(3장 2절)를 실시하여 쟁점사항과 정책 방향 등을 분석한다.

넷째, 매개인력이 현재보다 늘어나고 더욱 전문성을 지니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정책의 기본 방향, 매개인력 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4장).

나. 연구의 시공간 범위

매개인력 관련 현황 분석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시작된 2010년대를 포함한다.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년 정도로 설정한다. 이 기간은 1차 장애예술인 기본계획의 시기와 동일하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곧 분석 및 방안 제시의 공간은 한국 사회 전체다. 외국 사례는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간략히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는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한다. 문헌조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의 개념(1장 3절), 매개인력 관련 정책 및 활동 현황 분석(2장 1~2절), 매개인력 지원 정책방안(4장) 등 모든 영역에서 실시했다.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는 매개활동 사례를 검토하고(2장 2절), 쟁점에 대한 의견(3장)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정책 방향(4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했다. 면담조사는 현재 매개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일부 문화예술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했다. 면담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조사 초기에는 연구진-피면담자의 다대일, 다대다 형식으로 대면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오프라인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대면조사 진행). 이후에는 서면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참여자(피조사자)는 30명이다.

설문조사는 현재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뿐 아니라, 매개활동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진행했으며, 304명이 웹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개념 정리

1. 선행연구 검토

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한정된 정책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매개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 본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연구는 네 가지—① 종합계획, ② 장애예술인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④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¹⁾

〈표 1-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종합계획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김현경 외(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애 예술인 (단체) 지원	전병태 외(2007),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0),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7),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진행: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현성 외(2022), 『장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연구진행: 메타기획 컨설팅)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전병태 외(2010), 『공공 문화예술기관 장애인 서비스 개선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조현성 외(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쪽. 이하 내용은 2020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후 수행된 연구를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구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연구진행: 문화디자인 자리) 장현선 외(2023), 『2023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대상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3),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연구보고서』(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태조사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2.12),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연구진행: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3), 『20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3),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통계 보고서』(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2023년 모두예술극장 접근성 만족도 조사』(연구진행: 에스티이노베이션)

자료: 조현성 외(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쪽 보완(2020년 이후 과제 목록을 포함시킴))

2020년 이후 연구는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개정)에 따라 1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했고,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장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202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2023),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2024) 등은 1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단위 사업의 실행 방안이다.

둘째, 「장애예술인지원법」은 말 그대로 예술인이면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장애인 창작자 관련 정책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는 향유자로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예술인의 창작 접근성 역시 조사했다. 2023년 모두예술극장 개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접근성 관점에서 본격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다. 『모두예술극장 접근성 만족도 조사』(2024)는 관객 290명뿐 아니라 창작자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창작자 대상 접근성에 대한 본격 조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다. 장문원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2021)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2024)를 수행했다.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려 했다(2023).

넷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위탁 용역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전보다 설문조사가 상당히 늘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관련 당사자 조사 및 관리자 대상 조사(2021), 장애인 접근성 관련 문화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2022),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관련 장애인 당사자 및 문화시설·복지시설·장애인단체 대상 설문조사(2024)를 실시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인 예술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 중이다.

네 가지 연구 동향은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연구의 개체 수가 많아지고, 주제가 다양해지고, 과제 규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장애예술인에 집중된다. 장애예술인 정책연구와 실태조사에서 인력은 예술인에 집중되어 매개인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려 한다. 장애예술계의 인력 연구를 창작자로서의 예술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예술인 주변의 사람들, 곧 매개인력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비장애예술 정책연구에서도 창작 지원 관련 연구가 한창 진행된 다음에서야 매개활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장애인 예술 정책이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예술 발전을 위해 매개인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려 한다.

나. 문화예술과 매개활동 연구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연구에서는 매개인력 연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라고 명명된 개념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문화 매개인력 연구는 약간 수행됐다. 이것은 정책연구와 학술연구로 구분된다.

1) 정책연구

2023년 전북연구원 보고서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에는 문화 매개인력의 개념·기능·관련 정책을 정리하면서 관련 연구를 검토했다.²⁾ 이에 따르면, 문화 매개인력 관련 정책연구의 첫 번째는 1997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이다.³⁾ 고위 관리, 지역문화 행정가, 기관 행정가의 역할이 문화축매자(공사립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더 많은 대중에게 접촉하게 시키고 그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창조교육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다. 2019년 연구는 재정지원 사업의 문화 매개인력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는 문화매개인력을 문화예술강사, 지역문화 전문인력, 인문 활동 강사, 봉사 참여 은퇴인력,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으로 구분한다.⁴⁾

문화 매개인력 정책연구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2014년 진행된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다.⁵⁾ 프랑스 문화부의 매개인력 분류체계를 변용하여 문화 매개자를 다섯 가지로 나눴다. ①이 기준인데, 왼쪽은 개발·운영·관리이며, 오른쪽은 실행·추진·실천이다. 위쪽은 문화자원(콘텐츠·인력·문화유산·예술단체·전시자료·공간 등)이고, 아래쪽은 향유자(시민)다. 따라서 ②는 자원개발 및 관리 인력으로 재단·문화 행정기관·지자체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③은 향유자와 대중사업 관리 운영 역할로 문화원·문화의집·문화재단 등에서 근무한다. ④는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로 사서, 문화해설사, 도슨트, 문화예술교육사 등이 해당한다. ⑤는 대중 중심 사업 실행자로 문화여가사, 문화복지 전문인력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①은 복합매개 역할로 예를 들어 소규모 문화공간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다. 프랑스 문화부 기준을 변용했지만, 문화 매개인력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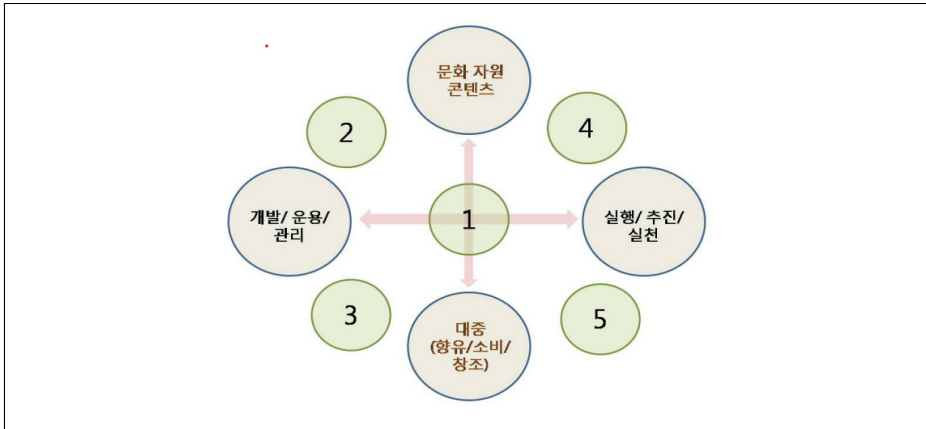
2) 아래의 내용은 장세길·조현성·신지원(2023),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전북연구원), 6~11쪽, 18~21쪽을 거의 그대로 옮겼음을 밝힌다.

3) 김용범(1997),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4) 장훈(2019), 『공공부문 문화매개인력 공급체계 개선 연구: 재정지원 문화매개인력을 중심으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김규원(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1-1] 문화 매개인력 유형



자료: 김규원(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쪽.

현실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의 문화 매개인력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전달 체계에 따라 매개인력을 다시 분류하기도 했다. 전달 체계별 매개인력 분류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등을 실시할 때 매우 유용한데, 실제 2014년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상당한 정도의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표 1-2〉 문화 매개인력 유형: 전달 체계별

구분	업무(근무처)
① 중앙정부 소속기관	향유자 대상 직접 매개, 정책 기능과 중간 매개(관련사업 전달),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 문화기관들
② 정부 매개기관	중앙에서 추진되는 문화사업이 지자체 및 매개기관을 통해 실제 향유자에게 도달하도록 관리, 지원하는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③ 광역지자체 소속기관	광역 지자체 소속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으로 직접 매개 및 매개 전달 역할
③-① 광역지자체 매개기관	도의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등으로 중앙의 정책 및 사업을 기초지자체 또는 실행기간에 연결하는 역할, 광역지자체 사업의 직접 수행
④ 기초지자체 소속기관	기초지자체 소속 문화시설, 직접 매개 및 매개전달 역할
④-① 기초지자체 매개기관	시군구 단위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 기타 생활문화시설로 기초지자체 사업의 직접 매개, 또는 광역사업의 매개 역할
⑤ 실행 문화매개활동	문화축매활동, 시민 대상 매개활동 직접 수행
⑥ 민간 매개단체	대체로 사단법인 형태의 협·단체, 분야별 중앙의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
⑦ 정부 산하 매개기관	정부의 문화사업을 지역으로 직접 매개하지 않고(직접 매개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조사, 평가,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함

자료: 김규원(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9쪽.

매개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북연구원에서 두 차례 실시했다. 2012년에는 전주시 문화시설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문화시설 26개, 종사자 129개 응답 설문 회수)를 수행하여, 이들의 노동시간과 급여 등을 전주시 전체 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체육지도와 비교했다.⁶⁾ 2023년에는 전북도 내 문화기관 시설, 위탁·대행기관,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문화매개인력 203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자료와 비교했다.⁷⁾

이 밖에도 문화매개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⁸⁾, 문화복지사와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 등도 진행됐다.⁹⁾ 이것은 전문인력과 매개인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통용되고, 매개인력의 체계적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매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개를 자격화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보여준다.

2) 학술연구

심보선이 언급했듯이 “정책연구의 문화매개(mediation culturelle)와 사회학의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ies)를 개념적으로 분리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취급해 왔다.”¹⁰⁾ 전자는 향유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는 활동 참여자를, 후자는 문화생산물(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프랑스 학계에서 비롯된 문화매개자 개념은 후자를 의미하는데, 부르디외는 이들이 “산업 또는 문화 생산의 거대한 관료조직들—라디오, 텔레비전, 조사기관들, 주류 일간지 또는 주간지 등—그리고 특히 사회사업과 문화 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노동 분업 체계가 부과하는 부드러운 조작의 과업을 수행”한다고 개념화했다.¹¹⁾ 곧, 프랑스 학계에서 문화매개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문화 프로그램 제작자들, 고급 신문과 잡지의 비평

6) 장세길(2012), “문화적 삶의 질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로부터: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핑』 86(전북발전연구원)

7) 장세길·조현성·신지원(2023), 앞의 보고서 참조

8) 김홍규·이상열(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홍규(201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정갑영 외(2005), 『문화복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갑영 외(2006), 『문화복지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0) 심보선(2019), “문화매개(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문화 정책과 문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2, 333쪽.

11) 심보선(2019) 위의 글, 350~351쪽. 인용한 부분은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에 따른 것임

가들, 모든 언론인, 문필가”를 가리킨다.¹²⁾ 이때 문화매개자는 “대량생산의 문화 장에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장에서도 일정하게 창작자와 공중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기구를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이며, “사회 내 정당한 문화의 의미와 가치 생산을 지원하고 중간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다. 비평가, 언론인, 문필가, 연구자처럼 미디어와 문화예술 생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문화매개자다.¹³⁾

하지만 보통 정책연구에서는 비평가와 언론인을 문화매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김규원의 연구(2014)가 그렇고, 김규원이 참조한 프랑스 문화부 자료(2010)가 그렇다. 이들은 문화예술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 또는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한 배후 집단이지만, 매개인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 연구와 문화예술 매개인력

연구에서 의미하는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정책연구의 그것에 가깝다. 곧, 문화 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언론인과 비평가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을 분석할 때는 향유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넘어서 창작자인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연관된 역할까지 포괄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다룬다.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개념

가. 문화예술과 매개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또는 매개활동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장애인 매개인력을 살펴본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매개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이며, 인력은 ‘사람의 힘, 사람의 노동력’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좇으면, 문화 매개인력은 ‘문화 양편(창작과 향유, 생산과 소비)의

12) 이상길(2010), “문화매개자 개념의 비판적 재검토: 매스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52, 162~163쪽. 인용한 부분은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에 따른 것임

13) 이상길은 이 같은 개념을 확장하여 온라인 시대에서는 메가블로거와 유명 동호회 등도 문화매개자가 된다고 말한다.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정확하게 개념화하려 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하지 않다. 따라서 유사한 용어와 비교하고 관련 법률 내 용어를 검토한다.¹⁴⁾

문화인력은 문화 매개인력에서 매개를 뺀 것으로, 매개인력과 큰 차이 없이 읽히는데, 이것은 보통 문화인력이라 하면 생산자(창작자)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지역문화 인력 지원 사업’의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문화인력이 지역문화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공개모집 안내문)이 그것이다. 또한 안내 포스터에서 지역문화 인력을 “지역에 대한 탐색과 필요에 의해 문화 활동 및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②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지역문화를 창조하며, ③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문화인력, 문화 전문인력, 그리고 지역 문화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문화 매개인력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문화 전문인력을 문화시설 근무자 또는 문화시설 관계자로 한정한다.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을 제시하는데, 전문인은 기술 스태프를 말한다.

이처럼 법률과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 매개인력은 예술인은 아니지만¹⁵⁾ 향유자(소비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혹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때로는 문화인력, 문화 전문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 지자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정부산하 연구기관, 민간 매개기관의 구성원 그리고 시민 매개활동가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이처럼 문화매개(인력)는 향유자의 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돕는 역할에 집중되지, 창작자를 조력하는 역할은 많지 않다.

14) 아래의 내용은 장세갈·조현성·신지원(2023), 앞의 보고서, 3~4쪽을 전재(全載)한 것이다.

15) 문화인력 개념에서 생산자(창작자)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도 있다. 「문화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문화인력은 매개에 한정하지 않고, 창작자와 생산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장애인과 매개인력

「장애인복지법」 제71조는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조문이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은 “의자·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이며, 이 밖에 장애인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표 1-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9., 2016. 2. 3.>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 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 3(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서 보듯이, 법률에서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은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데, 일상에서도 이를 포함하여 자격 보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에 비해 제도화 수준이 높은 복지영역에서는 이처럼 자격을 지닌 인력이 활동 중이다. 덧붙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소정의 양성과정을 통해 복지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활동지원사(장애인의 외출, 집 안일, 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직무지도원(장애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사람), 근로지원인(중증장애인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¹⁶⁾

장애인 관련 다양한 매개인력을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자격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이 활동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에서 보듯이 노동(일)을 지원하는 경우와 일상을 지원하는 경우가 병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노동(일)과 일상이 문화예술이라면 창작 지원과 향유 지원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16) 소소한소통(2023),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 용어』, 60~62쪽.

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또는 장애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예술계에서 예술 작품을 매개로 창작자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향유자(소비자)가 장애예술을 즐기는 데, 혹은 장애예술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며, 덧붙여 예술인(장애예술인, 장애예술 창작자)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때 매개인력이 예술인과 배타적으로 구분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구분되는 점은, 향유자의 문화예술에 도움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창작자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접근성 매니저는 장애인 관객의 관람 접근성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창작자인 장애인의 예술 활동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용어에서 정리해야 할 점은 장애예술 또는 장애인 예술의 구분이다. 장애예술은 보통 세 가지 의미—① 장애인이 창작자로 참여하는 ② 장애를 소재와 주제로 삼은 ③ 장애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로 사용된다. 장애예술 매개라고 하면 창작자와 향유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예술가(창작자)와 관객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정리하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는’이 아니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이라고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이름을 바꾼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정책 및 현황 분석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정책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계획과 매개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많지 않기에, 1차 기본계획이나 6차 종합 계획 등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본다.

가. 1차 기본계획과 매개인력

1차 기본계획은 다섯 가지 추진 전략—①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②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 기반 조성,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④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⑤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으로 구성된다. 정책의 대상은 주로 창작자로서의 장애예술인이다.

매개인력과 관련된 것은 다섯 번째 전략인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이다. 여기서 전문인력이 매개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매개인력은 말 그대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장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예술가(창작자) 지원 역할까지 포괄한다고 했는데, 정책에서 이렇게 구현된 것이다.

[그림 2-1]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5대 전략

비전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목표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1-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1-2.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②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2-1.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2-2.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④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4-1.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정비 4-2.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⑤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5-1.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 체계화 5-2.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5.2.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은 ‘5.2.1.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과정 확대’ 내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인력)양성은 ‘장애예술인 창작기반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장애예술인 매개인력 양성’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무대기술, 창작·실연자, 후원매개인력 등), 지역문화진흥원(지역문화 전문인력) 등과 협력한다. ② 예술시장 전문인력 양성은 ‘장애예술인의 4차 산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이며,

③ 장애인 예술 교육 과정 확대는 ‘대학 예술학과나 각종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장애인 예술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계획)에서 매개인력 양성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때의 업무 영역은 교육, 기획, 창제작, 유통 등에서 장애예술인을 돕는 일이다. 덧붙여 교육과 신기술 부문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다. 1차 기본계획의 매개인력 양성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서 매개인력 관련 첫 번째 계획이란 점, 그리고 6차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표 2-1〉 1차 기본계획 내 전문인력 교육지원

주요사업	주관	협력	22	23	24	25	26
5.1.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 체계화							
5.1.1. 장애인 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지원 확대							
○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	문체부, 장문원	장애인			●	●	●
○ 특수학교 등 청소년 교육 강화	문체부, 장문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
○ 장애인 문화향유 지원 확대	문체부, 장문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	●	●
5.1.2. 장애예술인 단계별 예술 교육 체계 구축							
○ 장애인 학생 입문형 예술교육 확대	문체부, 장문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
○ 예술 전공 장애인 대학생 지원	문체부, 장문원	교육부		●	●	●	●
○ 심화 교육 지원	문체부, 장문원	장애예술인/단체		●	●	●	●
5.2.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5.2.1.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과정 확대							
○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양성	문체부, 장문원	장애예술인/단체		●	●	●	●
○ 예술시장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장문원	장애예술인/단체		●	●	●	●
○ 장애예술 교육 과정 확대	문체부, 장문원	교육부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20쪽

나. 6차 종합계획과 매개인력

6차 종합계획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추진 과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와 장애 예술 활동 지원강화로 나뉜다. 장애예술 활동 지원 강화는 지원 정책의 제도화, 창작물 유통지원,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표 2-2〉 6차 종합계획 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차수	분야	추진 과제	추진 과제 및 세부계획
6차 (2023 ~2028)	문화예술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	6-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6-1-1.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 및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유 활성화 지원 확대
			6-1-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전국 확대 · 시설 향유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개발 및 운영 지원
		6-2. 장애예술 활동 지원 강화	6-2-1.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정책 제도화 ·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및 운영 활성화 · 거점지역 장애예술인 표준공간 조성 및 장애예술단체 운영 지원
			6-2-2.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운영 6-2-3.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 · 문화예술 전문인력 제도 내 매개인력 양성 체계 마련 · 장애예술인 교육 및 심화과정 개설, 장르별 심화교육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128쪽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6-2-3)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가 장애예술인 대상 교육 확대이며, 다른 하나가 매개인력 양성 교육 체계 마련이다.

매개인력 양성 교육 체계 구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한다.¹⁷⁾ ① 먼저 기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내에서 장애예술 특화 과정을 개설할지를 검토한다. 장애인 예술 정책 내에서 매개인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문화 매개인력 일반에서 장애인에 특화된 매개활동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② 한편, 장문원 아카데미 내에서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매개자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매개인력 양성사업을 장애예술인 정책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처럼 6차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을 문화예술 매개인력에서 장애 특화를 실시하는 방안과, 초보적 형태로 진행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17) 관계부처 합동(2022),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89쪽 참조.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정책 사업

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매개인력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장문원에서 진행하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이하 이음 아카데미) 내 매개자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관련된 몇 가지 사업을 정리한다. 이음 아카데미는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예술가의 고유한 감수성과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매개자 양성을 통한 배리어프리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예술가, 문화예술 기획자, 장애인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¹⁸⁾

지난 4년 동안의 이음 아카데미 현황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이음 아카데미는 창작자 과정과 매개자 과정으로 나뉘는데, 2022년에는 기존 매개자 과정에 있던 접근성 과정이 분리됐다. 연도별 매개자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기획자 양성, 2021년 음성해설자 워크숍과 접근성-배리어프리, 2022년 매개인력 유형별 교육(기획 매개인력, 유통 매개인력, 교육 매개인력)과 접근성(음성해설, 수어통역), 2023년 유형별 매개인력 교육(기획, 유통, 교육)과 접근성(접근성 일반, 음성해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표 2-3>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과정(2020~2023)

연도	구분		과정명	회차	결과물
2020	창작자립	강의	[온라인] 강의1부-장애학	4회	영상4종
			[온라인] 강의2부-장애, 예술, 인문학	4회	영상4종
			[온라인] 강의3부-현대예술과 장애미학	4회	영상4종
		매체 확장 워크숍	프로젝션매핑으로 배우는 디지털미디어아트	10회	결과전시
			다양한 몸들의 소리산책 워크숍	7회	-
			크리에이티브 코딩	5회	-
		창작 프로젝트	예술의 재정의, 와리즈아트	16회	책자1종, 영상4종
			담론의 연극화, 노멀 질문하기	11회	토론연극, 영상1종
		아티스트 토크	[온라인] 아티스트 토크	4회	영상3종
	매개자립		장애예술기획자양성과정-서론이길다	8회	책자1종
	협력		국립극단 ‘스카팜’ 배리어프리 영상 협력과정	2회	영상2종
	©메이킹		©메이킹-How to make	-	영상1종

1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2020 결과자료집」, 6쪽

연도	구분		과정명	회차	결과물
			©메이킹-Re make	-	영상3종
	연구		매체확장 사전연구-다양한 몸과 환경을 위한 악기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악기4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매체확장 사전연구-크리에이티브 코딩 교육 과정 사전연구	-	책자 1종
	총 18개 과정			75회	33종
2021	창작자립	강의	[온라인] 장애의 이해와 장애인 문화권	3회	영상 3종
			[온라인] 장애예술의 접근과 실천사례	3회	영상 3종
		매체 확장 워크숍	미디어아트 : 소리와 빛의 세계	12회	결과전시
			인공지능 데이터셋 퉁커링 워크숍	5회	-
			로블록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구현 워크숍	8회	자료집
			신체와 감각을 잇는 피지컬 인터페이스 디자인 워크숍	7회	영상 1종
			창작 프로젝트	함께 구르는 기술 : 사진과 움직임 프로토콜	10회
		매개자립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8회	자료집
			전시 및 예술작품 접근성 탐색 워크숍	6회	자료집
			축제 및 예술현장 접근성 스터디/특강	7회	-
	[온라인 줌 특강] 기술x배리어프리		-		
	©메이킹	How to make : 배리어프리 창작과정	-	영상 1종	
		BarrierFree re-make : 배리어프리 실험과정	-	영상 3종	
	총 12개 과정			69회	15종
2022	창작자 과정	전문 예술교육	한양대학교 협력 전문예술교육 과정	50회	영상 2종 도록 1종
		매체/주제 확장 워크숍	영국 휴먼인스트루먼트 협력 창작 프로젝트	4회	영상 1종
			장애예술인 주도 창작 워크숍	6회	-
			영동상상 한글 서체 개발 워크숍	4회	폰트 1종
		창작 프로젝트	함께 구르는 클럽 리서치 사전 워크숍	9회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기획 매개자 양성과정	12회	자료집 1종
			장애예술 유통 매개자 양성과정	12회	영상 2종
			장애예술 교육 매개자 양성과정	8회	영상 1종
			장애예술 네트워킹 포럼 이음캠프	4회	영상 8종 자료집 1종
	접근성 과정		배리어프리 공연 음성해설 제작 과정	19회	-
			배리어프리 공연 수어통역 제작 과정	10회	자료집 1종
			영국 그라이아이 협력 온라인 접근성 과정	8회	-
			공연예술 콘텐츠 음성해설 입문 과정	5회	-

연도	구분		과정명	회차	결과물
	©메이킹		LG유플러스-연우무대 협력 온라인 배리어프리 공연 콘텐츠 제작	-	영상 2종
	연구		아카데미 발전방안 연구	-	보고서 1종
	총 15개 과정 (©메이킹, 연구 제외)			172회	22종
2023	창작자 과정	전문 예술교육	성균관대학교 협력 창작자 과정	41회	도록 1종 영상 3종
		매체 확장 워크숍	되기, 기억하기, 함께 움직이기	4회	영상 1종
			피지컬인터페이스 디자인	7회	기록집 (노션)
			아름답지도 무결하지도 않은 글쓰기	8회	문집
		창작 프로젝트	함께 구르는 기술	9회	영상 3종
			Re:cord 춤으로부터 가상과 실재를 탐험하는 메타 크리에이터 워크숍	7회	영상 1종
			감각과 초월	8회	영상 1종
		아티스트 토크	장애X비장애 아티스트토크	5회	영상 1종 인터뷰원고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기획	전시는 사라져도 메시지는 남는다	6회	-
			접근성에 접근하기	9회	-
		장애예술 유통	Show me the art	11회	-
		장애예술 교육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8회	자료집 (PDF)
	접근성 과정	모두의 정보	관객과 거리를 좁히는 '모두를 위한 관람 정보'	6회	-
			포용적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경험 디자인 워크숍	4회	아이디어 워크보드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잘 보이는' 공연	8회	-
		접근성 방법론 탐색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음성해설 제작	10회	-
			콘텐츠를 새롭게 읽는 방법	10회	-
		유관기관 협력	문화예술, 장애학과 만나다	5회	영상5종
	해외교류 프로그램		글로벌인사이트 : 호주	8회	
	총 19개 과정			174회	20종

여기서 장문원이 생각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이음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2020)부터 창작자랩과 매개자랩을 분리한 데서 보듯이, 장애예술인뿐 아니라 매개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개인력 교육 과정에서 접근성이 포함됐는데(2021년), 이후 2022년부터는 별도 범주로 나뉘는데,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매개활동의 범위를 기·확·유통·그리고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매개자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들인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기획 과정 13명, 유통 과정 8명, 교육 과정 9명, 네트워크 과정 16명, 음성해설 과정 10명, 음성해설 심화 과정 7명, 수어통역 입문 과정 10명, 음성해설 입문 12명이 참여했다. 창작자 과정 참여자는 장애인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매개자 및 접근성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자는 거의 없다.

2023년 매개자 교육은 장애인 예술 전문단체에서 담당하고, 접근성 과정은 장애인 예술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및 고연령층 서비스, 배리어프리 관련 기관(기업) 등이 주관한다. 참여자는 역시 비장애인 중심이다.

〈표 2-4〉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참여자(2022)

구분	프로그램	과정명	운영기간	회차	운영 방식	진행	참여자 현황	결과물
창작자 과정	전문예술 교육	한양대학교 협력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미술, 미디어, 공예, 연극 분야	2022.10.7.~20 23.1.28	50회	대면	28	20명 (장애 20명)	영상 2종 도록 1종
	창작 프로젝트	함께 구르는 클립 리서치 사전 워크숍	2022.10.28~'2 023.1.20	9회	대면	1	8명 (장애 4명)	-
	주제(매체) 확장 워크숍	휴먼인스트루먼트 협력 모두를 위한 소리도구 실험실	2022.8.30 ~9.2	4회	대면	1	12명 (장애 4명)	영상 1종
		장애예술인 주도 워크숍 ① 자기몸기록하기	2022.12.12~1 2.16	3회	대면	6 (장애 4명)	5명 (장애 5명)	-
		장애예술인 주도 워크숍 ② 되기, 기억하기, 함께 움직이기	2022.12.22 ~12.26	3회	대면	3 (장애 1명)	10명 (장애 6명)	-
		영동상상 한글폰트 개발 워크숍	2022.10.5 ~10.7	4회	대면	4	13명 (장애 9명)	-

구분	프로그램	과정명	운영기간	회차	운영 방식	진행	참여자 현황	결과물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기획 매개자 양성과정	2022.4.14 ~7.7	12회	대면	1 (장애 1명)	13명 (장애 3명)	자료집
		장애예술 유통 매개자 양성과정	2022.4.13 ~7.6	13회	대면	5	8명 (장애 1명)	영상 2종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양성과정	2022.7.4 ~8.29	8회	대면	7 (장애 1명)	9명 (장애 2명)	영상 1종
		장애예술 매개자 네트워킹 과정	2022.8.30 ~9.2	14회 (4일)	대면	16 (장애 1명)	16명 (장애 8명)	영상 8종 자료집
접근성 과정		배리어프리 제작 음성해설 입문 과정	2022.4.14 ~6.23	10회	대면	5	10명 (장애 0명)	-
		배리어프리 제작 음성해설 심화 과정	2022.7.7 ~9.1	9회	대면	4	7명 (장애 0명)	-
		배리어프리 제작 수어통역 입문 과정	2022.4.11 ~6.20	10회	대면	4	10명 (장애 2명)	자료집
		영국 그라이아미 협력 창조적 접근성	2022.9.27. ~10.14	8회	온라인	5	55명 (장애 1명)	-
		공연예술 콘텐츠 음성해설 입문 과정	2023.1.6 ~1.13	5회	온라인		12명 (장애 0명)	-
©메이킹		LG유플러스-연우무대 협력 배리어프리 공연 콘텐츠 시범 제작	2022.6월~ 9월	-	LG유플 러스앱 공개	-	-	영상 2종
연구 등		장애예술 아카데미 발전방안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2022.10월~ '2023.2월	-	연구 및 배포	-	-	보고서
총 15개 과정 운영 (©메이킹, 연구 제외)				172 회차	프로그램 진행 참여 100명 (장애 8) 프로그램 참여인원 208명 (장애 65)		영상 16종 자료 5종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6~47쪽 참조. 원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임

〈표 2-5〉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 프로그램 및 참여자(2023)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기관 및 주요 내용	참여인원
기획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전시기획 매개자 과정 전시는 사라져도 메시지는 남는다	스페셜아트 전시 기획 및 프로젝트 기획서 작성법과 기획에 메시지를 담는 전략을 학습하고, 메시지가 남을 전시를 기획해 본다.	9명
	장애예술 공연기획 매개자 과정 접근성에 접근하기	세가지질문 문화예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애예술 기획에 대한 방향성과 기준을 정립한다. 배리어프리 운영 가이드, 사례 탐구, 장애예술과 매체 활용, 행사기획서 작성, 개별멘토링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13명 (장애2)
접근성 확산	모두의 정보① 관객과 거리를 좁히는 '모두를 위한 관람정보'	소소한 소통 예술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및 쉬운 정보가 필요한 관객 모두를 위해 '쉬운 글쓰기'를 적용 실습해본다.	15명 (장애1)
	모두의 정보② 포용적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경험 디자인	미션잇 다양성 및 포용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용적 언어표현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사례들을 다뤄본다. 언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쌓고 사용자 경험을 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원칙을 정립한다.	12명 (장애1)
	모두의 정보③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잘 보이는' 공연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수어가 제 1언어인 농인 관객과 함께 무장에 공연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기획과 창작에 앞서 알아야 할 농문화, 농인, 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인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영역의 실제와 청인 기획자, 창작자와 수어 사용자들이 긴밀히 소통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본다.	14명 (장애1)
접근성 방법론	접근성 방법론①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음성해설 제작	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공연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음성해설 제반 지식을 습득한다. 음성해설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작품의 음성해설을 쓰고 낭독하는 방법, 실제 현장에서의 음성해설 제작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학습 모임으로 이어간다.	10명 (장애1)
	접근성 방법론② 콘텐츠를 새롭게 읽는 방법	오롯플래닛 창작의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우 자막은 작품의 고유한 언어와 색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배리어프리 자막에 대해 이해하고 공연과 작품에 따라 배리어프리를 적용하는 작업을 통해 창작물에 새로움을 더해본다.	9명

자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년 이음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이 계획돼 시행 중인데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 신청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알 수 없지만, 지원동기와 자기소개를 보면 대학생부터 현재 매개자(접근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까지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다가 장애인 문화예술에 한두 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배리어 프리 공연 참여 경험, 접근성 실무 참여 경험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신청자가 많아서 교육 참여 인원을 제한한 데서 보듯이 앞으로 매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개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매개활동 참여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중간, 심화 과정 등으로 과정을 다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2-6〉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 프로그램 및 참여자(2024)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참여인원
온라인 강연 시리즈	장애예술 기획 매개입문	4강 구성 장애예술 현장에서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 노력해 온 기획자들 이야기	회차별 25명
기획매개 워크숍	기획력 강화 코칭 워크숍	7회차 구성, 2일 동안 진행 매개자 브랜딩 및 기획방향 점검(3회차), 장애예술매개 기획전략(4회차)	15명
교육매개 워크숍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를 활용한 연극교육 워크숍	11. 2. ~ 11. 16. 토요일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를 활용한 창작 워크숍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를 활용한 교육모델 구상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와 영국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자폐 스펙트럼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헌터는 배우이며 하트비트는 심장박동을 의미함.	15명
	예술가의 협업과 역할찾기 워크숍: 톤그레이 프로젝트 아티스트 사례 중심으로	11. 16. ~ 11. 28. 수요일과 목요일 톤그레이 프로젝트 협력작가들이 각 분야의 시각과 협업과정 공유 비장애인과의 장애예술가의 협업 과정에 대한 토론과 체험 워크숍 협업과정 체험과 참여자의 협업 네트워크 구성 *톤그레이 프로젝트: 상업예술과 순수예술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음악, 미술,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협업 프로젝트	20명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11. 29. ~ 12. 13. 금요일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들의 자기 물두의 창작 이해 창작을 지원하는 네 가지 단계별 구체적 사례 제언	15명

자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표 2-7〉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접근성 과정(2024)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참여인원
온라인 강연	모두의 정보(입문)	3강 구성, 각각의 강의는 2회 구성됨(총 6회) 배리어프리 자막, 음성해설, 쉬운 정보로 가까워지는 문화예술	회차별 25명
직무탐구	접근성 연구매니저 모임	약 2개월 동안 5회 이상 정기모임(성과공유회 참여 및 활동결과물 발표) 접근성 매니저 학습 모임(CoP)	
모두의 정보 WEEK	모두의 정보 WEEK	9. 26.(해외특강 온라인), 9. 27. ~ 10. 2. 배리어 프리, 쉬운 텍스트, 음성해설 등 접근성 확대 관련 실전 강연 을 모은 집중주간 행사	회차별 25명

자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나.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 사업

장문원에서는 이음 아카데미와 별개로 장애예술인을 예술강사로 양성하는 사업을 2023년 실시했다.¹⁹⁾ 이것은 1차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로 명시된 ‘장애예술인 강사 확대’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성과 감수성을 갖춘 장애예술인이 전문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예술교육에서 장애인 강사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은 장애예술인이 강사로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업 내용은 ①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과정 운영 ② 장애 유형별예술 장르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장애예술인 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수도권 25명, 대구 지역 25명을 모집, 총 42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참여 자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장애예술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등록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장애예술인, 최근 5년간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예술인 등에 한정했다.

10월~11월에 4주간 36차시(12회기) 양성과정을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진행했다. 커리큘럼은 문화예술 교육 이론,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모의 수업 등으로 구성했다. 12회기 중 3회기는 공통 과정으로 운영되어 문화예술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일반 교육을 진행했으며, 9회기는 전공 과정으로 운영되어 예술 장르별 전공 이론, 교수 학습 지도법,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 수업 등을 진행했

19) 아래의 내용은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7쪽과 208쪽에서 따왔다.

다. 예술 장르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이다.

강사 양성과정 이수 후에는 유관기관(시설, 학교, 센터 등)에서 강사 파견 실습을 진행하여 양성과정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5개 기관에서 121회차의 수업 실습을 운영했다. 이들이 주강사 역할을 했으며, 비장애인 예술강사 경력자를 보조강사로 구성하여 수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 실습 기관은 장애인대안학교,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었고, 수업 장르는 강사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미술·음악·연극·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편, 수업 참여자는 20~30대의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았다.

다. 기타

1) 충북문화재단: 장애인 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장문원 이외에서도 간헐적으로 매개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충북문화재단의 「2020 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결과자료집: 랫잇비(Let it be)」(2020)가 이 같은 사례의 결과물이다.²⁰⁾

사업은 2017년 충북문화재단의 프로젝트 ‘이음+세움 프로젝트’(충북장애인사진협회의 10년 활동의 아카이브 사진전)에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장문원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행됐다. 2018년 사업 이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음+세움 프로젝트’였으며, 장애인 기관현황 조사, 간담회, 토론회, 현장 실태조사(40개 기관) 등을 수행했다. 2019년에는 “활동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매개 인력이 필요하며 재단에서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랫잇비’를 구성하여 15명이 참여했다. 핵심 주제는 ‘삶에서의 실천’이었으며, 과정 참여자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의식 찾기인 ‘실천연구’에 참여하여 장애인 예술에 대한 스스로의 관점을 정립하려 했다.

2020년 사업은 충북 상황에 맞는 장애예술 매개의 범위와 방식을 규명하려 했다. 심화과정, 멘토와 함께하는 학습실행 공동체 방식의 논의 그리고 결과 도출의 매개 연구를

20) 충북문화재단이 장문원의 ‘2020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프로젝트다. 아래의 내용은 책자에서 실린 전영주의 글(2017 이음+세움 프로젝트에서 2020 랫잇비까지, 116~121쪽)을 인용한 것이다.

실시했다. 모두 16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매개자의 삶과 실천에 집중했다. 2019년 사업이 강의(장애와 예술에 대한)와 멘토링(참여자의 삶에서 장애나 예술에 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눔)으로 구성됐다면, 2020년 사업은 실천 연구의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²¹⁾

2020년 참여 대상자가 전년도 사업 참여자(우선 모집)이며, 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에 관심 있는 문화 관련 전공자문화기획자현장활동가문화예술 활동 경력자인 데서 보듯이, 여기서 말하는 매개자는 창작자는 아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획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랫잇비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가 장애와 예술을, 그리고 매개의 개념과 역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기획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이 장애인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려 할 때, 그 일이 자신의 삶과 밀착되어야 함을 멘토와 함께하는 학습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

2) 서울시: 일대일 멘토링 지원 사업

2019년 서울시 문화예술과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문화예술 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꿈틔움 예술창작소 1:1멘토링 지원 사업’은 문화적으로 보면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장애청년과 문화예술 전문가가 1:1 멘토링하여(25회) 작품발표회와 성과 공유 페스티벌을 수행했는데, 멘토의 행위가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음악·미술·연극·무용·영상 5개 장르에서 멘토와 멘티 각각 20명이 25회의 만남을 가졌다. 예를 들어, 연극의 김지수 멘토+김다빈 멘티의 25회차 활동일지를 보면, 일상에서 자기표현(그림그리기, 내방 꾸미기, 도안 색칠, 카드로 이야기하기, 그림그리기, 동화 읽기, 영화 및 연극 관람), 발표회 준비(대본 구성,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대본 외우기 등)로 이뤄진다.

장애 청년과 멘토가 작품발표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때 멘토의 활동이 매개 역할을 하기에 매개인력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1) 책자의 이지혜의 글(장애예술과 매개라는 필요에 대하여, 113쪽) 참조.

22) 아래의 내용은 장애인문화예술 판(2019), 「꿈틔움 예술창작소 결과보고 자료집: 행복한 여정」 참조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현황

향유 지원과 창작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 매개인력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다. 연구에 서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①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②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③ 장애인 예술단체 활동, ④ 장애인 접근성 제고 활동이 그것이다.

1.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활동

가. 개념과 범위

장애인은 일상에서 개인 단위로 표현 및 창작 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소속되어 창작 경험을 쌓고 작품 발표 기회를 갖는다.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지만 최근 장애예술 관련 제도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단체가 다수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쉽게 포착 되지 않았던 개별화된 활동들이 공식적인 활동으로 연결된다. 또한 장애인이 혼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상적 창작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예술인 개인도 작은 커뮤니티나 협동조합, 단체, 기업 등의 협력 및 지원 구조 안에서 활동하곤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예술을 접할 기회가 일상 단위에서 쉽게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복지관, 학교, 활동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의 공식적 프로그램 안에서 창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속도에 따라 활동의 방식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전제(前提)하면, 장애인의 창작 활동은 독립된 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원 체계나 관계가 마련된 상황 및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 이것이 비장애인 창작 활동과 큰 차이점인데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한 창작 활동에서 장애인의 이러한 삶의 조건은 창작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점이다.

예를 들어, 창작 도구 구입 및 표현 방식에 다양한 정보나 방법론을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그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것에 효과적인 도구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등을 옆에서 질문해 주거나 같이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만약 이때 장애인이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면 누군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는 시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제안하거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듯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은 당사자의 욕구, 관심사, 속도를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이 스스로 표현 방식과 창작 흐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 지원 활동은 장애예술인에게 표현 기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장애예술인에게 기초적인 표현 방법론을 가르치는 지원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일반적인 예술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누리기 어려운 현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렇기에 욕구나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려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 표현 기법을 알려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창작이 일정한 표현 기법의 학습이나 훈련을 통한 고도화된 기술 습득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무엇보다 창작 주체로서 장애인의 관심, 의지, 자발성 등이 창작 활동 전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작 자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장애인 창작 지원의 방향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고유한 표현 언어가 개별성 중심으로 발현되도록 돕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방향성 안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창작 기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장애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창작 지원의 의미는 어떤 행위나 방식을 하느냐, 이전에 무엇을 전제로 한 시도나 지원인지가 중요하다.

결국, 장애인 창작 지원 활동을 개념화하자면 당사자 중심의 표현 행위를 다양화, 활성화,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의 교육, 제안, 조력, 협력, 협업,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이나 조력의 과정에서는 장애인이 매개인력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며 자신의 창작 영감을 탐색할 수 있고 제안, 협력, 협업, 기획의 과정에서는 장애인과 매개인력이 동료성²³⁾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다.

23) 동료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진희 말을 참조할 수 있다. “매개자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는 관점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돌봄을 서로 배우고 지원하는 과정이 충분히 얘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창작 과정에서 비장애 중심성을 해체하는 과정이 동료 되기를 가능하게 한다. 독립적 신체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해야 움직일 수 있는 협업으로 ‘관계적 역량’을 쌓아가게 되는

이러한 창작 지원의 범위는 장애인이 작은 표현도 시도하도록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구체화된 창작 및 작품 활동을 공식화된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창작 자체의 범위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우 넓은 스펙트럼으로 개념화, 의미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작업실이나 연습실에서 창작을 하는 것만이 창작 활동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표현 행위를 어떤 상황과 구조 안에서 발표하는지에 따라 그 발표의 순간이 창작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의 창작 지원 범위는 소규모 예술 행위부터 기획 중심 프로젝트에의 참여까지 폭넓게 전제할 수 있다. 창작 지원 활동은 다른 매개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연구에서 의미하는 개념을 도출할 것이다.

나. 참여자 및 활동 사례

1) 참여 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연구가 장애예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창작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매개 범위에 실제로 창작 지원이 많이 존재하지만 공식화된 연구나 제도 내 인식 범위에서 장애예술인만 부각이 되어 창작 지원 포함 매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창작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매개자 포착은 장문원의 이음 아카데미 같은 제도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프로그램 참여자를 역할 중심으로 분류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움직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자 역시 창작, 기획, 교육, 유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현황 파악도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활동 사례

① 발달장애·정신장애 미술 창작자 그룹

2018년에 설립된 “밝은방은 독자적인 미술 작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창작자들과 다양한 예술표현을 시도하며 창작과 소통의 방향을 찾는 아티스트 그룹이다.

것이다.” 이진희(2021), “불화가 없다면 변화도 없다: 관계 맺기와 동료성,” 『웹진 이음』 22호.
<https://ieum.or.kr/user/webzine/view.do?zn=22&idx=153> (검색일: 2024년 7월 24일)

제도적인 예술교육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지속되어 온 이들의 직관적인 예술표현을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워크숍, 전시, 출판물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으며 소설가와 시각 예술가가 운영한다.”²⁴⁾ 밝은방은 총 2명의 매개인력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창작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 지원 매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밝은방은 2021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를 기획했으며 2022년에는 『무엇: 발달장애 창작자의 시각적 표현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책』을 발간했다. 2023년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 매개자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등 창작 지원 관련 매개인력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예술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창작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워크숍 참여자는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밝은방 운영 공간에서 개별 혹은 공동 창작을 하고 있다.

(밝은방 예술워크숍 참여자 모집 공고문)

밝은방의 예술 워크숍에 참여할 “성인 발달장애인” 창작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1. 미술을 좋아하여 일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독자적인 예술작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발달장애 창작자.
2.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세계를 가진 발달장애 창작자. 작업의 매체적 스펙트럼을 넓히거나 특정한 방향성을 찾고, 좀 더 깊이 있게 창작을 이어가길 원하는 창작자.
3. 개인별 성향, 관심 소재, 드로잉 스타일, 재료 감각, 이미지와 텍스트 발화 방식 등에 맞추어 창작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작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창작자.

워크숍은 강사를 포함하여 '4인 이하'로 진행되며, 가능한 결석이나 변동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창작을 끌어갈 창작자를 모집합니다.

*워크숍 내용: 창작 개별 심화(아크릴 페인팅, 각종 매체 드로잉, 글쓰기, 작가노트 작성, 개인 전시 및 출판 준비 등)

24) 창작그룹 밝은방 홈페이지 <https://brightworkroom.modoo.at> (검색일: 2024년 5월 24일)

이렇듯 밝은밤은 예술 워크숍을 통해 장애 창작자들의 일상적 표현 활동 지속을 위한 교육 및 협업 활동, 그리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전시나 책 등으로 기획해 외부에 소개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개별 창작자마다 필요한 표현의 기회를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기획도 병행하는 창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개인력의 역할이 일상적 창작부터 공식적 프로젝트 기획까지 연결되거나 겹침을 볼 수 있다.

② 장애인 극단

지체, 뇌병변,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극단 애인은 2007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²⁵⁾ “장애인들의 불규칙한 호흡, 경직과 이완의 연속적인 움직임, 시차가 다른 언어 등의 ‘장애’가 장애인 극단만의 극적인 효과로 발현될 수 있는 수단이 자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며 공연을 이어간다...장애인의 삶과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찾고 글로 엮어 내는 극작과 또 다른 시선과 감성으로 풀어내고 형상화해 무대에 올리는 연출의 과정을 경험하고 실천한다.”²⁶⁾

2007년에 장애인 6명이 창단했고, 같은 해에 비장애인 1명과 장애인 2명이 합류하여 팀 활동을 시작했다. 시작 당시 애인의 단원들은 연극이나 연기를 전공한 인력이 없었고, 비장애인 극단 ‘산’의 단원들과 함께 희곡 읽기, 연기 워크숍 등의 ‘연극 교실’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에 창단 공연을 올렸다. 창단 공연 이후 비장애인 극단의 도움을 최소화하면서 단원들만의 연극 관람, 여행, 책 읽기 등 자체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한편으로는 외부 연출가와 함께 ‘고도를 기다리며’ 작품을 3년간 재공연하면서 장애인의 호흡과 움직임으로 고전을 재해석하는 무대를 이어갔다. 이후 2014년에 극단 애인 단원의 첫 연출작 ‘너는 나다’를 무대에 올리며 극단의 단원들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처럼 극단 애인의 단원들은 무엇이든 창작과 관람 그리고 스터디를 함께 했고 다 같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개발해 나가고자 했다. 연극의 경우, 매번 새로운 스태프들을 만나게 되고, 주로 연출이 주축이 프로덕션을 꾸리고 작업을 이어가게 되는데

25) 장애인 예술단체이지만 단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매개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창작 지원에서 다룬다.

26) 에이블뉴스(2017년 6월 12일 입력), “김지수 대표가 말하는 장애인 주체 극단 ‘애인’: 올해 창단 10년 맞아...창립 멤버 등 꾸준히 활동,”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0> (검색일: 2024년 7월 24일)

극단 애인은 단원들이 배우, 작가, 혹은 연출가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극단 내부에서는 단원들이 작, 연출, 출연을 하는 ‘극단 애인의 3인 3색 이야기’ 시리즈를 공연할 때는 서로 작가, 연출, 배우의 역할을 맡으며 외부의 스태프들과 관객을 만나기도 하고, 단원들이 개인의 작품을 준비할 때도 다른 단원들이 무대감독, 드라마 터그 등의 역할로 참여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스태프들과 관객을 만났다.

극단 애인은 연극 공연을 하는 예술단체이면서 창작을 상호 지원한다. 협업이 중요한 공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극단 애인은 장애인 중심의 표현 방법론을 탐구 및 기록하여 외부에 소개하는 등 여러 매개인력의 활동 지원도 모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에는 『장애배우의 훈련법과 연기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삶과 연기(연극)의 관계와 장애예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미나에 대한 기록, 다양한 창작 워크숍에 대한 기록 등이 개별 배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장애배우의 훈련법과 연기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 책자 중 워크숍 기록 목차)

1차 워크숍을 위한 읽기 자료: 주요 배우 훈련법에 나타난 비장애중심주의

1차: 자기 몸의 기본값 찾기(1)

2차: 자기 몸의 기본값 찾기(2)

3차: 도구를 이용한 상상력 훈련_백우람

4차: 몸으로 말하기_강희철 / 호흡과 이완, 동작의 발견_강보람

5차: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은 ‘나’_하지성

6차: 다른 몸의 상호작용, 힘의 세기와 방향 찾기_김지수

7차: 프롤로그 장면 구성-공연 보는 법 제시하기_성수연

요약하자면, 단원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같이 공연한다. 단원은 7명(비장애인 1명)인데 한 명 한 명이 다른 단원에게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애인 배우들이 스스로 매개인력이 되어, 다른 장애인 배우들을 발굴하고 장애인 배우들만의 훈련법이 필요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장애예술인 강사로서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극단 이외에서 일종의 강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원 내부에서 서로서로가 매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덧붙여 극단의 행정 역할 역시 이들이 함께 수행한다. 이처럼 단원들은 서로서로 매개(자)가 된다. 구성원이 서로에게 매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구성원 중 몇 명이 매개인력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어떤 프로젝트이냐에 따라서 서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

가. 개념과 범위

문화예술 교육은 교육을 통해 감정, 생각, 경험의 표현인 예술 활동의 창작과 감상에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삶을 지향하는 배움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단순 체험을 넘어서 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대 교육의 목적과 방식은 과거와 달리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사유와 감성의 경험이 확장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더 넓은 세계로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의 범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문화예술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촉진하며, 문화예술 기술과 행위를 숙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²⁸⁾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감정생각을 표현하고, 재능을 발전시켜 실현하고,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정서적 안정, 자기 표현력의 변화 등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통한 주관적 만족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회복을 지향하는 삶’, ‘자신과 타자의 시선에서 해방’, ‘홀로서기와 자기발견’, ‘공존과 공생의 삶’의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했다.²⁹⁾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의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예술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은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발현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렸을 때 일찍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좋은 결과를

27) 백령 외(200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7쪽.

28) 김진화고영화권재한정민주(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211~236쪽 참조.

29) 이소원이용표(2015),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변화 경험 연구,” 『GRI 연구논총』 제17권 제3호 참조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시기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할 필요가 있다.³⁰⁾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작업이 계속해서 쌓이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면서 작품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은 약 1% 수준이지만 참여 희망률은 높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제와 계열에서 문화예술이 가장 많다.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교육청 인가등록, 지자체 지정위탁), 일반 평생교육시설(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장애인 복지시설(대학 및 대학원 부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및 고용시설(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기타(발달장애인훈련센터, 특수교육기관)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관에서 강의하는 인력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다.

〈표 2-8〉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2011~2020)

(단위: 개, %)

	2011	2014	2017	2020	2023
현재 참여 여부	2.1	2.6	1.5	0.9	...
향후 참여 희망	13.1	13.0	9.8	6.0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표 2-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제 분류(2022)

(단위: 개, %)

구분	학력보완	성인문자 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체
개수	231	199	474	424	1,195	179	2,702
비율	8.6	7.4	17.5	15.7	44.2	6.6	100.0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22),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105쪽

30) 변경화전동일(201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몸짓과소리)

〈표 2-1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열 분류(2022)

(단위: 개, %)

구분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기타	전체
개수	303	201	725	36	17	16	916	486	2,700
비율	11.2	7.4	26.9	1.3	0.6	0.6	33.9	18.0	100.0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22),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110쪽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기관과 장애인 특수학교(급)에 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전자는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4년 현재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것이 2025년부터는 예술누림 사업에 포함돼 진행된다. 후자는 장애인 특수학교(급)에 학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기관과 특수학교(급)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강사는 143명, 2022년 기준으로 특수학교 강사는 185명이다.

〈표 2-11〉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기초통계(2020~2023)

구분	2020	2021	2022	2023
참여시설(개)	270	250	261	265
참여반(개)	357	330	303	288
참여인원(명)	3,185	2,995	2,625	2,690
예술강사(명)	168	148	143	143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1쪽

〈표 2-12〉 특수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기초통계(2018~2022)

연도	참여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대비 참여비율	예술강사 지원 사업 내 특수학교비율	지원 수업 건수	예술강사
2018	144	82.3%	1.73%	197	224
2019	152	85.9%	1.79%	217	185
2020	147	80.8%	1.71%	201	273
2021	154	82.4%	1.79%	274	170
2022	162	84.4%	1.89%	225	185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3쪽

세 번째는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장애인 대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이 강사로 참여하는데 이들을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평생교육이나 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은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면, 장애인 예술단체 내에서 수행하는 교육은 장애인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달리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예술인이 배출되기도 하여,³¹⁾ 평생교육이나 복지관 교육이 반드시 비예술 장애인 대상 교육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다. 『2021년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보면, 장애인예술인이 전문 교육을 받은 기관은 ‘개인 레슨(1:1 지도)’ 29.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전문학교(예술 전공 초·중고, 대학교 등)’(22.9%), ‘기타(장애인 예술단체, 비영리단체 등)’(20.4%) 등의 순서다.³²⁾ 이처럼 개인 레슨 강사, 학교 내 예술담당 교과 담당자 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다.

한편,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이 이뤄지는 시설과 기관 내 담당자를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 교육진흥원의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예술누림 사업으로 진행된다. 전자는 복지시설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방식(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이라면, 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예술강사를 뽑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원하는 교육 장르를 적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강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술강사를 뽑는 주체는 문화예술 교육을 포괄하는 전문기관(교육진흥원)이기에 개별 복지시설 담당자의 역할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의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예술누림 사업에서는 개별 복지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할 예술가 또는 강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기존 방식이든 새로운 방식이든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를 매개인력으로

31) 한편, 장애인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한 경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통해’가 36.9%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전시회/연주회/공연/방송 등 참여를 통해’(25.3%), ‘취업/프리랜서 활동 등 관련 분야 종사를 통해’(13.9%), ‘학교 등 공교육 기관을 통해’(13.7%) 등의 순서다. 박근화 외(2021), 『2021년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61~363쪽.

32) 박근화 외(2021), 『2021년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73~374쪽 참조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실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부서가 있거나 담당자가 활동 중인데, 이들을 문화예술 교육 매개인력으로 보아야 할지는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덧붙여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화시설 종사자를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도 생긴다.

〈표 2-13〉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부서 설치(2024)

구분	사례 수	전담부서 있음	전담부서는 없으나 관련부서 있음	전혀 없음	계
장애인 복지관	146	34.2	58.2	7.5	1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3.1	45.3	51.6	10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8	5.9	50.0	44.1	100.0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37쪽

〈표 2-14〉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 근무 여부(2024)

구분	사례 수	전담자 있음	전담자 없으나 관련 업무 담당자 있음	전혀 없음	계
장애인 복지관	146	37.4	57.5	42.2	1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1.6	56.3	16.2	10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8	10.3	73.5	18.3	100.0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38쪽

나. 참여자 및 활동 사례

1) 참여 인력

문화예술 매개인력 가운데 강사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파악 가능한 교육 참여자는 교육진흥원 사업의 강사다(2023년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143명, 2022년 기준 특수학교 강사 185명). 교육진흥원 자료를 활용하면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나 문화예술 교육 참여 경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교육에서는 강사 수와 관련된 통계를 찾기 어렵다. 다만 몇 가지 방법으로 강사 수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장애인 복지관 95.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0.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94.1%)³³⁾, 이 같은 시설에는 적어도 1명의 예술강사 활동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강사 수에 대한 추정이며 복지기관 강사, 개인 레슨 강사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찾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인력에 대한 정보 역시 구하기 어렵다. 개체 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속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활동 사례³⁴⁾

① 문화예술 특화복지관

한우리정보문화센터³⁵⁾는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초창기부터 문화예술 특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장애인의 능동적인 참여 확대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 체험 또는 향유가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다른 장애인 복지관과 달리 장애인 예술 단 및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문화지원팀이 있으며, 이들이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 및 기관에 취업 및 위탁 관리하는 업무까지 한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문화예술 특화사업은 크게 오케스트라 운영과 미술창작소 운영으로 구성된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음악적 특기가 있는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직업 연주자로 고용되어 연주 활동으로 통한 자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직업 연주자로서 성장 및 활동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레슨이 필수적이므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방음 연습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악기 연주에 관심을 갖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신진 음악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레슨, 그룹 레슨, 합주 레슨 등을 한다. 미술창작소 운영은 복지관 내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입주 작가를 선발하여 작업실을 제공하는 입주 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입주 작가는 2년간 계약을 통해 작업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술 교육에 관심이 높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술 교육도 진행하여 신진 작가를 육성하고 있다.

33)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자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44쪽

34) 장애인 복지관이나 특수학교(급)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 특별히 사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35) 서울시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s://www.shc.or.kr/main/main.html> (검색일: 2024년 8월 4일)

장애인이 예술 직무로 취업-고용된 이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예술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개기관의 경우 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과 기업·기관을 매칭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직업예술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측면의 체계적,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요구된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이런 점을 중시하여 장애인이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고용 연계 및 근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직업연주자로서 근무하는 오케스트라 단원, 근로 활동을 하는 미술 작가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하여 연 130시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예술 직무로 고용된 장애인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예술강사를 고용하여 오케스트라 단원을 대상으로 악기별로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을 진행한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예술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전담인력도 들 수 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부지휘자, 레슨 강사, 편곡자 외에 2명의 복지관 전담인력이 있다. 레슨 강사와 전담인력은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며, 문화예술 교육 매개인력은 레슨 강사다. 미술 분야는 미술 교육 강사,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문 교수 외에 1명의 전담인력과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매개인력이며, 문화예술 교육 매개인력은 교육 강사다.

한편, 강사 이외의 전담인력은 다른 복지시설에서 찾기 어려운데 이들 역시 매개인력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음악 전공자 및 미술 전공자라는 특징이 있다.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영역은 매우 포괄적인데, 공연·전시 기획, 단원작가 관리,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음악·미술 창작소 운영에 더하여, 부모 상담, 사업체와의 소통까지 맡는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고용사업체 개발 및 유지관리, 고용된 작가를 위한 취업 후 적용 지원 등을 한다.

② 미술 교육 사회적기업³⁶⁾

사회적기업 스페셜아트는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육성하여 창작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과 에이전시인데, 교육은 진학, 취업부터 전문 예술인까지 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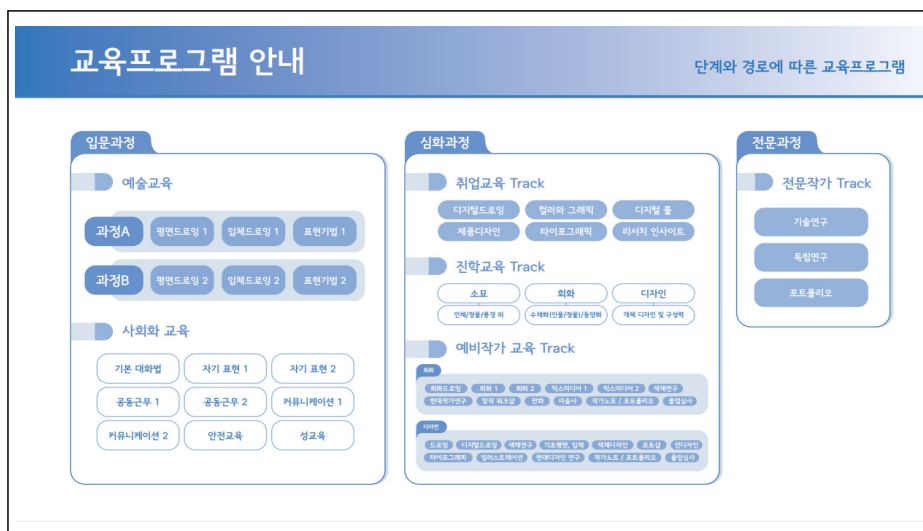
36)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지만 주된 사업이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에서 다룬다. 스페셜아트 홈페이지 <https://www.specialarts.co.kr> (검색일: 2024년 8월 20일)

도록 단계별, 목표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에이전시는 장애예술인 브랜딩부터 전시, 예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페셜아트의 교육 내용에는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화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도 있다.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작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소양을 갖추어야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성 부족인 경우가 많다. 또한 예술교육은 입문 과정, 심화 과정, 전문 과정으로 구분하여 욕구와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정별로 전문적인 예술가가 활동한다.

스페셜아트의 (매개)인력은 대표를 포함하여 총 10명이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 인력과 영상 촬영 인력이 활동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매개활동 영역은 교육 기획, 전시 기획, 창작 지원(1:1 멘토링, 그룹 멘토링), 교육 강사(디지털드로잉, 믹스미디어, 실크스크린), 근로 지원(장애예술인의 행정 지원), 아카이브(장애예술인의 작품 등을 기록, 정리)의 역할이다. 문화예술 교육 매개인력은 교육 강사와 교육 기획으로 볼 수 있다.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개별 장애예술인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술 영역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진다.

[그림 2-2] 스페셜아트의 예술교육



자료: 스페셜아트 홈페이지 <https://www.specialarts.co.kr/15> (검색일: 2024년 8월 20일)

③ 창작 마당극 극단³⁷⁾

1990년 창단된 극단 ‘함께사는 세상’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작 마당극 전문 극단이며 연극 교육도 함께 한다. “함께사는 세상은 연극을 만들고 공연하는 과정, 그리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의식을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연극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모두 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개인력은 예술강사 또는 공동 창작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 함께사는 세상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극 교육의 방향성)

- 신나는 어린이 연극교실

연극은 놀면서 배우는 최고의 놀이 학습입니다.

‘신나는 어린이 연극교실’은 창의적인 연극놀이를 통해 상상력뿐만 아니라, 몸과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및 집단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공동체의식 등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매년 극단의 자체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젊은이를 위한 연극워크숍

극단 함께사는세상의 창작방식인 공동창작을 공간으로 하여, 나로부터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 나갑니다.

극단 배우들과 워크숍 참가자인 예비배우들이 만나 내속의 다양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극작품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연극교실

극단 함께사는세상의 특성화 연극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매년 연극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총 5명으로 4명은 비장애인, 1명은 발달장애인이다. 단원들은 연극을 한 지 3년에서 30년까지로 경력이 다양하다. 5명의 직원이 상근하는데 1명은 예술감독연출, 1명은 대표배우, 1명은 무대감독기획행정, 2명은 홍보·회계·연극교육배우 역할을 한다. 연수 단원 1명은 연극 교육 보조강사와 배우를 담당한다. 현재 극단에서는 연극 공연과 축제 기획, 그리고 일상적인 연극 수업이 연간 활동으로 진행된다. 극장 공연과 순회공연을 위한 비정기적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습 때마다 3명의 객원 배우가 함께 참여한다(1명은 뇌병변 장애인 배우다). 극단 내 발달장애인 연극동아리 활동도 주 1회

37) 문화예술단체이지만 자체 연극 교육에 주목하여 문화예술 교육에서 다룬다. 극단 함께사는 세상 홈페이지 <http://www.hamsesang.com> (검색일: 2024년 8월 14일)

운영한다. 또한 축제 준비를 위해 4개의 장애인 기관에 연극 강사 및 공연 연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4명의 배우가 4개 기관의 발달장애인 참여자들과 주1회 연극 수업을 하면서 축제에 참여한다.

이러한 구체적 활동을 통해 함께사는 세상에서 매개활동은, 공연을 위한 장애예술인과의 창작 연습 활동, 장애예술축제를 위한 장애인 기관과의 기획협력 활동,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강사지원 활동 등으로 볼 수 있다. 인력으로 보면 무대감독기획행정(1명), 홍보회계·연극교육·배우(2명)를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고, 교육 매개로 한정하면 연극교육을 담당하는 2명이 매개인력이다. 그런데 2명은 연극교육 이외에 홍보·회계·배우의 역할을 하는 데서 보듯이 매개활동은 중첩되어 수행되고, 예술인이 매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④ 전인적 예술교육 단체

피터팬클럽은 ‘즐겁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문화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 교육단체로 서울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터팬클럽에서는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과 전시, 부모자조모임, 그리고 꿈더랜드 배움터 공간을 운영하며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피터팬클럽의 예술교육은 다양한 장르를 유기적으로 연결, 융합 진행하고 있기에, 장르 예술이 아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살아가는 ‘전인적 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삶의 예술’을 지향한다.

피터팬 예술가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체 초반에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라 주로 장애아동 참여자가 많았다. 그러나 6년 정도 활동이 지속되니 아동이 자라기도 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유입되기도 하여 아동·청소년·청년 등 연령과 무관하게 다양하게 섞여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0여 명 정도다. 현재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중복장애인 포함)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비장애형제와 가족들도 참여하고 있다.

매개자 인원은 장르별 예술가(미술, 피아노, 색소폰, 합창, 바이올린, 스포츠: 인라인, 농구) 13여 명, 발달장애인 어머니 20여 명(모든 예술 활동 담당), 발달장애인 아버지 20여 명(스포츠 활동 담당) 정도다.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세분화된

매개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예술교육가·예술기획자뿐 아니라 음향·영상·연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발달장애 예술가가 협력 예술가이자 예술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발달장애 예술가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협동 작업을 하는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예비 예술가들의 학습모델이 되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도 한다.

피터팬클럽의 특이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을 서포트하거나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기획, 운영, 참여자로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에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장애인 복지관, 문화재단, 평생학습관 등)이 의미 있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피터팬클럽은 매개자, 매개활동에 대해 확정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 실제 피터팬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들은 강사, 기획 및 운영, 보조 협력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전인적 성장을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통해 매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³⁸⁾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예술교육에 참여하여 보조도 하고 케어도 하지만 때론 예술가가 되어 협업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들이 농구 게임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자녀와 스포츠를 즐기며 가족의 건강성이 증진되기도 한다고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

가. 개념과 범위

문화예술 분야 연구에서 협의의 매개인력은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 행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했다. 이때 매개인력은 예술인이 아니지만 문화예술 기관(단체)에 근무하거나 혹은 기관(단체)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력이 여기에 속한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공연·전시의 기획·대관을 기획하거나 홍보하는 인력이다. 학예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고, 자격증 없이 근무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로 문화시설에 근무한다. 두 번째는 시설이 아니라 예술 협회·단체에 근무하는 경우다. 무용단, 연극단, 미

38) 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로 3장 1절의 면담 참여자 가운데 1명의 답변이다.

술협회에서 기획, 홍보,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 같은 협·단체를 운영한다. 문화시설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의 기획과 홍보 일을 수행하고, 회계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주된 업무가 예술인의 일(창작, 실연, 기술 지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개인력이지만, 예술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는 a극단에서 홍보와 인력 관리가 주된 업무이지만, a극단의 여러 작품 가운데 작품 ㉔의 극본을 집필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협·단체 직원은 매개인력이지만 예술가인 경우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예술 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예술단체에서는 매개인력과 예술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게 오히려 일반적이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담당자의 주된 업무는 문화예술 정책 사업의 기획, 사업 예산 배분 등이다.

이처럼 협의의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문화시설, 예술단체, 문화예술 행정기관의 기획, 홍보,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매개인력은 특정 공간(문화시설, 예술단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공간에 얽매지 않고 프리랜서로 문화시설·예술단체·행정기관과 관계를 맺고 일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협의의 개념이 장애인 문화예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문화시설, 예술 협·단체, 문화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또는 프리랜서로) 장애예술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 이들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문화시설과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또는 장애인 예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³⁹⁾ 문화시설에서는 언제나 장애인 관객이 찾을 수 있기에, 문화예술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예술을 진흥해야 책무⁴⁰⁾가 있기에 매개인력이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개인력은 장애(인) 문화예술만을 배타적으로 담당할 수도 있고,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장애예술 매개활동을 병행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행정기관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⁴¹⁾에 따라 공공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정기적 공연과 전시가 시행되어,⁴¹⁾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져서 문화시

39) 예술단체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예술 행정기관과는 입장이 다르다.

40) 「장애예술인지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책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현실에서 실현되는지의 별개의 문제다.

4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⁴¹⁾에 따라 공공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정기적 공연과 전시가 시행되어,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져서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증가할 수 있다.

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 예술단체와 협회에서 일한다.⁴²⁾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 그리고 여기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운영자 포함)이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다. 연구에서는 장애인 예술단체 운영자와 구성원을 주로 다루고,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행정기관 담당자는 4장의 정책방안에서 언급한다.

나. 참여자 및 활동 사례

1) 참여 인력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 문화예술협회의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이고, 또 여기서 활동 중인 매개인력이 몇 명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2021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 협·단체 1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모집단은 장문원 지원 사업 수혜 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소속단체로 223개다. 그런데 223개가 장애인 예술단체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다.

한편, 2023년 장문원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예산 5,950백만 원)에 지원 신청 건수는 851건이다(참고로 선정은 241건). 공모 참여 자격을 살펴보면(2024년부터 사업 이름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에서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바뀜), 일부 사업에서는 개인과 비장애인 단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851개를 장애인 예술단체로 보기 어렵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는 「2022 장애예술인 수첩」을 발간하면서 550명의 장애예술인 경력을 수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협회가 운영하는 E美지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예술단체 116개(법인 37개, 그룹 79개)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⁴³⁾ 예술단체와 협회를 포함하며, 개별 단체를 클릭하면 단체에 대한 정보(연혁, 조직도, 행사 현황 등)를 알 수 있다. 다만 업데이트를 원활하지 않아 2013년 기준으로 단체를 소개하기도 한다.

42) 비장애인 예술단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을 고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예술)인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예술단체에서 장애(예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성격이 다르다.

43) E美지 E사람 장애예술단체 http://www.emiji.net/bbs/sub4_2 (검색일: 2024년 9월 18일)

현재로서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개체 수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단체와 협회에서 매개활동을 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기에 면담조사 및 방문을 통해 장애인 예술단체 내 매개활동을 살펴본다.

2) 활동 사례⁴⁴⁾

①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을 운영한다. 법인사무처에는 경영지원실, 후원마케팅실, 국내사업본부가 있으며, 하트하트 아트앤컬처에는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이 있다. 오케스트라는 37명의 단원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업체 위탁 고용 형식으로 근무한다. 급여는 기업에서 받지만 일로서의 예술 활동은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형식이다.

공연단(오케스트라, 앙상블)을 지원하는 행정 인력 5명, 예술강사 7명 정도를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다. 행정인력의 업무는 펀드레이징·공연 대응(1명), 기획 공연·단원 지원(1명), 앙상블 내 장애인 단원 소통(2명), 프로젝트 사업·기업 연계(1명) 등의 활동을 한다. 이 밖에 회계와 홍보 업무는 공연단이 아니라 재단 내 다른 부처 직원이 담당한다. 이들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인력 신규 채용은 (사회)복지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예술 전공자, 일반 행정 전공자, 복지 전공자가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는데, 요사이 복지 전공자를 뽑는 게 일반적이다. 예술 전공자는 장애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일반 행정 전공자는 예술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 전공자는 입사 초기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지라도 장애 이해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근무한다. 이처럼 장애인 예술단체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도라는 것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행정 매개인력 5명 가운데 2명이 발달장애인 단원과 소통하는 일에 집중한다.

단원의 예술 기량 향상을 위해 예술강사가 활동한다. 강사 선발 시 주요한 조건은 예술 교육 경험 여부라고 한다. 예술 전공자가 아니라 예술 교육 경험자를 뽑아야 시행착오가 상대적으로 적다. 장애인 예술 교육 경험 강사를 뽑은 게 가장 좋지만 그 같은 조건

44) 활동사례에서 다루는 4개는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3장 1절의 면담조사에도 포함), 아래의 내용은 면담조사 요약이기도 하다.

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경험자를 선발하고, 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시키는 게 현실적이다.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서 매개인력이라 할 수 있는 행정 업무 담당자는 선임자와 일을 수행해 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스스로 전문성을 쌓아간다. 그런데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경험의 전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선임자의 경험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강사 역시 스스로 전문성을 축적해 가지만 장애인 예술 교육에 대한 기본적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② 예술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단체

파릇하우스는 2009년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무용단을 운영하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다. 파릇예술교육센터는 오후(방과 후)에 학생들(22세 전공과 학생까지)에게 음악, 미술, 무용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적 재능을 지닌 예비 전문예술가를 발굴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청소년 예술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파릇장애인직업예술학교는 전일제로 성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월 40만 원 수강료를 내는 학생과 파릇하우스 직원이 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무용단은 4명의 장애예술가뿐 아니라 프로젝트 팀처럼 (비)장애예술인이 활동한다.

파릇하우스 구성원은 장애예술인 4명, 비장애예술인 6명이다. 매개인력은 먼저 파릇하우스에 강사로 참여하는 비장애예술인(직원과 시간 강사)이다. 이들이 파릇예술교육센터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음악, 무용, 미술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강사 채용의 첫 번째 조건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참여 의향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술강사로 활동한다. 두 번째 매개인력은 직원으로 일하는 비장애예술인이다. 이들은 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예술단과 교육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이 단체 매개인력의 특징은 비장애예술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행정업무도 하고, 장애인 대상 강사 역할을 하는 데 있다.

③ 발달장애인 뮤지컬단체

뮤지컬단체 라하프의 구성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아카데미와 칼리지를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특수학교, 발달센터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칼리지는 발달장

애인 성인을 위한 4년제 과정이다. 현재 단원은 약 30명이며 정기 공연과 배리어 프리 공연을 수행한다.

임직원은 네 명이다. 이사장과 단장이 실제 기획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 두 명은 발달장애인으로 보조강사와 단원을 케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원 두 명이 근무할 때 근로지원인이 함께 한다. 단원과 칼리자아카데미 교육생과 함께하는 강사는 10명 정도이다. 한편, 연출과 기술 스태프 등은 외부 인력이 도움을 주는 형태다. 연출과 음악 감독 등은 뮤지컬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같이 작품 단위로 같이 한다. 기술 스태프는 전문회사와 계약하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이 단체에서 매개인력은 4명의 임직원과 10명의 강사다. 기획과 홍보업무는 대체로 비장애인 이사장과 단장이 처리하고, 장애예술인 두 명의 직원은 강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사 신규로 강사를 뽑을 때는 지인 추천으로 하는데,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장애예술인을 대하는 태도다.

④ 발달장애인 미술단체

발달장애인 미술(교육) 매니지먼트 단체 SYS플래닛은 서울시 전문예술단체다. 밀알복지재단의 위탁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1년~5년, 성년반, 미성년반)을 실시하고, 국내외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직원은 4명인데, 3명은 아트팀에서 발달장애인 미술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1명은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운 직원을 조건을 따져 충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팀워크라고 여긴다. 발달장애인 미술 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은 거의 일대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4. 장애인 접근성 제고 활동⁴⁵⁾

가. 개념과 범위

1) 접근성 개념⁴⁶⁾

국내 문화 정책 논의에서 최근 활발하게 ‘접근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문화 정책 논의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해서도 접근성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거나 규정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란 용어는 주로 물리적 차원에서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되며, 특히 교통이나 이동 편의성과 연계되어 사용된다.⁴⁷⁾ 물론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사용되는 접근성 개념은 이러한 물리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특히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연관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 혹은 문화예술 정책논의를 넘어서면 접근성은 지리적·물리적 차원의 의미로 한정되어 좁게 이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access와 accessibility, 두 개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accessibility가 물리적 환경, 콘텐츠나 제품 및 서비스 차원의 접근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access는 이를 포함하되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특성을 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영국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은 일찍이 문화예술 정책을 예술의 수월성(excellence)과 접근성(access) 개념으로 접근했고, access는 ‘문화적 삶에 있어 모든 이들이 물리적, 지적, 사회적 차원에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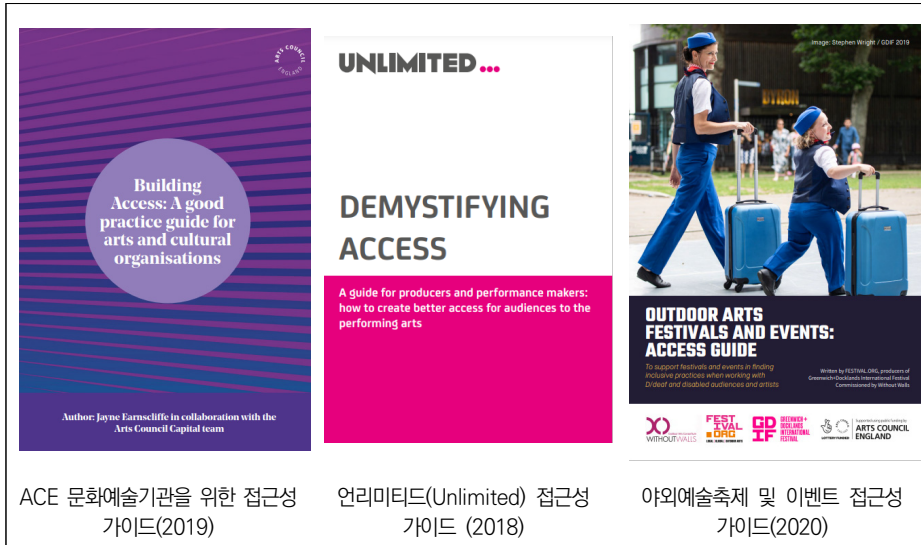
45) 접근성은 앞의 창작 지원, 교육, 단체 운영근무와 다르게 최근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어서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룬다.

46) 접근성 관련 개념 논의는 연구자(최보연)가 참여했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2023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총론편』, 그리고 최보연·정종은(2024)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념적 고찰: 접근성 개념 및 관련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학』, 16(2), 85~114쪽에서 다른 내용을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47) 국어사전의 정의 역시 그렇다. 접근성(接近性): 통행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일반적으로 거리·통행시간·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많아진다(표준국어대사전)

48) Holden(2008)은 문화민주주의 맥락에서 접근성을 재정의하여 설명하는데,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goals would be for everyone to have physical, intellectual, and social access to

[그림 2-3] 영국 접근성 가이드 샘플



호주에서도 이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Creative Australia의 경우, 기관의 주요한 미션 중 하나가 ‘모든 호주인들이 예술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ensuring greater access to the arts for all Australians)’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접근성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가능성(Web accessibility) 및 이벤트와 장소의 접근가능성(Event and venue accessibility) 보장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⁴⁹⁾ 영국과 호주의 용어 사용이 의미하는 바는 장애인 관련 ‘접근성’ 논의가 단순히 기술적·물리적 차원에 한정되지 말고, 개인의 권리이자 기회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문화예술계 현장과 접근성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접근성은 점진적이지만 공간이나 시설에 관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문화 정책 차원보다는 주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이러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

cultural life, and to have the ability and confidence to take part it and fashion the culture of today. Holden, J.(2008) *Democratic culture: opening up the arts to everyone*(London: DEMOS) 26쪽.

49) 호주예술전담기관 Creative Australia 웹사이트 참조. <https://creative.gov.au/about-us/accessibility/>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다. 이를 고려하여 국내에서 논의되는 ‘접근성’ 개념을 크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접근성 개념을 물리적 접근성과 미학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⁵⁰⁾ 논의의 핵심은 물리적·미학적 접근성의 경우, 기술적 접근성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권리나 기회라는 차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고려한 ‘적당한 편의가 아닌 장애인들의 정당한(권리이자) 편의로서 접근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¹⁾ 나아가 미학적 접근성(혹은 미적 체험에의 접근성) 역시 단순히 장애인 향유자가 콘텐츠로서 공연예술을 미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감각을 지원하는 장비나 도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⁵²⁾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당위적 전제는, 향유 활동을 포함하되 창작 활동까지 고려한 것이다.⁵³⁾

한편, 국내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최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접근성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경우는 장애인을 포함한 ‘관람객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접근성 개념이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⁵⁴⁾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과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던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⁵⁵⁾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에서 접근성 논의를 정리하자면, 공연예술 관련해서는 물리적 접근성 외에 작품을 다양하게 감각하여 문화예술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미적 체험 혹은

50) 문영민·김원영(2015),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 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최석규·장수혜(2020), 『국립극단 장애와 연극 창작·제작 방향성 연구』(국립극단); 김민정(2020), “극장 접근성과 장애인객 서비스: 적당한 편의가 아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극장이 되기까지,” 『연극평론』 통권 96호

51) 김민정(2020), 위의 글 참조

52) 문영민·김원영(2015), 앞의 글, 김민정(2020), 위의 글 참조

53) 문영민·김원영(2015), 앞의 글 참조

54) 국립중앙박물관(2023)은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여는 2030 전략」을 수립하고,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라는 대의 하에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인구,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현(2023),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현황 및 계획,” 「모두를 위해, 모두가 함께, 박물관 접근성 개선 교육프로그램」(국립중앙박물관, 2023. 9. 14.)

55) 고영준(2022), “모두를 위한 박물관의 디자인과 서비스,” 「2022 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 모두를 위한 박물관 공간 조성 교육」(국립중앙박물관, 2022. 8. 30.);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린·김보섭(2023), “장애학적 접근에서 살펴본 접근성 담론과 디자인: ‘보편성’의 정치성,” 「한국디자인학회 2023 가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2023. 10.)

미학적 차원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더욱이 향유 영역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창·제작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까지 포괄한다. 반면에 시각예술의 경우,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관람객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물론 일부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포용적 예술 관점에서의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 간 협업을 시도 혹은 장려하거나⁵⁶⁾, 배리어 프리 창작 활동, 더 나아가 접근성 자체를 예술 소재로 활용하는 일종의 접근성 미학을 시도하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⁵⁷⁾ 그러나 후자의 경우, 접근성이란 개념 자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포용적 예술, 무장애예술 등 장애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창작방식 혹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성으로 보여 차별성이 보인다.

3) 매개활동과 접근성

매개와 접근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공연예술 분야의 논의를 빌어, 물리적 접근성(웹 접근성 포함) 및 미학적 접근성,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의 서비스로서의 접근성 영역에 한정된 것을 매개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인력이 개입해야 하는 접근성 영역은 물리적·미학적·서비스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포괄하되, 이보다 확장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기회라는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접근성을 정의하면 현실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된 모든 정책이 접근성으로 치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 정책이 펼친다면 이것은 접근성 정책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 정책 사업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상적으로는 접근성 개념을 위와 같이 확대할 수 있지만 정책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접근성 제고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 활동은 향유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적용된다. 최근 접근성 매니저라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향유 측면에서 언급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접근성 매니저는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56)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언러닝, 뮤지엄(Unlearning at the Museum),” 「2019 포용적 예술작가 육성 워크숍 자료집」(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시립미술관)

57) 아만다 카시아(2023), “접근성을 미학적으로 전유하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모두예술주간 2023: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자료집」(2023. 11. 1.~11. 12.)

물리적,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⁵⁸⁾ 하지만 1장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데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창작)을 하는 데 지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매개인력 역시 장애인의 창작과 향유 접근성을 확보하고 확대하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접근성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기획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9년을 기점으로 배리어 프리 공연의 창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접근성 매니저’라는 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⁵⁹⁾ 극단 연출자의 요청을 받아 접근성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은 하나의 작품에서 장애인 관객의 최적의 관람을 위해 필요한 것을 체크라고 이를 작품과 극장 내에서 실현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수어통역과 자막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이를 어떻게 섭외하여 작품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창작진 및 공연장 운영진과의 논의 하에 준비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해설을 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음성해설가 섭외뿐 아니라, 음성해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과 연계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작진-공연장 운영진-음성해설가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기도 한다. 또한 접근성 매니저는 장애인 관객이 극장 방문과 관련된 이동지원을 요청하면 모셔 오는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한다. 장애인 관객이 비장애인과 최대한 동등한 관람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을 향유 매개라고 한다면, 단순히 기술적인 서비스로서 관람 환경의 개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관객의 관람(향유)이 최적화되기 위해 창작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사전에 고려하여 창작진, 공연장 운영진과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도 담당한다. 후자의 경우 창작 영역에서의 매개활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기획자는 장애예술인 경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기도 하는데, 이들은 장애예술가의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기획자로서 장애예술인과 함께 작업하는데 이 역시 장애예술인(창작) 매개라고 볼 수 있다.

58) 한국고용정보원(2023),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위한 신직업 연구』, 318쪽

59) 김수현(2023. 12. 13.), “접근성 매니저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함께 즐기는 예술을 위해!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SBS 커튼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9630&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최주성(2024. 1. 13.), “공연자막 수정부터 객석안내까지...늘어나는 ‘접근성 매니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3025800005>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하지만 창작과 향유 매개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예술 작품 발표까지의 과정에서 특정한 매개활동의 영역이 정해지거나, 단계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공연의 프로덕션 예산 및 제작기획팀과의 협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공연에 반영할 것인가가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접근성 관련 요소를 공연에 결합하고 싶은 연출가나 공연제작팀의 의견과 가용예산 범위에 따라 전체적인 접근성 개입의 정도가 그때그때 결정된다.

창작 단계에서 접근성 기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 감각별 모든 접근성을 아우르기보다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프로덕션 자체에 장애인예술인이 결합하는지 여부부터, 공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만을 제공할 것인지, 혹은 수어통역 등이 함께 활용될 수 있다면 몇 회차를 할 것인지,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해설을 준비할 경우 몇 회차를 할 것인지 등등 모든 것이 가용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결정한 뒤,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의 연결, 예를 들어, 공연 전문 수어통역사나 음성해설 관련 회사·단체와의 연계 같은 부분들 또한 접근성 매니저가 담당한다. 또한 예산 등 여러 이유로, 당초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연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성 지원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이러한 물리적 지원을 접근성 매니저가 1인 또는 팀을 이뤄 담당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현재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접근성 매니저들의 경우 명칭은 대부분 일괄되게 접근성 매니저라는 호칭으로 활동을 겸직하지만, 이들이 실제 프로덕션별로 수행하는 접근성의 정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편,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의 접근성 과정은 음성해설과 수어통역(2022), 시각예술 관객의 접근성·음성해설·수어통역(2023)을 포함한다. 시각과 청각장애인 관객의 공연 관람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음성해설가, 자막(화면)해설가, 수어통역자 등은 접근성 관련 활동을 하는 매개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 이름으로 불리지 접근성 매니저라고 명명되지는 않는다.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해설 분야의 활동가들은 최근 공연계에서의 연계 활동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일부 수어통역이나 음성자막해설 전문 회사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현장성을 강조하는 공연예술에 특화된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해설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2024년 현재로서 국공립 공연시설이나 기관에 접근성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정식 고용되어 활동하는 사례는 모두예술극장이 유일하다. 국립극단이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등이 접근성 공연을 활발하게 시도하면서 기존 내부 인력 중 한 명이 접근성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접근성 매니저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직무 차원에서 고용된 인력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이렇듯 접근성에 관심을 갖는 공연시설의 경우에도 외부의 프리랜서 접근성 매니저와 작품 단위로 계약을 하여 접근성 공연을 함께 기획,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관람 서비스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기관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010년을 기점으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별도의 부가적 영역이 아닌, 박물관의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논의되어 오는 가운데, 최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논의는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나 큐레이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기는 하다.⁶⁰⁾ 접근성 매니저라는 개념으로 박물관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것은 이러한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의 접근성 기획 역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한 방식이 폭넓게 시도되기보다는 기존 시설이나 전시 컬렉션에서의 물리적, 감각적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접근성 관련 의제가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현재 수어전시 안내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접근성 매니저 등으로 공식 호칭하지는 않고 있으며, 접근성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⁶¹⁾ 다만, 2023년부터 국립

60) 1980년 개최된 제13회 국제박물관협회(ICOM)에서 총회 결의안으로 박물관의 '장애인에 대한 책무'(Resolution No.2: Museums Responsibilities Towards the Handicapped)를 채택된 바 있다. 이후 2010년을 전후로 UNESCO의 문화다양성 담론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라는 논의가 긴밀히 맞물리는 가운데 포용적 박물관 개념과 박물관의 공공성의 영역을 사회윤리적 차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박물관 행동주의 개념이 부각되었으며, 이것이 박물관 서비스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성 논의의 발전으로 이어져 온 배경이다. 김현경(2020), 앞의 보고서, 17~18쪽 재인용

61) 외국에서는 별도의 부서가 운영되기도 한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경우 ACCESS SMITHONIAN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미국 박물관 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가 공표한 '다양성, 형평성, 접근성 및 포용성(DEAI)' 이니셔티브를 전담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박물관의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공평하게 경험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담당한다. Access Smithsonian 웹사이트 참조. <https://access.si.edu/about-us>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중앙박물관이 ‘문화예술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등, 향후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접근성 관련 논의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라는 의제와 맞물려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⁶²⁾

접근성에 눈여겨 볼 지점은 접근성 영역을 별도의 부가적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문화시설 직원이 접근성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접근성이라는 의제 자체가 문화예술기관의 운영과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제도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창작품 우선구매(2023)와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연1회 장애인 공연·전시가 실시된다(2024). 공공기관 전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국공립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고려할 때,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일부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이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수용돼야 한다. 설사 문화시설의 모든 공연, 혹은 전시 기획이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포함한 관람객의 접근성 제고는 문화향유의 저변확대를 주요하게 담당하는 문화시설로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나. 참여자 및 활동 사례

1) 참여 인력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접근성 관련 매개활동을 담당하는 참여자의 정확한 수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2024)에서는 ‘접근성 매니저(Accessibility Manager/Coordinator)’를 새롭게 발현된 새로운 직업 중 하나로 소개하지만, 현재로서 접근성을 전담하는 인력의 구체적 직업화 단계가 본격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접근성 매니저를 직업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자격 인증 관련 제도나 관련 논의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⁶³⁾ 새로운 직업 중 하나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접근성 매니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애예술과 관련된 논의가 최근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접근성 관련 직무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62) 정현(2023), 앞의 글 참조

63) 참고로 공연장 혹은 공연시설의 경우 하우스매니저먼트라는 직무가 별도로 있고, 이와 관련된 민간 자격 제도가 존재한다. 2014년부터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는 ‘하우스매니저’ 민간자격증 제도(자격발급기관: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16744> (검색일: 2024년 5월 24일)

장애인 예술 연구자와 장애예술 현장 담당자를 면담조사해 본 결과,⁶⁴⁾ 현재 장애인 접근성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은 10~15명 정도로 대부분 공연예술계에서 게릴라식 매개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의 주된 활동 장르는 연극이 가장 많으며, 일부 뮤지컬이나 무용에서도 부분적으로 활동한다. 최근에는 공연예술축제에서 접근성을 축제 운영의 주요 의제로 적극 포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접근성 매니저 외에도, 단체(기관)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⁶⁵⁾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경우,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하는 이들은 대체로 개인 단위 프리랜서로 작품 단위 계약에 따라 일한다. 이들은 대부분 장애예술인과 작업 경험이 있는 연출가, 기획자, 배우들이다. 이들은 때때로 본인이 기획참여하는 배리어 프리(무장애) 공연에서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고, 타 극단이나 기관 작품의 접근성 매니저로서 역할만 의뢰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하는 이들은 접근성 의제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의 스터디 모임을 통해 관련 연구 및 정보와 의견 교환을 공유하면서 공연예술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접근성 매니저 중에는 특화된 접근성의 전문가로서 활동의 범주를 넓혀가는 경우도 있다. 가령 자막해설 분야가 그러한데, 단순히 사전에 받은 공연 대본을 텍스트로 옮겨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진과 면밀한 논의는 물론 장애 당사자의 감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막해설용 대본을 작가가 따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이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막해설 분야는 ‘자막해설작가’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접근성 매니저라는 표현만으로 포섭되지 않음을 강조한다.⁶⁶⁾ 이러한 자막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의 창·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는 접근성 매니저들(대부분이 공연예술계 종사자들) 중에는 자막

64) 3장 1절에서 보듯이 30명을 면담조사했는데, 이때 접근성 매니저와 접근성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65) 서울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의 경우 2022년부터 접근성 매니저와의 계약 하에, 축제에서 선보이는 공연의 주로 향유적 차원의 접근성 기획, 운영을 시도해 왔다. 2022년에는 개인 프리랜서 전문가가 접근성 매니저로 결합했다. 2023년에는 ‘조금다른 주식회사’라는 접근성 매니지먼트 회사가 접근성 기획 및 운영을 담당했다

66) 자막해설의 경우 역시 미리 대본을 받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해설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론(예를 들어, 기호, 이모티콘 등 그림 기호들)을 창작진과 함께 논의하면서 자막해설 버전을 완성한다. 실제 실시간으로 자막해설을 운용할 때, 배우의 호흡 등 현장의 상황을 맞춰 자막이 제시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통해서 자막해설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해설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매니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접근성 의제에 관심을 가진 연출가나 기획자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를 접근성 매니저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이자 주요한 의제로서 장애예술인과 함께 하는 공연이나 장애인관객을 고려한 공연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던 연출가, 기획자들 역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접근성 매니저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접근성 관련 활동들이 주목받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창작자기획자들의 개별적 관심을 넘어서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제도화를 기점으로 향후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접근성 관련 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활동 사례

① 접근성 매개 단체⁶⁷⁾

접근성 매니저들의 활동과 더불어 최근 공연예술계에서 접근성 관련 매개활동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단체들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예비사회적 협동조합인 ‘조금다른 주식회사’의 경우,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이하 SPAF)에서 접근성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⁶⁸⁾ 조금다른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팀명 ‘조금다른’을 모태로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이어오다 2023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지난 수년간 주력해 온 활동은 장애인식 개선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접근성 개선 작업이다.⁶⁹⁾ 조금다른주식회사는 접근성 매니지먼트를 특화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함께 참여하는 3명의 핵심 멤버 모두 접근성 매니저기획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24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접근성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67) 3개 단체는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래의 내용은 이것을 요약한 것이다.

68)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2023 SPAF 접근성 기획 아카이브 공연장을 배리어프리 하기』

69) 이충현(2023), “장애인 공연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 불확실하지만, 유쾌하게 관객을 만나러 가는 길,” 『웹진 이음』(2023. 6. 28.) <https://ieum.or.kr/user/webzine/view.do?idx=518> (검색일: 2024년 5월 24일); 장슬기(2024), “[인터뷰] 완전한 배리어프리는 불가능하다: 이충현 문화기획자,” 『월간참여사회』 2024년 4월호.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62095> (검색일: 2024년 5월 24일)

조금다른 주식회사가 주로 공연 분야에서의 접근성 개성을 위한 콘텐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접근성 매니지먼트) 등을 주요하게 담당해 왔다면, 음성해설, 자막해설, 수어통역 등 주로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술적 차원의 매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기업도 있다.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소는 음성해설과 자막해설을 구심점으로 수어통역이나 쉬운 글쓰기까지도 포함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업이다. 공연, 방송, 영화, 드라마 및 시각(전시) 등 장르를 넘나드는 배리어 프리 버전의 음성해설 제작 외에도 터치투어, 가이드 투어 등 일부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기도 한다.⁷⁰⁾ 특히 공연에 특화된 음성해설은 사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연장 내 통역부스 안에서 진행된다.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의 공연장 및 배우들의 상황, 출연진과 관객 간의 호흡 등 공연의 현장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음성해설을 의뢰받게 되면, 연출진, 창작진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리허설 참여 등을 통해 실제 공연장에서의 음성해설이 현장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들은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소 내에 음성해설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자막해설 3~4명, 시각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인력 7~8명 등이 함께 협업한다.

2020년 설립된 오롯플래닛은 자막해설에 특화된 기관이다. 오롯플래닛은 영화, 드라마, 공연 분야에서의 자막해설 콘텐츠를 제작, 기획하는 곳으로 배리어 프리 버전의 한글자막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자막콘텐츠 제작 작업도 겸한다. 이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서도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의 현장성을 고려한 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누구나 동등한 관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맞춤형 서비스 유니스텝(UNISTEP)을 자체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다.⁷¹⁾

70) 조대성(2023), “[서수연 음성해설작가 인터뷰] 공연예술접근성은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다,” 『예술경영』 495호(2023. 10. 26.) https://www.gokams.or.kr/webzine/mobile/plan/view.asp?idx=2658&page=1&c_idx=85&searchString= (검색일: 2024년 5월 24일)

71) 오롯플래닛은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2024 예술 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뮤지컬 자막서비스 분야)에도 선정된 바 있다.

〈표 2-15〉 접근성 매개활동 관련 기관 사례

기관명	조금다른 주식회사 (예비사회적기업)	(주)한국콘텐츠 접근성연구소	(주)오롯플래닛
공식 웹사이트	http://alittledifferent.kr	https://www.kcarc.co.kr/about	https://www.orotplanet.com/
대표자	이충현, 김혜진, 소재용 (접근성 매니저)	서수연 (음성해설작가)	최인혜 (자막해설가)
주요활동 영역	접근성 기획/운영 놀이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기획 및 진행 문화기획	접근성 콘텐츠 제작, 제공, 연구 음성해설 전문업체, 터치투어 등 접근성 콘텐츠 개발, 제공	자막해설 콘텐츠 전문제작, 기획 영화, 드라마, 배리어 프리 자막 전문업체
최근활동	2023 SPAF 접근성 기획·운영 20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Future Wide Open 쇼케이스 '돌리는춤' 접근성 기획·운영 2024 SPAF 접근성 기획·운영	2024 이은우 시작작가 접근성 가이드 투어(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4 걸리버 마지막여행 (모두예술극장) 음성해설/더빙(폐쇄형)/ 음성소개 조씨고아, 복수의씨앗/만선/파우 스트엔딩 등 (국립극단) 온라인극장 음성해설 콘텐츠제작	2024 뮤지컬 사의찬미 2024 창작가무극 금란방(서울예술단) 등

② 접근성 관련 워크숍⁷²⁾

②-①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경계 없는 공연예술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접근성 공연 제작과 접근성 워크숍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쉬운 글쓰기 워크숍’과 ‘공연 접근성, 시선 넓히기’ 참가자를 모집하여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쉬운 글쓰기 워크숍’에서는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글을 쉽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였다. ‘공연 접근성, 시선 넓히기’에서는 우리 공연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접근성 공연은 왜 해야 하는가, 공연예술 현장에서 접근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동료 창작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72) 접근성 관련하여 장문원의 이음 아카데미 접근성 과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워크숍이 진행된다.

②-② 성북 공공예술사업 접근성 탐방 워크숍 ‘입장-하다’

성북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21-22 공공예술사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2022년에는 Oset 프로젝트 팀이 접근성 탐방 워크숍 ‘입장-하다’를 운영했다. 워크숍은 문화예술공간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 확장을 고민하는 창작자, 접근성의 관점에서 성북의 도서관과 극장 공간을 탐방하고 싶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6회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성북구 소재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건물의 시설 및 정보 접근성 관련 내용을 직접 조사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워크숍 이후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은 참여자들과 함께 모색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시설 보수를 진행하며 공공 공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접근성 워크숍 참여자들의 꾸준한 네트워킹을 통해 시설 접근성뿐만 아니라, 배리어 프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을 진행했다.

Oset프로젝트 팀에서는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예술공간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입장을 막아온 유무형의 벽(장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시설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고 상상하기 위해 ‘시설 접근성 조사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기획·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남산예술센터 시설 접근성 워크숍’(2017), ‘대학로 공연장 및 거리 접근성 워크숍: 걷는 인간’(2018), ‘대학로예술극장 시설 접근성 점검 워크숍’(2020),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가: 남서울미술관 시설 접근성 워크숍’(2020), ‘성북 접근성 탐방 워크숍: 입장-하다’(2022) 등의 참여자 모집 워크숍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제3절 시사점과 쟁점사항

1. 정책적 시사점

장애예술인 매개인력 정책 및 현황 검토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서 아직 구체적인 매개인력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매개자 양성과정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2020~), 1차 기본계획에서 매개활동을 언급하기 시작했다(2022). 비 장애인 문화예술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다. 따라서 매개활동 활성화 관련 정책 역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면 탄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초보적이지만 진행 중인 현재의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관련 정책 사업은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이 대표적인 매개활동 정책 사업이다. 하지만 매개활동이 활성화하려면 양성 이후의 단계, 곧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기존 인력의 양성 교육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2절에서 매개인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검토해 봤는데 한 사람(하나의 집단)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활동 사례로 제시한 단체들은 네 가지 유형에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극단 애인은 단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연극을 함께 배우고, 극단을 운영한다. 2절에서 창작 지원활동 사례로 소개했는데 단원들은 서로서로에게 교육자이면서(교육 매개자), 극단 행정 일을 담당하는(단체 활동 매개자) 동시에 창작자(예술인)다. 미술 교육 사회적기업인 스페셜아트는 장애예술인 교육 매개활동을 하면서(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단계별 목표별 커리큘럼 제공), 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장애예술인 브랜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처럼

장애인 예술단체는 하나의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개인력 가운데 복지기관이나 특수학교 등에 출강하는 교육 강사는 교육 매개활동에 주로 참여하는데 이것이 예외적이며, 다른 매개인력은 복수(複數)의 활동에 참여한다. 앞서 말한 대로 장애예술 기획자는 기획홍보창작자 소통교육매니저먼트관객 지원까지의 모든 활동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물론 대략적인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애인 예술 정책과 현장에서는 ‘장애예술인 실태조사’가 시행되지만, 다른 인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 예술단체 조사가 실시되면, 단체에서 매개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매개인력 정책 사업에서 접근성 관련 사업 증가가 최근 추세다. 이것은 현재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2023),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2024)출간이 있었다. 2020년부터 매개자 이음 아카데미를 진행하던 장문원은 2022년에 접근성 과정을 분리했다. 장애인 전용극장인 모두예술극장이 개관하고(2023),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목표로 접근성 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다(2023). 장애인 접근성 제고는 여러 가지 층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매개활동인 것이 분명하다. 매개활동 활성화 정책이 접근성 제고와 연결된다면 정책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여섯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로 나뉘볼 수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단체에서는 대표 한 사람과 직원 한두 사람이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고, 예술 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진은 개인 단위로 활동한다. 이처럼 매개인력의 상당수는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형태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 매개인력 개념·범위의 쟁점사항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개념과 범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사항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개념의 문제인데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①-① 첫 번째는 매개인력이란 용어의 적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개인력에서 매개를 빼고 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매개를 전문으로 바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력을 사람으로 바꿔 매개자라고 해도, 매개활동 참여자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곧,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이든,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든, 매개활동 참여자든 관계없다. 쟁점사항은 어떤 이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아니고, 현 상황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 매개인력 정책이 가능한지 하는 점이다. 인력으로 접근하면 자격 제도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이 같은 정책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덧붙여 인력이라고 하면 예술인과 대비되는 낯익은 개념이 있는데, 실제 장애인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이 매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별도의 매개인력 정책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①-② 두 번째는 창작 지원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의 문제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은 창작 매개와 향유 매개로 구분할 수 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거의 향유에 집중되는 것과 다르다. 장애인 창작 활동을 할 때 비장애인과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활동이 장애인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인지 분명하게 개념화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인 창작 지원 매개활동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장애인 연주자와 기획부터 연주회까지 모든 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획·홍보·창작자 소통·교육·매니지먼트·관객 지원까지의 활동 전체가 매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무엇이 창작 지원 활동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창작 지원 활동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①-③ 세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무엇이 다른가의 문제다. 1차 기본계획과 6차 종합계획 등에서는 현재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매개활동의 주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의 이해와 특성 등을 포함하면 하나의 인력 양성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으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장애인 문화예술은 비장애인 문화예술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요구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성 체계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의

특징을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에 포함되는 사람, 곧 매개인력 범위의 문제인데, 이것 역시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②-① 첫 번째는 예술인이 매개인력의 껍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1장에서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예술인은 아니지만 향유자(소비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혹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라고 개념화했다. ‘예술인은 아니지만’이란 문구를 생략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대체로 향유자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예술인이 아닌 경우가 많은 데 반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가운데 예술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과 매개인력을 구분하는 게 맞는지, 구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의 문제다.

②-② 두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가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장애인 당사자가 매개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것 자체는 쟁점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매개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장문원에서 실시하는 매개자 과정에 장애인 참여율은 미비하다. 장애(예술)인은 창작자 과정에는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지만 매개자 과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장애인 당사자가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매개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로 다시 질문해야 한다.

②-③ 세 번째는 장애인 부모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간단하지 않다.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 예술인이 개인 단위로 활동한다면 부모가 기획자이면서 매니저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술단체에 활동한다면 부모는 단체에서 적합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와 갈등 관계에 있다. 전자의 경우, 부모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획서를 작성하고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기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지원 사업 같은 데서 이 같은 행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부모가 예술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하는데 이때도 분명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 프로그램에서 부모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매개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관련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가?,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②-④ 네 번째는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자가 매개인력이 포함되는지 문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예술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정책의 제도에 따라 문화시설 내에서도 장애인 매개 업무가 필요해졌다. 덧붙여 교육 체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도 문화예술 매개 업무가 중요해졌다.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내 장애인 문화예술 담당자를 매개인력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제1절 전문가 면담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면조사를 주로 실시했고(주로 오프라인, 일부 온라인), 일부는 서면조사로 진행했다. 면담조사 참여자는 모두 30명이다. 면담은 연구진이 피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개념과 범위를 질문했다. 둘째, 몇 가지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셋째, 매개인력의 근무 현황과 수급 사항을 일부 피면담자에게 선택적으로 질문했다. 넷째, 매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조건과, 이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쌓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다섯째, 매개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면담조사 참여자	활동 분야
A	접근성 매니저, 공연 분야
B	장애인 공연 분야 전문가
C	장애인 미술 분야 기획자
D	장애인 영상 분야 전문가
E	접근성 매니저, 공연 분야
F	장애인 문화예술 기획, 미술 분야 전문가
G	장애인 음악 분야 기획자
H	장애인 연극단체
I	장애인 오케스트라
J	장애인 무용단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단체
K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L	장애인 뮤지컬단체
M	장애인 미술단체
N	장애인 연극단체

면담조사 참여자	활동 분야
O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자
P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단체
Q	장애인 예술단체 강사, 협력예술가
R	장애인 연극단체
S	장애인 미술단체
T	문화예술교육사
U	장애인 복지관
V	장애인 음악단체
W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X	장애인 무용단체
Y	음성해설가
Z	수어통역사
a	접근성 매니저
b	접근성 매니저
c	화면해설가
d	접근성 매니저

2. 면담조사 주요 결과

가. 매개인력의 개념과 범위

1) 매개활동 무엇인가? 또는 매개인력은 누구인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또는 인력)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먼저 소규모의 장애인 예술단체 운영자들은 자신과 직원들의 활동을 특별히 매개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자신이 예술가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기획·행정 관련 모든 일을 소수의 사람이 처리한다. 대표가 직접 행정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기에 스스로를 매개인력 또는 매개활동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는 매개활동이라고 인식한다.

교육하는 사람, 그리고 교육행정 기획까지 다 가야되죠(매개인력이지요).
그다음에 행정을 도와 e나라도움을 도와주거나 그런 사람은 또 그쪽 행정 매개인력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예술가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그 사람의 공연을 기획해 주는 사람은 기획자로 가는 거죠.(I)

예술단체 구성원 가운데서도 특히 장애예술인의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강의를 진행하는 인력(상주직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매개인력 또는 매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는 유통 또는 홍보 전문가를 매개인력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생겼다. 장문원의 매개자 교육에서 유통이 하나의 범주로 형성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인력에 한정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판로를 개척해 주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람, 발달장애인 예술이라는 것을 설명(포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장애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포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I)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예술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직원(행정 담당자)이 아니라 기획자, 교육강사, 교육스태프, 수어통역사 등을 매개인력으로 인식한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을 주된 매개활동으로 그리고 교육 강사를 주된 매개인력으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단원 교육을 통해 무대에서 발표회를 갖는 게 이들 단체의 대표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킬지는 예술을 가르쳐주시는 강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예술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이는 강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의 특성상 장르별, 혹은 장애유형별로 강사의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본 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V)

프리랜서 기획자들이 생각하는 매개활동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 예술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앞서 일반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같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 예술인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같이하는 사람을 매개인력으로 인식한다. 예술영역 내에서 장애인과 무엇을 함께하는 역할을 중요시한다.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술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장애예술의 눈으로 포착하여 작품화하는, 일종의 기획자를 주요한 매개인력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매개 인력이라는 거의 역할 자체가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 아니면 결국 장애인을 예술가로 만들어내는 선생님이나 기획자나 매니지먼트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함께 예술 행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료 같은, 계속하는 사람 이런 게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F)

예전에 매개자는 무조건 이미 만들어진 작품과 관객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홍보 마케팅 잘하는 사람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의 지금 우리 공연계 안에서 돌아가는 생태계 안에서는 그렇게 매개자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여전히 매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말이에요.(B)

접근성 관련 활동 참여자(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해설 등)는 매개자 또는 매개활동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매개활동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생겨난다. 음성해설·자막해설·수어통역 등을 창작의 영역으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매개와 창작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체로 창작이지만 매개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설과 통역이 장애인 향유자를 위한 매개활동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활동 역시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담하자고 연락이 왔었을 때까지 그랬지요. 인터뷰 질문지를 보면서 음성해설이 (매개활동에) 포함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성해설 자체가 매개였던 거죠... 당연히 매개자가 맞고요. 매개활동이 맞고 그런 것 같아요.(Y)

자막해설도 애초에 우리가 자막해설을 하기로 했으면 이것은 1차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공연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훨씬 풍부한 감각을 전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그런데 2차 창작물 그러니까 그것을 서비스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2차 창작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연출의 뜻에 모든 걸 다 따라야 한다거나...(d)

한편, 매개활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 몇몇 예술단체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위탁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취업과 고용연계, 직업활동 지원이 매개활동이란 입장이다. 또한 가장 광의로 보면 자원봉사자까지 매개활동 참여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장애예술인 취업-고용연계, 그리고 장애예술인 직업활동 지원도 매개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악적 특기가 있는 발달장애인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그리고 취업된 장애인이 직업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업체와 근로자 중간에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매개활동인 것 같아요.(U)

우리 단체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분들도 매개할 참여자라고 볼 수 있지요.(W)

2) 매개활동의 분류: 창작자 매개와 향유자 매개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자는 자신이 활동이 창작자 매개인지 향유자 매개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연단체 운영자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강사는 향유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조금 복잡해진다.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은 일반적으로 향유자 매개이지만, 이를 통해 예술가로 데뷔하거나 예술인이 역량을 쌓게 되면, 창작자 매개와 비슷한 측면도 있다. 접근성 매니저 역할은 창작자 매개와 향유자 매개자로 나뉘볼 수 있다. 접근성 매니저는 장애인 관객이 예술 작품을 불편하지 않게 관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장애인 창작자가 최적의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역점을 두기도 한다. 이것을 관객 접근성과 공연 접근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한다.

공연 내에서의 접근성을 매개한다고 했을 때는 프로덕션 팀 안에 들어가서 배리어 프리라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창작물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창작진이라 같이하고요. 그리고 관객에 대한 접근성은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극장에서 상주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관객들이 본인의 신체 정신적인 정보를 극장이나 프로덕션이라 같이 사전에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연극 공연과 극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E)

접근성 매니저는 대체로 프리랜서로서 하나의 작품에 계약을 하거나, 극장과 계약을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접근성에,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객의 극장 접근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보통이다. 장문원의 접근성 매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음성해설이나 무대자막은 (장애인) 관객의 극장 접근성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창작 지원, 장애인 예술단체 운영(예술단체 내 교육 포함)은 창작 매개에 가깝고,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과 접근성 제고는 향유와 창작 매개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면담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창작 매개인지 아니면 향유 매개인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3) 매개인력이란 용어의 적절성

연구 제목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란 용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인력’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격증 제도와 연관된다고 믿거나, 제도화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또는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실제 매개자를 양성했을 때 일자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다. 두 번째는 매개인력 역할을 하는 프리랜서 또는 예술인이 많은데, 이들은 매개인력이란 정체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양성을 했을 때 아까 그 매개자로 양성했을 때 활동할 곳이 충분히 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들이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은 별로 없어요. 지금 몇몇 장문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이런 유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접근성 매니저가 양성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몇 십만원 받으면서 계속하는...(F)

만약에 지금 제목처럼 연구를 한다면 관련 행정직원의 매개 양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가이고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개인력 양성 이렇게 해버리면 나름 매개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참여하기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예술가이자 프리랜서는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에요.(C)

이처럼 프리랜서 기획자·예술가들은 매개활동을 하지만 매개인력이란 범주로 묶이는 걸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매개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들은 넓은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한다. 프리랜서의 기획자 또는 예술가들은 그래서 매개인력보다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선호하는 프리랜서 기획자들에게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은 장애(예술)인과 같이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예술가이든 아니든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같이하는 사람을 매개인력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프리랜서가 아닌 예술단체 운영자(종사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특별히 매개라고 의식하지 않고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매개활동이든 매개인력이든 이 같은 용어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수의 예술단체 운영자는 매개활동이란 용어가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느낌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예술교육사, 학예사 등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활동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영역을 정의하여, 훈련시켜, 실습까지 충분하다고 할 때 자격과 함께 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매개활동을 '활동'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전문적 역할에 대한 것 보다는 장애인을 거드는 행위로서의 업에 대한 부분만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S)

나. 매개인력 범위의 세부 쟁점들

1)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vs. 문화예술 매개활동

많은 피면담자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매개인력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인식한다.

매개 영역을 장애를 빼고 문화 매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매개 분류들을 하면 되는 거죠. 비장애 작가들을 전시할 때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작가들을 매개할 때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장애이기 때문에 특화돼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부가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C)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비장애인 매개인력은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장애인 예술단체 매개인력은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해야 해요. 업무가 가중되며,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 일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 예술단체는 비장애인 단체보다 리스크 관리, 연습, 출연 배우들과 같이하는 것 등 업무가 몇 배는 가중되는 거죠.(L)

소수의 피면담자는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매개 업무가 비장애인 매개활동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본질은 같지만 업무가 가중된다고 여기는 입장과 달리, 가중되는 업무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매개활동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들은 여러 활동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매개활동을 통해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장애유형에 따라 예술의 표현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예술의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예술로 보여주는 작업,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입니다.(V)

업무의 차이가 없고,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 많다는 입장과 장애인 문화예술의 특수성에 따라 매개활동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는데, 전자의 입장이 더 많은 편

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가적으로 해야 일, 복합적으로 해야 일의 내용, 난이도,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장애인의 특성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시간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별도의 능력이 필요한 일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만약 별도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가 비장애인 매개활동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많은 피면담자들은 비장애인 문화 매개인력이 해야 할 일에 덧붙여지는 일이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열린 태도로 장애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2)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담당자는 매개인력인가?

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다. 대표 사례가 교육진흥원 사업이다. 교육진흥원 사업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⁷³⁾ 복지시설의 담당자를 매개인력으로 인식하는지를 질문했는데, 대체로 매개인력이라고 응답했다.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양성과 관련 없기에 매개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 입장도 있다. 이 같은 소수 의견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담당자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비로소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술누림 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자는 강사 선정 권한 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매개인력으로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장애예술인의 작품활동에 대한 특정한 정책은 없었다. 그런데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공립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 공연과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문예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따라서 이제부터 공공 문화시설은 어떤 식으로든(기획이든 대관이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 문화시설이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문화시설 관계자 역시 일종의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피면담자들은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의 장애인 담당자 역시 매개인력이라고 막연하게 인식한다. 소수의 피면담자는 장애예술인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를 언급하면서 문화시설 담당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73) 연간 문화예술 교육 진행여부는 장애인 복지관 95.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94.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0.9%다.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45쪽 참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의 관계자 모두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에 대한 전문성,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장애인들과 문화예술 활동은 한다는 큰 전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매개자 업무 수행자인 거죠.(X)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2023년 12월 19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담당자들도 「장애예술인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적용 가능한 법률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U)

3) 예술인은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가?

1장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예술계에서 예술 작품을 매개로 창작자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창작과 향유를 연결하되, 대체로 향유자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향유자가 작품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감상·이해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초점을 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술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은 예술인(창작) 지원을 포괄해서 실제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매개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장애인 예술단체 작품 발표회에서 외부의 연출자가 연출을 도와준다면 이것은 예술 활동인가 아니면 매개활동인가? 무대감독이 장애인 예술단체의 작품발표회를 도와준다면 이것은 예술 활동인가 아니면 매개활동인가? 연출자와 무대감독은 「예술인 복지법」 2조(예술인 개념: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에 따라 예술인이다. 그런데 장애예술계에서는 연출과 무대감독 등을 일종의 매개활동으로 인식한다. 장애예술계에서는 비장애인의 지원을 실연을 제외한 예술 활동과 매개활동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매개활동에 대해 질문하면, 연출가와 기술 스태프가 자신들의 공연에 도와줬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저기 ○○○○(비장애인 공연)감독이셨던 ○○○감독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7~8년을 같이하고 있어요. 우리 작품의 공동연출 같은 거죠. 또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하고 있어요...△△△ 감독님도 지금 프리 페이로 새벽이건 밤이건 상관없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같이 일해 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매개활동을 하건 거죠.(L)

장애인 예술계에서는 예술인이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장애예술계에서 생각하는 매개활동이 실은 예술 활동(연출 지원, 기술 지원 같은 업무)인 경우가 많다. 배우로서 실연한 경우는 매개인력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연출이나 기술 지원 등은 매개활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한편, 예술인이 좁은 의미의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배우들이 음성해설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배우들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실연자의 매개활동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실연자인 배우들이 이제 음성해설사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쓰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배리어 프리 공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좀 많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연출들이랑 내가 이제 접근성 매니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하는 거죠.(A)

예술인(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된 사람)이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개념에서 ‘예술인은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다. 1장 3절과 2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개념에서 ‘예술인은 아니지만’ 문구를 생략했는데, 실제 장애예술계 현장에서는 실연을 제외하고는 예술 활동을 매개활동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4) 장애인은 그리고 장애인 부모는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가?

장애인은 매개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 같은 사례가 많지 않다. 2장 사례조사에서 보면,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장애인은 예술인으로 활동하지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업무를 4명이 담당하는데 2명이 발달장애인인 뮤지컬단체, 그리고 모든 단원이 장애인이며 이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연극단체가 오히려 예외적이다.

발달장애인 직원 두 사람은 보조강사 일을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 단원들을 케어하죠.(L)

피면담자들은 당연히 장애인이 매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정책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23년 장문원에서 장애예술인 강사 사업을 진행한 것은 장애(예술)인의 매개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례다. 그리고 실제 몇몇 현장에서는 장애예술인이 매개활동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예술을 업으로 하는 발달장애 예술가가 협력예술가이자 예술강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역할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협동작업을 하는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예비예술가들의 학습모델이 되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Q)

장애인 예술 현장, 특히 발달장애인과 함께 예술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부모가 많은 역할을 한다. 같이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장문원 지원 사업에서 부모가 수행하는 기획자의 역할에 대한 보수 지급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부모들이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먼저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아예 부모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한다는, 그리고 부모에게 쉴 시간을 준다는 그리고 부모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다. 장애예술계에서는 부모와 장애인 예술단체 담당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부모는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매개가 아니라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매개역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부모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옆방에서 있으라고 교육에 참여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C)

장애유형에 따른 수어통역사와 활동보조인까지 포함하지만 부모님 참여는 제외하려고 해요.(X)

보통 20명의 단원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20개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20명의 단원과 부모와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I)

부모가 예술을 폭넓게 이해하며 매개 역할을 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여요. 또한 역할을 어떻게 하든 그 범위가 커질수록 장애당사자가 타자와 자기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가 좁아지기도 하죠. 부모는 어쨌든 매개보다는 개입이 많이 일어나는 듯해요.(F)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교육하여 이들이 매개인력의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예술단체에서는 장애예술인과 같이 오는 부모·형제를 매개인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반면에 소규모 장애인 예술단체의 상당수는 부모가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매개자라고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부모들이 단체를 집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부모를 매개자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실제로는 매개역할을 수행합니다.(W)

장애인이 예술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은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타인과 접하며 예술을 접하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장애인과 예술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V)

다. 매개인력의 근무현황

1) 매개인력의 전공 및 활동 계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획자는 대체로 예술 전공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현재도 장애예술계에서 매개활동하면서 예술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술단체에서 상근 또는 시간 강사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예술 전공자들이다. 접근성 매니저들도 예술 전공자인 경우가 많다. 주로 연출로 시작했다가 장애인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돼 매니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음성해설과 수어통역 업무는 배우(俳優)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시작하기도 한다. 장애인단체의 양성과정에서 음성해설이나 수어통역을 배우고, 처음에는 예술 이외의 영역(방송, 수어통역 일반)에서 일하다가 예술(공연) 영역으로 옮겨오는 경우다. 예술이란 새로운 영역에서 일하면서 기존 장애인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규모가 크지 않은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예술강사 또는 직원을 뽑을 때 예술 전공에 한정하지 않는다. 전공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교육 경험, 장애인 예술교육 참여 의지,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예술단체 운영자들은 처음부터 장애인 예술교육 전문가는 없다고 말하면서, 예술 역량보다는 교육 역량이, 교육 역량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강사를 뽑을 때는 일단 예술교육 경력이 있어야 해요. 이들을 뽑아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가르쳐서 이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예술 전공자는 아니고 예술교육 경험자를 뽑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애인 예술교육 전문가는 없어요.(I)

시간강사의 첫 번째 조건은 장애인 예술교육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이분들이 우리 회사에 계속 강사로 일하는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I)

강사를 뽑을 때는 지인 추천으로 해요.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태도예요. 장애인예술인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장애인예술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I)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단체에는 강사와 직원의 전공이 예술과 복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단체의 규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학·석사 이상의 전공자를 보조강사로 하고, 주강사는 보조강사 경험자 그리고 석박사급으로 뽑지요.(X)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근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예술의 전공자 및 같은 생각과 사고를 겸비한 인적자원들로 채워지고 있어요.(W)

2) 고용 형태와 근무 조건

매개활동 참여자의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문화예술 교육 강사는 복지시설에서 강의를 하든 예술단체에서 강의를 하든 거의 모두 시간 강사 형태로 일한다. 예술단체의 규모가 커도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접근성 매니저와 음성해설이나 수어통역 담당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보수는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접근성 매니저와 일하기도 하고, 일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보수가 낮은 편이다. 때로는 항의도 해보지만 계속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극단이나 극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요즘은 2장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협회 또는 회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한다.

접근성 예산을 전체 포션 내에서 얼마나 할당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왜냐하면 이게 제로섬인 거예요. 다른 조명이나 음향 같은 스태프 인건비, 배우 인건비 깎아가면서 접근성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시스템도 있어요.(A)

근데 솔직히 최저시급도 안 돼요. 영상 작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영상이 또 너무 열악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분야 좀 파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공연은 더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 빼야 된다고 생각을 막 들었는데 근데 필요하니까 했던 거죠. 그때는 뭘 사명감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c)

매일 같이 출근하면서 일하는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의 직원이다.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보수뿐 아니라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된다.

그들의 처우에 대한 지원과 그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에, 매개활동을 지속 가능한 사람을 구하기가 몹시 어려워요. 매개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면, 매개자들에 대한 처우와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행해 주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S)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장애인 예술단체는 장애인 예술인의 가족, 특히 엄마가 대표를 맡아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을 연구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장애인 예술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면 대표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다음에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들을 보면 정말 몸을 갈아 넣는 저 대표님이 정말 자신을 갈아 넣었네, 이런 느낌을 거의 매 순간 받아요. 그리고 직원이라고 할 만한, 단체에 소속돼서 예술가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한 1년 그러니까 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떠나고...(O)

앞서 가족을 매개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실은 가족들만이 계속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공공 복지시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지사들도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족이 매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복지기관의 상황에 따라 복지사의 기관 내 직무 이동 및 이직 등으로 변동이 잦아 꾸준한 매개활동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매개 역할은 결국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T)

라. 매개인력의 수요와 공급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문화 매개인력을 특정하기 어렵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공연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신규로 참여하려는 인력이 있다. 배우들이 일거리가 없어지면서 음성해설 같은 업무에 관심을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극장에서도 공연 단위로 접근성 관련 인력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장애예술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접근성인데 이에 따라 관련 인력에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가 대부분이다.

배우들이 이제 배우나 스태프로 불러주거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음성해설사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쓰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되게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많이 계시고...(A)

작년부터 조금 공연을 할 때는 (접근성 인력이) 상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련 인력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립에서도 공연 시에는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예전과 비교하여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반대로 매개인력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 수급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편이다.

이제는 매개자를 양성하자 그러면 이제 양적으로 늘면 또 많이 알려지면 거기서 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이 이제 매개자를 양성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M)

마. 매개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1) 매개활동에 필요한 역량

장애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장애예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다. 매개유형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장애, 장애인, 그리고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문성이라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빠른 상황대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때로는 돌발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매개인력을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개자가 됐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장애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장애인의 유형과 특성 가동 범위뿐만 아니라 장애인 만나는 학습자의 생활권을 이해해야 돼요.(J)

보통 그러니까 좀 인권에 대한 이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지만 그다음에 장애예술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 그게 일을 계속 하시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L)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들의 심리상태와 현 상황에서 활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V)

예술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일부 규모가 큰 단체에서 예술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비장애예술 매개활동 분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의 가치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하는 거죠.(X)

한편, 매개인력에게 필요한 역량이 인간을 바라는 시각 또는 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이든 아니든 사람과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특히 젊은 층의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질이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실제로 어떤 윤리적 태도라는 건 결국 사회의 개념인데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아무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그냥 커뮤니케이션 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은 실력 쌓으면 되잖아요. (a)

사실 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요...사실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b)

장애보다 사람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태도와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쉽게 어떠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중요해요. (T)

2) 전문성 축적 과정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장애예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이외에도, 매개활동을 지속하려면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프리랜서는 공부 모임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간다.

같이 준비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만약에 이런 과정(접근성 관련하여 제도 내에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이 생기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들과 같이 장애학, 장애예술에 대한 스터디를 했어요. (E)

최근 관심이 많은 음성해설이나 수어통역 같은 영역에서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회사에서, 예술강사들은 단체 내에서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다. 회사와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선배나 대표의 비공식적 업무 전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한다.

어떻게 역량을 키우냐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매월 그거에 대해 계속 회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개입하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고, 어떻게 작업하셔야 한다고 강사에게 알려주는 거죠.(I)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은 만나야지만 성과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나머지는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티칭하면서 얻는 거죠, 서로의 라포를 통해서요... 전문성은 사실 시간에 비례합니다.(I)

제도적 수준의 문화예술교육(교육진흥원 사업)에서도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복지기관 강사 역시 지속적 강사활동을 통해 수업을 해온다고 볼 수 있다. 신규 교육 참여자에 대해서는 간략한 교육을 실시할 뿐이다.

네 그리고 저희 저도 복지시설 나가는 강사님들한테 이 사업 어떻게 이 시설이랑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장애인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정보 얻으세요? 이런 것을 여쭙보거든요...이전에 사실 장애인 예술강사로 이 미 참여해서서 그때 얻은 정보로 계속하는 거예요.(K)

단체의 예술강사는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쌓는 게 일반적이는데 상근 직원은 직무에 비해 보수가 낮은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소규모 단체에서는 단체 창립자가 대표로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기도 한다. 단체의 기획 행정 쪽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행정 관리하는 이쪽 영역이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요. 이직하는 분의 주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장애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 기획도 알아야 되고 홍보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스펙트럼을 자기네가 다 감당하려니까 되게 무능감이 느껴지면서.(I)

바. 매개인력 전문성 강화와 매개활동 지원 정책

1) 전문성 강화 방안

매개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학습 모임 같은 게 활성화되면 좋을 것이란 의견으로 접근성 관련 프리랜서가 이런 언급을 많이 한다. 아직까지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단기간의 양성과정이 아니라 일대일 교육(멘토링), 참여자들 간의 학습(공동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어쨌든 접근성 매니징 자체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그제 강의라기보다는 워크숍이나 스터디 형식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례분석 혹은 설계 워크숍 이런 과 그런 형식이 좋을 것 같아요.(A)

향후 학습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더 설계되면 좋겠다, 정도가 제 생각이기는 해요.(F)

같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대화 나누는 자리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자막해설의 디테일 같은 걸 연구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꾸준히 있으면 좋겠어요.(a)

두 번째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 매개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예술 지원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예술가를 꿈꾸는 현장의 많은 예비예술가들(특히 발달장애인)은 배움의 기회, 전문 예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전문 예술강사 자격증 보유자나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 예술인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R)

예를 들어, 장애예술가 전문강사 자격증 제도 같은 걸 만들고, 매개활동 참여자를 위한 교육 과정 신설하면 좋을 것 같아요.(V)

세 번째는 대학교육 내에서 매개교육을 실시하면, 예술 전공 대학생들이 매개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되고, 자연스럽게 매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재가 매개인력의 예술적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 예술가뿐 아니라 대학의 예술 전공 학생들과의 다양한 협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전공 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이 매개자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T)

예술대학 과정 안에서 매개에 대한 교육을 일찍이 접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며, 매개자로서의 업에 대해서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좋을 것 같아요.(S)

네 번째는 자격증 제도는 언급하지 않고, 매개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원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전문성 있는 인력이 유입되고, 현재 인력의 재교육이 수행될 것이란 의견이다.

2)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몇 가지 눈여겨 볼 의견이 있다. 먼저 매개활동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은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역할도 하지만 매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매개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수요처와 공급자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다.

매개자의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개자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정책적 자원이 갈 것이 아니라, 매개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후 매개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장애예술인들이 편리하게 매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매개자들 역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안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S)

접근성 작업자로서 나는 이리이러한 부분들 공유되는데 연결해 줘 하면은 그 사람들 연결하여 마땅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a)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매개자 교육, 관련 정보, 일자리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자체가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매개 활동을 지역에서 펼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역을 잇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으로 보인다.

*장애인 예술 전문법인단체들이 중앙 플랫폼과 지역 거점 연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거주한 매개활동가 양성(교육과 파견)을 하고 지역 정착 장애인 문화예술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겠지요.
(X)*

매개활동 프로그램의 지역 안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매개활동 워크숍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문원에서 기획하는 다양한 장르의 워크숍의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가(단체)는 정보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요 욕구가 높은 지역 거점을 파악해서 지역 장애예술가와 매개인력들에게도 평등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R)

이 밖에 피면담자들은 매개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이야기했다. 특수학교(급)의 예술교육 활성화, 장애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기회 확대, 전문예술단체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 지원 확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은 매개활동 활성화와 장애예술계의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진행

조사 목적은 장애인 문화예술 관심자의 매개활동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뉴스레터인 ‘이음 온라인’ 구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조사 대상자는 현재 매개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덧붙여 매개활동 경험자(과거), 매개활동 참여 의향자(미래)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매개활동 참여자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이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 역시 구할 수 없어 이음 온라인 구독자를 장애인 문화예술 관심자로 설정했다. 이음 온라인에서 조사 URL을 알리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웹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했으며, 모두 304명이 참여했다.

나. 분석 방법

응답자 특성을 제외한 조사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 304명을 기준으로 한 전체 값은 의미가 없다. 이음 온라인 구독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심자 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구독자의 구성비를 알 수 없기에 확률표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응답자 특성별 비교, 곧 교차분석 위주로 결과를 분석했다. 지역, 장애여부, 직업, 매개활동 참여경험, 매개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때 매개활동 경험자(112명)의 활동 유형이 47명(문화예술 교육), 적으면 11명(장애인 예술단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매개유형별 분석은 통계적으로 온전히 유의미하지는 않다.

다. 조사 문항

조사 문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응답자 특성, ②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 경험과 경험자의 인식, ③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인식, ④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두 번째 영역인 매개활동 경험과 경험자 인식은 먼저 참여 경험을 질문하고, 유경험자만이 응답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표>와 같다. 한편,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매개인력이란 용어를 낯설어할 수 있어 매개활동을 간략히 설명하고 매개활동 참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⁷⁴⁾

<표 3-1> 설문조사: 설문항

구분	설문항
응답자 특성	성, 연령, 장애 여부, 직업 및 참여 기간, 활동 지역, 장애가족 여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경험과 경험자의 인식	매개활동 경험, 매개활동 유형, 매개활동 참여 경험자의 특징(근무 형태, 참여 장르, 참여 기간, 매개활동 소득 비중, 관련 정보 취득 방법), 매개활동 경험자 인식(참여 이유, 만족도)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인식	매개활동 개념(매개활동 범위, 창작 중심 vs. 향유 중심, 비장애 매개활동과 비교), 매개활동 참여 인식(경제적 보상의 적절성, 수요와 공급, 매개활동이 필요한 시설), 매개인력 교육(장문원 교육 과정 참여 및 만족도, 참여 의향, 비참여 이유, 장문원 이외 교육 참여 경험), 매개활동 참여자의 역량과 지식(필요한 역량, 필요한 지식과 정보), 매개활동 참여 의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매개활동 참여자 확대 방안, 매개활동 활성화 정책 사업, 매개활동 지원 정책의 주체, 매개활동 지원 사업: 다년 지원 vs. 단년 지원

라.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모두 304명이다. 성, 연령, 거주 지역, 장애여부, 직업(예술인, 매개자, 비예술계), 예술 활동 경험과 유형(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 매개활동 경험과 유형, 장애가족 여부 등을 독립변인으로 삼았다. 응답자 특성은 <표>와 같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명(65.1%)이 비수도권 106명(34.9%)보다 많았다. 장애인은 58명(19.1%)이 응답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비예술계 종사자 162명(53.3%), 예술인

74) 분석에서는 매개활동 참여자, 매개자(장문원 교육 과정에서는 매개자로 지칭함), 매개인력 등을 문맥에 맞게 혼용해서 사용했음을 밝힌다.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 72명(23.7%), 매개자(장애인의 창작 또는 향유를 지원하는 역할) 70명(23.7%)이 응답하였다.

현재의 직업과 달리 과거 경험까지 살펴보면 예술 활동 경험자(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는 102명으로 전체의 33.6%이다. 현재 예술인 72명보다 30명이 많은데, 30명은 과거의 예술가 또는 현재도 예술 활동을 하지만 다른 주된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매개활동도,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경험자가 112명으로 전체의 36.8%이다. 현재 매개자 70명보다 42명이 더 많은데, 이들은 과거의 매개인력 또는 현재도 매개활동을 하지만 다른 주된 직업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매개활동 경험자 112명의 활동 유형은 문화예술 교육 47명,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명, 유통 및 판매 21명, 기획 및 행정 32명, 정책 및 지원기관 25명, 문화시설 20명, 접근성 제고 13명, 예술단체 운영 11명, 장애인 복지시설 11명이다.

〈표 3-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304	100.0
성	남성	92	30.3
	여성	212	69.7
연령	20대	79	26.0
	30대	183	60.2
	40세 이상	42	13.8
활동 지역	수도권	198	65.1
	비수도권	106	34.9
장애 여부	장애인	58	19.1
	비장애인	246	80.9
직업	예술인	72	23.7
	매개자	70	23.0
	비예술계 종사자	162	53.3
예술 활동 경험1	있음	102	33.6
	없음	202	66.4
예술 활동 경험2	창작	55	18.1
	실연	25	8.2
	기술 지원 등	43	14.1
	해당 없음	202	66.4
매개활동 경험1	있음	112	36.8
	없음	192	63.2

구 분		사례수	비율(%)
매개활동 경험 ²	문화예술 교육	47	15.5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14.8
	유통 및 판매	21	6.9
	기획 및 행정	32	10.5
	예술단체 운영	11	3.6
	접근성 제고	13	4.3
	정책 및 지원기관	25	8.2
	문화시설	20	6.6
	장애인 복지시설	11	3.6
	없음	192	63.2
장애가족 여부	있음	49	16.1
	없음	255	83.9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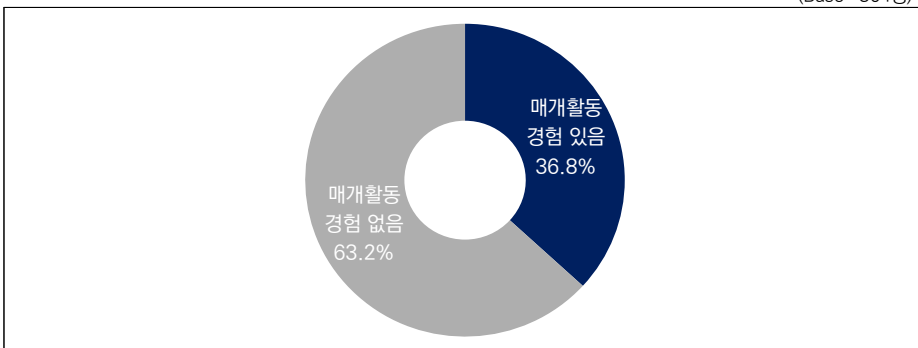
가. 매개활동 참여 경험과 경험자 인식

1) 매개활동 참여 경험과 매개유형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2명(36.8%)이다. 매개활동 유형으로 분류하면 문화예술 교육 47명(15.5%),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명(14.8%), 기획 및 행정 32명(10.5%), 정책 및 지원기관 25명(8.2%), 유통 및 판매 21명(6.9%), 문화시설 20명(6.6%), 접근성 제고 13명(4.3%), 예술단체 운영 11명(3.6%), 장애인 복지시설 11명 (3.6%)이다.

[그림 3-1] 설문조사: 장애인 매개활동 참여 경험

(Base: 304명)



2) 매개활동 경험자의 특징

① 근무 형태

근무지(형태)는 응답자 속성과 관계없이 공공보다는 민간과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기관 근무는 비수도권과 문화시설에서 응답이 많았으며, 프리랜서는 접근성 제고와 유통 판매에서 많았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특징이지 확률 표집이 아니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② 참여 장르

매개활동 장르는 대체로 미술이 많았다. 이 밖에도 문학, 음악, 연극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3〉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 장르

(단위: 명,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만화	연극	영화	사진	전통문화
전 체		112	7.1	29.5	13.4	40.2	30.4	18.8	25.9	21.4	8.9	3.6
활동 지역	수도권	91	8.8	30.8	14.3	40.7	30.8	17.6	26.4	18.7	7.7	4.4
	비수도권	21	0.0	23.8	9.5	38.1	28.6	23.8	23.8	33.3	14.3	0.0
장애 여부	장애인	41	2.4	26.8	9.8	39.0	36.6	34.1	19.5	29.3	0.0	2.4
	비장애인	71	9.9	31.0	15.5	40.8	26.8	9.9	29.6	16.9	14.1	4.2
직업	예술인	50	10.0	40.0	18.0	34.0	26.0	18.0	28.0	16.0	8.0	0.0
	매개자	39	2.6	25.6	10.3	46.2	23.1	15.4	28.2	33.3	7.7	7.7
	비예술계 종사자	23	8.7	13.0	8.7	43.5	52.2	26.1	17.4	13.0	13.0	4.3
매개 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8.5	34.0	21.3	29.8	27.7	19.1	36.2	12.8	4.3	4.3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8.9	42.2	11.1	37.8	20.0	13.3	37.8	13.3	11.1	2.2
	유통 및 판매	21	4.8	28.6	23.8	61.9	33.3	14.3	4.8	4.8	19.0	0.0
	기획 및 행정	32	3.1	28.1	18.8	43.8	34.4	18.8	28.1	15.6	3.1	3.1
	예술단체 운영	11	9.1	54.5	36.4	45.5	27.3	9.1	18.2	0.0	0.0	0.0
	접근성 제고	13	7.7	15.4	30.8	61.5	23.1	7.7	38.5	7.7	7.7	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12.0	12.0	8.0	40.0	28.0	12.0	28.0	44.0	8.0	4.0
	문화시설	20	0.0	5.0	5.0	60.0	45.0	25.0	10.0	40.0	5.0	5.0
	장애인 복지시설	11	0.0	18.2	18.2	36.4	36.4	9.1	36.4	27.3	0.0	9.1
	없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③ 매개활동 참여 기간

매개활동 참여 기간은 '3~4년', '5년 이상'이 대체로 많았다. 지역별과 장애 유무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매개유형별로는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에서는 참여 기간이 길고, 접근성 제고에서 참여 기간이 짧았다.

〈표 3-4〉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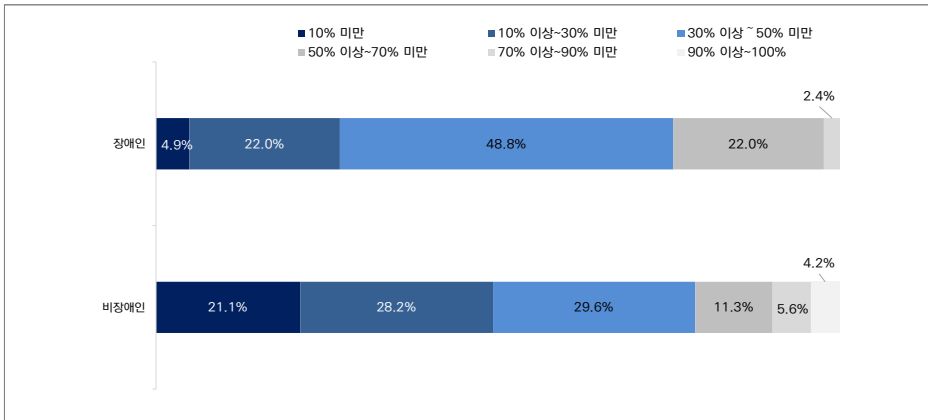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년 미만	3~4년	5년 이상	총계
전 체		112	23.2	40.2	36.6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21.3	38.3	40.4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20.0	42.2	37.8	100.0
	유통 및 판매	21	23.8	38.1	38.1	100.0
	기획 및 행정	32	31.3	21.9	46.9	100.0
	예술단체 운영	11	36.4	0.0	63.6	100.0
	접근성 제고	13	46.2	23.1	30.8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24.0	24.0	52.0	100.0
	문화시설	20	10.0	40.0	50.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9.1	36.4	54.5	100.0

④ 매개활동 소득 비중

전체 소득 대비 매개활동 소득을 질문했다. 장애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0% 미만인 경우, 장애인은 4.9%인데 비장애인은 21.2%인 데서 보듯이 장애인의 매개활동 소득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매개인력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의 전문성이 높아서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전체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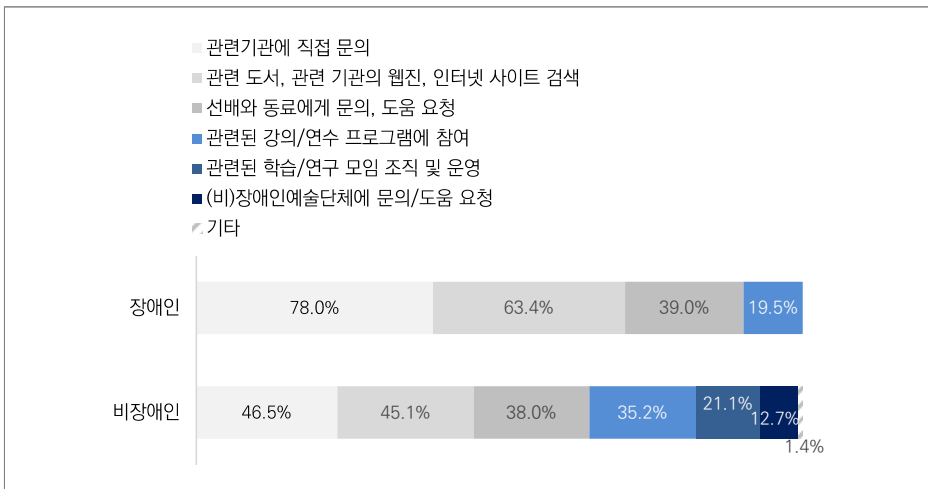
[그림 3-2] 설문조사: 매개활동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⑤ 매개활동 관련 정보 취득 방법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를 질문했다. 대체로 관련기관 문의와 관련 도서·웹·전자·도서 검색이란 응답이 많았다. 관련기관 직접 문의라는 응답은 장애인, 예술단체 운영, 문화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3-3] 설문조사: 매개활동 관련 정보 취득 방법



3) 매개활동 경험자 인식

① 매개활동 참여 이유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어서’ 응답이 장애 여부(장애인 78.0%, 비장애인 47.9%), 지역(수도권 58.2%, 비수도권 61.9%), 매개활동 유형과 관계없이 많았다. 특히 이 같은 응답은 장애인(78.0%), 예술인(68.0%), 매개자(61.5%),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71.1%), 예술단체 운영(72.7%), 접근성 제고(69.2%), 문화예술 교육(68.1%)에서 많았다. 적어도 매개활동은 자발적인 활동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좋아하는 활동’이란 응답보다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문화시설에서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은 특성이 있다.

〈표 3-5〉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어서	주위에 서 권유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가족(지인)과 함께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기타
전 체		112	58.9	16.1	43.8	22.3	10.7	28.6	18.8	0.9
활동 지역	수도권	91	58.2	17.6	41.8	24.2	11.0	28.6	17.6	1.1
	비수도권	21	61.9	9.5	52.4	14.3	9.5	28.6	23.8	0.0
장애 여부	장애인	41	78.0	26.8	68.3	14.6	0.0	9.8	2.4	0.0
	비장애인	71	47.9	9.9	29.6	26.8	16.9	39.4	28.2	1.4
직업	예술인	50	68.0	12.0	42.0	20.0	4.0	40.0	14.0	0.0
	매개자	39	61.5	25.6	48.7	28.2	12.8	10.3	10.3	2.6
	비예술계 종사자	23	34.8	8.7	39.1	17.4	21.7	34.8	43.5	0.0
매개 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68.1	19.1	36.2	27.7	8.5	34.0	4.3	2.1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71.1	8.9	48.9	17.8	13.3	31.1	8.9	0.0
	유통 및 판매	21	57.1	14.3	38.1	23.8	9.5	42.9	14.3	0.0
	기획 및 행정	32	59.4	9.4	37.5	34.4	15.6	25.0	18.8	0.0
	예술단체 운영	11	72.7	0.0	54.5	9.1	9.1	36.4	18.2	0.0
	접근성 제고	13	69.2	15.4	46.2	15.4	15.4	23.1	15.4	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56.0	20.0	44.0	28.0	8.0	28.0	16.0	0.0
	문화시설	20	40.0	30.0	50.0	25.0	5.0	25.0	25.0	0.0
	장애인 복지시설	11	27.3	18.2	9.1	18.2	18.2	63.6	36.4	9.1

② 매개활동 만족도

매개활동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수도권, 예술인, 매개자, 접근성 제고 인력의 만족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시설 담당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6〉 설문조사: 매개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총계
전 체		112	4.5	8.9	53.6	33.0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91	3.3	6.6	57.1	33.0	100.0
	비수도권	21	9.5	19.0	38.1	33.3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41	0.0	0.0	56.1	43.9	100.0
	비장애인	71	7.0	14.1	52.1	26.8	100.0
직업	예술인	50	4.0	2.0	50.0	44.0	100.0
	매개자	39	0.0	5.1	61.5	33.3	100.0
	비예술계 종사자	23	13.0	30.4	47.8	8.7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0.0	8.5	70.2	21.3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0.0	6.7	40.0	53.3	100.0
	유통 및 판매	21	4.8	4.8	42.9	47.6	100.0
	기획 및 행정	32	6.3	6.3	59.4	28.1	100.0
	예술단체 운영	11	0.0	18.2	54.5	27.3	100.0
	접근성 제고	13	0.0	0.0	69.2	30.8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4.0	8.0	56.0	32.0	100.0
	문화시설	20	5.0	10.0	45.0	40.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18.2	9.1	45.5	27.3	100.0

나.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인식

1) 매개활동의 개념과 범위

① 매개활동 범위

9개의 답변 보기를 제시하고 어떤 활동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대체로 문화예술 교육, 현장 내 지원 및 협업을 매개활동이라고 인식했다. 이 같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장애인, 예술인, 매개자, 매개활동 경험자에게서 많았다. 매개유형별로는 자신이 경험한 활동을 매개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7〉 설문조사: 매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단위: 명,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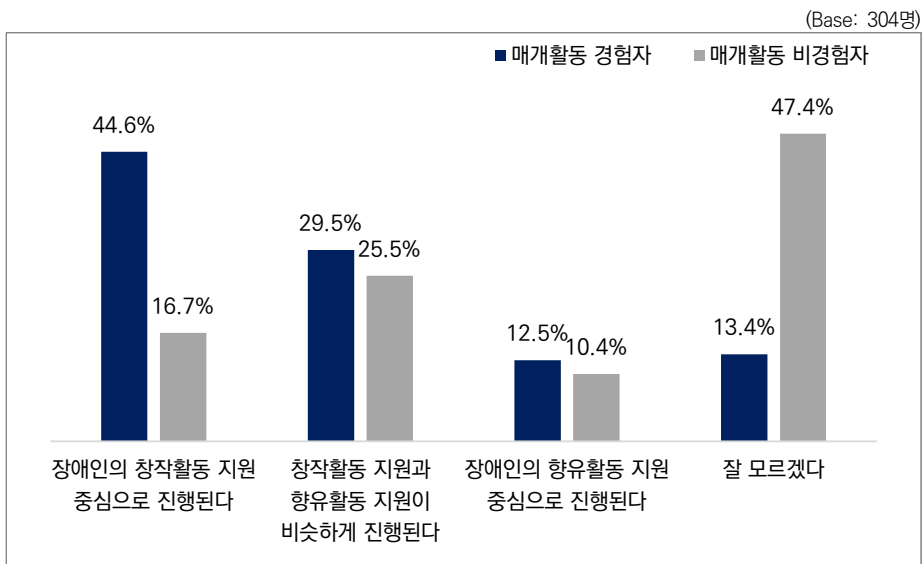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 현장에서 예술적 지원 및 협업	장애인 예술 작품 유통/ 판매	장애인의 예술 활동 기획/ 행정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 기관 행정 업무	문화 시설 문화예술 관련 업무	장애인 복지 시설
전 체		304	35.9	38.2	23.4	29.9	27.3	28.6	31.9	28.9	21.1
활동 지역	수도권	198	43.4	47.5	25.8	32.3	28.8	31.8	32.8	30.8	26.3
	비수도권	106	21.7	20.8	18.9	25.5	24.5	22.6	30.2	25.5	11.3
장애 여부	장애인	58	56.9	60.3	24.1	20.7	17.2	17.2	24.1	20.7	3.4
	비장애인	246	30.9	32.9	23.2	32.1	29.7	31.3	33.7	30.9	25.2
직업	예술인	72	43.1	54.2	22.2	34.7	29.2	33.3	37.5	37.5	23.6
	매개자	70	47.1	44.3	27.1	32.9	25.7	27.1	35.7	37.1	22.9
	비예술계 종사자	162	27.8	28.4	22.2	26.5	27.2	27.2	27.8	21.6	19.1
매개 활동 경험	있음	112	47.3	52.7	28.6	33.0	28.6	27.7	38.4	34.8	23.2
	없음	192	29.2	29.7	20.3	28.1	26.6	29.2	28.1	25.5	19.8
매개 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55.3	55.3	19.1	29.8	23.4	25.5	31.9	25.5	21.3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57.8	68.9	37.8	33.3	28.9	24.4	28.9	31.1	24.4
	유통 및 판매	21	42.9	47.6	52.4	38.1	47.6	47.6	57.1	47.6	33.3
	기획 및 행정	32	43.8	56.3	34.4	43.8	37.5	28.1	40.6	34.4	25.0
	예술단체 운영	11	36.4	54.5	18.2	27.3	45.5	27.3	36.4	9.1	9.1
	접근성 제고	13	38.5	61.5	30.8	30.8	23.1	38.5	46.2	15.4	15.4
	정책 및 지원기관	25	44.0	36.0	20.0	32.0	16.0	24.0	52.0	44.0	20.0
	문화시설	20	50.0	35.0	20.0	35.0	25.0	30.0	65.0	75.0	35.0
	장애인 복지시설	11	72.7	72.7	54.5	63.6	63.6	54.5	72.7	63.6	63.6
	없음	192	29.2	29.7	20.3	28.1	26.6	29.2	28.1	25.5	19.8

한편, 국공립 문화시설 담당자와 복지시설의 담당자가 매개인력인지 질문했는데, 응답자 속성과 관계없이 매개인력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상대적으로 비장애인과 비수도권에서 많았다.

② 매개활동 진행: 창작 중심 vs. 향유 중심

진행 중인 매개활동이 창작 중심인지 아니면 향유 중심인지를 질문했다. 대체로 향유 중심이란 응답보다는 창작 중심 또는 창작 향유 비슷함이란 응답이 많았다. 매개활동이 창작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장애인, 예술인, 매개활동 경험자에게서 많았다. 창작 중심이란 응답은 매개활동 경험자 44.6%인데, 비경험자는 16.7%에 불과했다.

[그림 3-4] 설문조사: 매개활동_창작 중심 vs. 향유 중심



③ 매개활동: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비교

응답자 속성에 관계없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의 성격이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다. 동일한 성격의 매개활동이지만 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씩 다르다. 장애인과 매개활동 경험자들은 일의 종류와 양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반면, 비장애인과 비경험자는 장애인 매개활동에서 일이 많다고 응답한다.

2) 매개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식

① 경제적 보상의 적절성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적절성을 질문했다. 보상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장애인(79.3%), 매개자(70.0%), 매개활동 경험자(61.6%), 비수도권(60.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표 3-8〉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총계
전 체		304	17.1	34.9	39.8	8.2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198	13.1	34.3	41.9	10.6	100.0
	비수도권	106	24.5	35.8	35.8	3.8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6.9	13.8	50.0	29.3	100.0
	비장애인	246	19.5	39.8	37.4	3.3	100.0
직업	예술인	72	16.7	27.8	45.8	9.7	100.0
	매개자	70	2.9	27.1	50.0	20.0	100.0
	비예술계종사자	162	23.5	41.4	32.7	2.5	10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14.3	24.1	45.5	16.1	100.0
	없음	192	18.8	41.1	36.5	3.6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8.5	23.4	55.3	12.8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15.6	33.3	35.6	15.6	100.0
	유통 및 판매	21	23.8	28.6	38.1	9.5	100.0
	기획 및 행정	32	15.6	37.5	31.3	15.6	100.0
	예술단체 운영	11	27.3	27.3	27.3	18.2	100.0
	접근성 제고	13	15.4	38.5	30.8	15.4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4.0	12.0	68.0	16.0	100.0
	문화시설	20	15.0	10.0	45.0	30.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18.2	36.4	36.4	9.1	100.0
	없음	192	18.8	41.1	36.5	3.6	100.0

② 매개인력의 수요와 공급

매개활동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질문했다. 일단 수요가 많다는 응답률은 수도권, 장애인, 예술인, 매개자, 매개활동 경험자에서 높았다. 매개활동 유형에서는 예술 단체 운영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많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수요에 비하여 적절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예술인, 현장 지원 및 협업, 유통 및 판매, 기획 및 행정, 복지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수요도 적고 적절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비수도권, 비장애인, 비예술계 종사자, 매개활동 비경험자에게서 많았다.

〈표 3-9〉 설문조사: 매개인력의 수요와 공급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수요도 많고, 적절한 인력도 많다	수요는 많은데, 적절한 인력이 적다	수요도 적고, 적절한 인력도 적다	수요는 적은데, 적절한 인력은 많다	총계
전 체		304	11.5	41.4	41.8	5.3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198	11.1	50.0	33.3	5.6	100.0
	비수도권	106	12.3	25.5	57.5	4.7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34.5	41.4	17.2	6.9	100.0
	비장애인	246	6.1	41.5	47.6	4.9	100.0
직업	예술인	72	18.1	50.0	26.4	5.6	100.0
	매개자	70	18.6	41.4	35.7	4.3	100.0
	비예술계 종사자	162	5.6	37.7	51.2	5.6	10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23.2	42.0	31.3	3.6	100.0
	없음	192	4.7	41.1	47.9	6.3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29.8	42.6	23.4	4.3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13.3	60.0	24.4	2.2	100.0
	유통 및 판매	21	9.5	52.4	33.3	4.8	100.0
	기획 및 행정	32	6.3	50.0	43.8	0.0	100.0
	예술단체 운영	11	9.1	27.3	63.6	0.0	100.0
	접근성 제고	13	23.1	30.8	46.2	0.0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60.0	24.0	12.0	4.0	100.0
	문화시설	20	50.0	20.0	25.0	5.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9.1	54.5	27.3	9.1	100.0
	없음	192	4.7	41.1	47.9	6.3	100.0

③ 매개활동이 필요한 시설(기관)

매개활동이 필요한 시설(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대체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공공문화시설에서 매개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응답자 특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25.9%)보다 장애인학교(27.6%)에서 매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복지시설 9.1%, 장애인학교 36.4%).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단체는 현재 복지시설보다 학교에서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비하여 공공문화시설에서 매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비수도권 25.5%, 수도권 18.2%) 비수도권의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유통 및 판매, 접근성 제고, 현장 내 지원 및 협업에서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매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33.3%, 23.1%, 22.2%). 세 가지 매개활동이 시설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예술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표 3-10〉 설문조사: 매개활동이 필요한 시설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공공문화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특별 학급 특수 학교)	문화예술 관련 대학교	(비)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장애예술 관련 프로젝트 현장	총계
전 체		304	20.7	32.6	12.2	10.5	11.8	12.2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198	18.2	33.8	15.2	10.6	10.6	11.6	100.0
	비수도권	106	25.5	30.2	6.6	10.4	14.2	13.2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13.8	25.9	27.6	3.4	12.1	17.2	100.0
	비장애인	246	22.4	34.1	8.5	12.2	11.8	11.0	100.0
직업	예술인	72	15.3	31.9	6.9	11.1	18.1	16.7	100.0
	매개자	70	24.3	28.6	15.7	8.6	11.4	11.4	100.0
	비예술계종사자	162	21.6	34.6	13.0	11.1	9.3	10.5	10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21.4	33.0	13.4	7.1	8.9	16.1	100.0
	없음	192	20.3	32.3	11.5	12.5	13.5	9.9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27.7	34.0	17.0	10.6	4.3	6.4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22.2	28.9	8.9	8.9	8.9	22.2	100.0
	유통 및 판매	21	23.8	9.5	9.5	14.3	9.5	33.3	100.0
	기획 및 행정	32	25.0	25.0	18.8	6.3	9.4	15.6	100.0
	예술단체 운영	11	18.2	9.1	36.4	9.1	27.3	0.0	100.0
	접근성 제고	13	23.1	23.1	15.4	0.0	15.4	23.1	100.0
	정책 및 자원기관	25	20.0	56.0	12.0	0.0	8.0	4.0	100.0
	문화시설	20	25.0	40.0	25.0	0.0	5.0	5.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63.6	27.3	0.0	0.0	0.0	9.1	100.0
		192	20.3	32.3	11.5	12.5	13.5	9.9	100.0

3) 매개인력 교육

① 장문원 매개자 교육 과정 참여

장문원의 매개자 교육 과정 인지율이 50%를 넘은 경우는 장애인(75.9%), 예술인(69.4%), 매개자(61.4%), 매개활동 경험자(78.6%) 정도이다. 교육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장애인(56.8%), 매개자(53.5%), 매개활동 경험자(42.0%) 정도다. 따라서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참여율은 장애인 43.1%, 매개자 32.8%, 매개활동 경험자 33.0% 정도다. 2022년부터 시작된 매개자 교육이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매개자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대상 만족도 역시 대체로 높은 편으로 현재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교육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좋은 편이다.

② 장문원 매개자 교육 과정 비참여 이유

장문원의 매개자 교육 비참여자(94명)는 응답자 속성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스케줄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주제가 맞지 않아서라기보다 여건이 많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교육이든 아니든 매개자 교육이 자주 여러 번 열리면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③ 장문원 매개자 교육 과정 참여 의향

장문원 매개자 교육 참여 의향(매우 있다+약간 있다)은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많았다. 하지만 적극적 참여 의향(매우 있다)은 지역, 장애 여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매우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과 장애인에게서 훨씬 많았다(수도권 22.7% vs. 비수도권 13.2%, 장애인 43.1% vs. 비장애인 13.8%). 또한 직업에서는 예술인(37.5%), 매개자(32.9%)의 적극 참여 의향이 비예술계 종사자(5.6%)보다 훨씬 많았다.

④ 장문원 이외 매개자 교육 참여

장문원 이외 기관의 매개자 교육 참여율은 장애인, 매개자, 매개활동 경험자에게서 높았다. 이들의 참여율은 각각 56.8%, 53.5%, 42.0%로 앞서 살펴본 장문원 교육 참여율보다 높은 편이다(43.1%, 32.8%, 33.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교육뿐 아니라 쉽게 찾아가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매개활동 참여자의 역량과 지식

① 매개활동 참여자의 역량

매개활동 참여자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대체로 태도(장애인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경험(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경험)보다 지식과 이해도(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면담조사에서는 태도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 것과 다소 다른 결과다. 지식과 이해정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특히 유통 및 판매(76.2%)에서 많았다.

〈표 3-11〉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가 갖춰야 할 것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을 대하는 태도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 관련 업무 경험	총계
전 체		304	25.7	54.3	20.1	100.0
활동지역	수도권	198	26.3	52.5	21.2	100.0
	비수도권	106	24.5	57.5	17.9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37.9	46.6	15.5	100.0
	비장애인	246	22.8	56.1	21.1	100.0
직업	예술인	72	37.5	50.0	12.5	100.0
	매개자	70	27.1	61.4	11.4	100.0
	비예술계 종사자	162	19.8	53.1	27.2	10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34.8	53.6	11.6	100.0
	없음	192	20.3	54.7	25.0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44.7	40.4	14.9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31.1	53.3	15.6	100.0
	유통 및 판매	21	19.0	76.2	4.8	100.0
	기획 및 행정	32	31.3	53.1	15.6	100.0
	예술단체 운영	11	36.4	45.5	18.2	100.0
	접근성 제고	13	53.8	30.8	15.4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44.0	48.0	8.0	100.0
	문화시설	20	40.0	50.0	10.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36.4	45.5	18.2	100.0
	없음	192	20.3	54.7	25.0	100.0

② 매개활동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매개활동 참여자로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대체로 장애인의 삶,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장애인의 접근성 일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예술인, 매개활동 경험자, 수도권에서는 매개인력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각각 65.5%, 59.7%, 51.8%, 44.9%). 예술 활동뿐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예술 매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다. 매개유형별로는 접근성 제고, 예술단체 운영에서 이 같은 응답이 많았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문화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 및 지원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에서는 중요하게 장애인의 예술이지 삶 자체는 아니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표 3-12〉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단위: 명, %, 중복응답)

구 분		사례 수	장애인의 삶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장애인의 접근성 일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	문화예술 전반	문화예술 매개활동 전반
전 체		304	40.8	39.1	37.5	28.9	29.3	12.2	12.2
활동지역	수도권	198	44.9	42.4	39.9	30.8	22.7	10.1	9.1
	비수도권	106	33.0	33.0	33.0	25.5	41.5	16.0	17.9
장애 여부	장애인	58	65.5	37.9	51.7	20.7	13.8	6.9	3.4
	비장애인	246	35.0	39.4	34.1	30.9	32.9	13.4	14.2
직업	예술인	72	59.7	40.3	36.1	26.4	15.3	11.1	11.1
	매개자	70	37.1	50.0	27.1	45.7	20.0	8.6	11.4
	비예술계 종사자	162	34.0	34.0	42.6	22.8	39.5	14.2	13.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51.8	43.8	42.9	29.5	13.4	9.8	8.9
	없음	192	34.4	36.5	34.4	28.6	38.5	13.5	14.1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55.3	46.8	29.8	25.5	14.9	14.9	12.8
	예술창작지원사업	45	51.1	44.4	53.3	15.6	15.6	11.1	8.9
	유통 및 판매	21	38.1	33.3	52.4	38.1	19.0	9.5	9.5
	기획 및 행정	32	37.5	46.9	53.1	25.0	21.9	3.1	12.5
	예술단체 운영	11	63.6	18.2	54.5	9.1	18.2	18.2	18.2
	접근성 제고	13	69.2	38.5	38.5	23.1	0.0	7.7	23.1
	정책 및 지원기관	25	44.0	52.0	48.0	44.0	0.0	8.0	4.0
	문화시설	20	50.0	55.0	35.0	30.0	15.0	10.0	5.0
	장애인 복지시설	11	36.4	54.5	27.3	27.3	18.2	9.1	27.3
	없음	192	34.4	36.5	34.4	28.6	38.5	13.5	14.1

5) 매개활동 참여 의향

대체로 앞으로 매개활동에 참여할 의향(약간 있다+매우 있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술계 종사자와 비경험자에 비하여 이미 참여해 본 사람의 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재참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참여 의향률이 높지만, 적극적 참여 의향률(매우 많다)은 수도권, 장애인, 예술인과 매개자에게서 특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수도권 21.7% vs. 비수도권 11.3%, 장애인 34.5% vs. 비장애인 14.2%, 예술인 40.3%-매개자 22.9%-비예술계 종사자 6.2%).

〈표 3-13〉 설문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총계
전 체		304	5.6	11.8	64.5	18.1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198	4.5	10.6	63.1	21.7	100.0
	비수도권	106	7.5	14.2	67.0	11.3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3.4	8.6	53.4	34.5	100.0
	비장애인	246	6.1	12.6	67.1	14.2	100.0
직업	예술인	72	1.4	1.4	56.9	40.3	100.0
	매개자	70	0.0	4.3	72.9	22.9	100.0
	비예술계 종사자	162	9.9	19.8	64.2	6.2	10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1.8	7.1	60.7	30.4	100.0
	없음	192	7.8	14.6	66.7	10.9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4.3	4.3	68.1	23.4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0.0	6.7	51.1	42.2	100.0
	유통 및 판매	21	4.8	4.8	47.6	42.9	100.0
	기획 및 행정	32	0.0	12.5	56.3	31.3	100.0
	예술단체 운영	11	0.0	9.1	63.6	27.3	100.0
	접근성 제고	13	0.0	7.7	61.5	30.8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8.0	8.0	60.0	24.0	100.0
	문화시설	20	0.0	0.0	65.0	35.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0.0	0.0	54.5	45.5	100.0
	없음	192	7.8	14.6	66.7	10.9	100.0

다. 매개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 매개활동 참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권 교육(대학교육)이나 문화시설·복지시설 내의 교육보다 기존 인력교육에서 장애인과 문화예술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인력,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이 각각 문화예술과 장애인 교육을 받아 현장에서 일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으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별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관련 과목 포함'(장애인 62.1%, 비장애인 35.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장애인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교육 과정에 장애인 관련 과목 포함'(55.2%)을 중요하게 여겼고, 비장애인은 '장문원 매개자 및 접근성 과정 확대'(32.9%)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관련 과목 포함'(수도권 44.9%, 비수도권 33.0%)이란 응답이 많았다. 다만 수도권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교육 과정에 장애인 관련 과목 포함'(40.4%)을, 비수도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자 대상 매개활동 교육'(34.9%)을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했다.

셋째, 예술인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교육 과정에 장애인 관련 과목 포함'(48.6%)을, 매개자는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관련 과목 포함'(48.6%)을, 비예술계 종사자는 '장문원 매개자 및 접근성 과정 확대'(38.9%)를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했다.

넷째, 매개활동 경험자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교육 과정의 장애인 관련 과목을 포함'(46.4%),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관련 과목 포함'(44.6%)을 중요하게 여겼다. 매개활동 유형별로는 문화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서 장애인교육을 선호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는 또는 관련된 영역보다 다른 영역에서의 교육이 적절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표 3-14〉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

(단위: 명,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비장애인 문화 예술 매개 인력 교육 과정 에 장애인 관련 과목 포함	장애인 복지 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 예술 관련 과목 포함	대학교 전공 교육(예술 경영, 문화기획 등)에 장애인 매개 활동 관련 과목 포함	장문원 매개자 및 접근성 과정 확대	문화기관 (시설) 에서 근무자 대상 매개활동 교육 실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자 대상 매개활동 교육 실시	장애인 문화예 술 매개활동 관련 연구 모임 지원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 (협회) 자체 매개활동 교육 하도록 지원
전 체		304	33.9	40.8	29.9	28.6	21.1	23.0	17.8	4.9
활동 지역	수도권	198	40.4	44.9	30.8	27.3	19.7	16.7	15.7	4.5
	비수도권	106	21.7	33.0	28.3	31.1	23.6	34.9	21.7	5.7
장애 여부	장애인	58	55.2	62.1	19.0	10.3	10.3	22.4	19.0	1.7
	비장애인	246	28.9	35.8	32.5	32.9	23.6	23.2	17.5	5.7
직업	예술인	72	48.6	38.9	29.2	13.9	22.2	20.8	20.8	5.6
	매개자	70	38.6	48.6	27.1	20.0	15.7	21.4	22.9	5.7
	비예술계 종사자	162	25.3	38.3	31.5	38.9	22.8	24.7	14.2	4.3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46.4	44.6	25.9	19.6	18.8	24.1	16.1	4.5
	없음	192	26.6	38.5	32.3	33.9	22.4	22.4	18.8	5.2
매개 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48.9	51.1	25.5	14.9	23.4	19.1	12.8	4.3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46.7	42.2	22.2	22.2	24.4	22.2	15.6	4.4
	유통 및 판매	21	52.4	38.1	33.3	9.5	28.6	23.8	14.3	0.0
	기획 및 행정	32	46.9	34.4	28.1	34.4	15.6	21.9	18.8	0.0
	예술단체 운영	11	36.4	72.7	18.2	36.4	18.2	9.1	9.1	0.0
	접근성 제고	13	46.2	53.8	23.1	46.2	15.4	7.7	7.7	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36.0	28.0	16.0	24.0	20.0	44.0	24.0	8.0
	문화시설	20	30.0	35.0	15.0	10.0	20.0	45.0	30.0	15.0
	장애인 복지시설	11	63.6	27.3	36.4	9.1	9.1	27.3	18.2	9.1
없음		192	26.6	38.5	32.3	33.9	22.4	22.4	18.8	5.2

2) 매개활동 참여자 확대 방안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매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질문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은 ‘장애인 삶 이해교육’(31.0%)과 ‘장애인과 교감을 위한 준비 작업(시간 인정)’(32.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교감을 위한 준비 작업(시간 인정)’(28.9%)과 ‘매개활동 참여자 및 활동에 대한 사례 공유’(26.4%)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두 ‘장애인과 교감을 위한 준비 작업(시간 인정)’(수도권 31.3%, 비수도권 26.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매개활동 참여자 및 활동에 대한 사례 공유’(수도권 23.7% 비수도권 26.4%)를 중요하게 여겼다.

셋째, 직업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두 ‘장애인과 교감을 위한 준비 작업(시간 인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예술인 31.9% 매개자 31.4%, 비예술계 종사자 27.8%). 이 밖에 ‘매개활동 참여자 및 활동에 대한 사례 공유’ 역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예술인 22.2%, 매개자 27.1%, 비예술계 종사자 24.7%).

넷째, 매개활동 경험과 관계없이 ‘장애인과 교감을 위한 준비 작업(시간 인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경험자 32.1%, 비경험자 28.1%). 특히 문화 정책 및 지원기관에서 매개활동을 경험한 응답자는 ‘준비 작업(시간 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48.0%).

참여자 확대 방안에서 ‘준비 작업(시간 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매개활동의 신규 참여자 쉽지 않음을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장애인 또는 향유자로서의 장애인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15〉 설문조사: 매개활동 참여자 확대 방안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장애인의 삶을 이해 교육	장애인과 교감을 위한 준비 작업 (시간) 인정	매개활동 참여자 및 활동 사례 공유	장애예술인-비장애 예술인의 일상적 교류 확대	다양성 또는 포용성 프로그램 확대	총계
전 체		304	16.1	29.6	24.7	17.4	12.2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198	15.2	31.3	23.7	16.7	13.1	100.0
	비수도권	106	17.9	26.4	26.4	18.9	10.4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31.0	32.8	17.2	6.9	12.1	100.0
	비장애인	246	12.6	28.9	26.4	19.9	12.2	100.0
직업	예술인	72	20.8	31.9	22.2	19.4	5.6	100.0
	매개자	70	15.7	31.4	27.1	10.0	15.7	100.0
	비예술계 종사자	162	14.2	27.8	24.7	19.8	13.6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21.3	21.3	31.9	19.1	6.4	100.0
	예술현장 내 자원 및 협업	45	22.2	28.9	15.6	24.4	8.9	100.0
	유통 및 판매	21	19.0	14.3	42.9	9.5	14.3	100.0
	기획 및 행정	32	25.0	34.4	25.0	9.4	6.3	100.0
	예술단체 운영	11	27.3	9.1	18.2	27.3	18.2	100.0
	접근성 제고	13	15.4	30.8	23.1	23.1	7.7	100.0
	정책 및 자원기관	25	32.0	48.0	8.0	12.0	0.0	100.0
	문화시설	20	30.0	25.0	15.0	20.0	10.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27.3	27.3	0.0	36.4	9.1	100.0
	없음	192	13.0	28.1	26.6	17.7	14.6	100.0

3) 매개활동 활성화 정책 사업

매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질문했다. ‘매개활동 플랫폼 구축(희망자와 수요기관 정보 교환 및 매칭)’, ‘사례연구 지원 및 장애예술계 공유’, ‘별도의 지원 사업 단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인은 ‘매개활동 플랫폼 구축: 희망자와 수요기관 정보 교환 및 매칭’이란 응답과 ‘사례연구 지원 및 장애예술계 공유’란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비장애인의 경우는 플랫폼 구축, 사례연구 공유, 별도 지원 단위 설정(창작지원 인력), 별도 지원 단위 설정(접근성 인력)이란 응답이 30% 내외로 나타났다. 장애인인은 접근성 인력과 함께하는 사업을 별도 지원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17.2%).

둘째, 수도권에서는 플랫폼 구축과 사례연구 공유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두 가지뿐 아니라 별도의 지원 단위 설정,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전문부서 설치 등이 모두 우선순위라고 응답했다.

셋째, 예술인은 사례연구 공유를 우선순위로, 매개자는 플랫폼 구축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반면, 비예술계 종사자는 두 가지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넷째, 매개활동 경험자는 플랫폼 구축과 사례연구 공유를 우선순위라고 응답한 반면, 비경험자는 여러 사업이 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3-16〉 설문조사: 매개활동 활성화 정책 사업

(단위: 명, %, 중복응답)

구 분		사례수	매개활동 플랫폼 구축 (희망자와 수요기관 정보 교환 및 매칭)	사례연구 지원 및 장애예술계 공유	별도의 지원 사업 단위 설정 (창작지원 인력과 함께 하는 사업)	별도의 지원 사업 단위 설정(접근성 인력과 함께 하는 사업)	장애인 문화 예술 교육에 지원 사업 확대	전문부서 설 치 운영 (자료 및 정보 수집분석, 컨설팅 업무)	매개활동 실태조사 정기 실시	매개활동 중요성 알리는 교육 및 홍보	문화시설 및 장애인 시설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
전 체		304	35.9	34.2	31.3	28.3	18.4	19.7	15.1	13.8	3.0	0.3
활동 지역	수도권	198	40.9	41.4	31.3	29.3	14.1	17.2	13.6	9.6	2.0	0.5
	비수도권	106	26.4	20.8	31.1	26.4	26.4	24.5	17.9	21.7	4.7	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53.4	53.4	41.4	17.2	8.6	10.3	6.9	8.6	0.0	0.0
	비장애인	246	31.7	29.7	28.9	30.9	20.7	22.0	17.1	15.0	3.7	0.4
직업	예술인	72	38.9	47.2	25.0	26.4	16.7	11.1	18.1	16.7	0.0	0.0
	매개자	70	45.7	27.1	38.6	27.1	15.7	14.3	14.3	12.9	2.9	1.4
	비예술계 종사자	162	30.2	31.5	30.9	29.6	20.4	25.9	14.2	13.0	4.3	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47.3	38.4	33.9	27.7	10.7	16.1	13.4	10.7	0.9	0.9
	없음	192	29.2	31.8	29.7	28.6	22.9	21.9	16.1	15.6	4.2	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55.3	38.3	36.2	27.7	10.6	12.8	10.6	6.4	0.0	2.1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37.8	44.4	33.3	24.4	11.1	17.8	15.6	13.3	0.0	2.2
	유통 및 판매	21	42.9	38.1	33.3	28.6	14.3	14.3	19.0	4.8	0.0	4.8
	기획 및 행정	32	43.8	43.8	28.1	43.8	9.4	15.6	6.3	6.3	0.0	3.1
	예술단체 운영	11	63.6	45.5	27.3	36.4	0.0	27.3	0.0	0.0	0.0	0.0
	접근성 제고	13	53.8	46.2	38.5	46.2	0.0	7.7	0.0	0.0	0.0	7.7
	정책 및 지원기관	25	44.0	16.0	24.0	28.0	16.0	24.0	28.0	16.0	0.0	4.0
	문화시설	20	45.0	20.0	40.0	20.0	10.0	20.0	15.0	20.0	5.0	5.0
	장애인 복지시설	11	72.7	27.3	18.2	18.2	27.3	9.1	9.1	0.0	9.1	9.1
없음		192	29.2	31.8	29.7	28.6	22.9	21.9	16.1	15.6	4.2	0.0

4) 매개활동 지원 정책의 주체

매개활동 지원 정책의 주체를 질문했다. 대체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장애인은 중앙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방식(48.3%)을 선호했다.

〈표 3-17〉 설문조사: 매개활동 정책 수행의 주체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중앙에서 수행기관 지정하여 직접 진행	지역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에서 수행	민간 참여 공모사업으로 진행	총계
전 체		304	28.3	43.8	28.0	100.0
활동 지역	수도권	198	29.3	43.9	26.8	100.0
	비수도권	106	26.4	43.4	30.2	100.0
장애 여부	장애인	58	48.3	29.3	22.4	100.0
	비장애인	246	23.6	47.2	29.3	100.0
직업	예술인	72	37.5	40.3	22.2	100.0
	매개자	70	34.3	51.4	14.3	100.0
	비예술계 종사자	162	21.6	42.0	36.4	100.0
매개활동 경험	있음	112	32.1	50.0	17.9	100.0
	없음	192	26.0	40.1	33.9	100.0
매개활동 유형	문화예술 교육	47	29.8	51.1	19.1	100.0
	예술현장 내 지원 및 협업	45	26.7	48.9	24.4	100.0
	유통 및 판매	21	19.0	52.4	28.6	100.0
	기획 및 행정	32	18.8	46.9	34.4	100.0
	예술단체 운영	11	9.1	63.6	27.3	100.0
	접근성 제고	13	7.7	61.5	30.8	100.0
	정책 및 지원기관	25	40.0	48.0	12.0	100.0
	문화시설	20	50.0	40.0	10.0	100.0
	장애인 복지시설	11	27.3	45.5	27.3	100.0
	없음	192	26.0	40.1	33.9	100.0

5) 매개활동 지원 사업: 다년 지원 vs. 단년 지원

매개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이 충분하면 단년 사업과 다년도 사업 모두를 진행할 수 있다. 예산이 불충분하기에 지원 사업 수가 중요한지(단년사업 지원) 아니면 지원 사업 수가 줄더라도 연속사업이 중요한지(다년도사업 지원)를 질문했다. 응답자 속성과 관계 없이 지원 사업의 수를 줄이더라도 다년도 연속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제3절 요약과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가. 용어 사용: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매개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조사에서 피면담자들은 매개활동 또는 매개인력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면담과정에서 매개를 (재)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특히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던 피면담자에게서 많았다. 매개활동 가운데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강사)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답변 보기로 제시한 역할과 활동이 매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현재 직업이 예술인과 매개자인 경우 그리고 매개활동 경험자는 답변 보기로 제시한 역할을 매개활동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비예술계 종사자, 매개활동 비경험자는 매개인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예술계 전반에서 매개활동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개활동이 장애예술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매개활동을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여자들은 창작 매개인지 아니면 향유 매개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구분 없이 자신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경우 창작 매개활동이라고 인식할 수는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매개활동 경험자는 현재의 매개활동이 창작 지원 중심이란 응답이, 비경험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셋째, 매개인력 또는 매개자라는 용어를 프리랜서 기획자와 예술가들은 선호하지 않았다. 인력이라고 하면 새로운 자격 제도의 신설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반면에 매개인력이라고 해야 전문성을 인정받는 느낌이고 그래야 앞으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수 입장도 있다. 호칭(지칭)은 매개활동과 매개인력의 개념 설정의 문제이면서 지원 정책에서 참고해야 할 지점이다.

나. 매개인력·매개활동의 개념과 범위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인식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장애인이란 특성에 따라 매개인력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매개활동 경험자는 활동의 차이는 없지만 일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다. 장애인의 특성을 모르면 매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매개활동의 성격이 다르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둘째, 현재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가 거의 없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담당자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지 않다. 복지시설에서 예술 프로그램이 이뤄졌지만 외부 강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문화시설의 장애인 업무와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업무를 매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다만 막연하게 이들을 장애인 문화예술 관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담당자들이 매개활동의 주요한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관련 제도와 사업이 바뀌면서 제도화된 시설 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설의 담당인력이 장애인 예술의 연결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술인과 매개인력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현재 직업이 예술인(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인 응답자는 매개자와 유사한 답변 양태를 보인다. 피면담자들은 예술교육 강사, 문화예술단체 직원 등을 매개인력으로 인식하지만, 예술인(특히 기술 지원 등)이 장애인(인)예술을 지원하면(예를 들어, 연출자의 지원, 무대감독의 지원) 이들의 활동 역시 매개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연과 창작이 아닌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은 예술이면서 예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매개활동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창작자와 향유자 지원에서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인력(사람) 단위로 접근하면 매개활동과 예술 활동 구분이 모호해진다.

넷째, 장애인이 매개인력으로 활동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몇몇 단체에서는 매개자로 활동하기도 하며,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가운데 장애인이 활동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이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는 매개활동 참여 장애인이 많이 응답했는데,⁷⁵⁾ 면담조사 또는 2장 사례조사에서 보면 일반적 현상은 아

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단체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에게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예술단체에서 장애예술인이 매개활동(단원 케어)을 하는 것, 그리고 2023년 장문원에서 진행한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사업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구성원 간 매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사업은 단기간 내 강사를 양성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런 일이고, 매개활동이 활성화되면 장애인 매개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장애인 부모가 매개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친다. 부모의 매개활동을 양성화하고 지원하자는 입장과, 매개활동 활성화는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그렇다.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장애예술계 현장에서 현재 부모가 매개활동을 실제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후자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고, 전자는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다. 매개인력의 현황

첫째, 매개인력의 활동 분야는 예술의 모든 장르에서 이뤄지지만, 음악, 공연, 미술 장르에서 비교적 활발하다. 이들 장르에서 장애예술인들은 주로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예술단체의 구성원인 기획·행정 인력, 교육 강사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접근성 관련 인력은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둘째,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경우는 장애인 예술단체의 기획·행정 업무 담당자,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담당자다. 이 밖에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예술단체의 강사, 복지시설의 예술강사, 창작 지원 활동가, 접근성 관계자는 주로 프리랜서로 일한다.

셋째, 매개인력의 전공은 예술인 경우가 많은데 강사와 프리랜서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신규직원의 전공을 예술과 복지를 선호하는데, 작은 단체에서는 전공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중요시한다.

75) 설문조사 응답자 304명 가운데 장애인은 68명이며, 68명 가운데 41명이 매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넷째, 지역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0명의 피면담자 가운데 비수도권 활동자는 3명이었고, 설문조사에서 매개활동 경험자(112명)는 수도권 91명, 비수도권 21명이었다. 확률표집이 아니기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장애예술계의 일반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매개인력이 훨씬 많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활동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면담조사에서도 지방에서는 매개활동 교육 자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다섯째, 매개인력의 근무 기간은 유형별로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안정적인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길고, 최근 관심이 늘어난 접근성 관계자의 근무 기간은 비교적 짧다. 면담조사에서 보면, 강사들은 장애인 예술단체와 복지시설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진흥원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반면에 장애인 예술단체 직원들은 격무와 낮은 보수로 이직이 잦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단체는 대표, 단원인 장애예술인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객관적으로 보면 매개활동 관련 소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장애인 예술단체 대표자들은 직원의 급여가 낮다고 말한다. 행정기획인력뿐 아니라 강사의 소득도 높은 편은 아닌데, 예술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인 교육진흥원 강사 사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접근성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아직 참조할 만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그리고 극장(극단)의 이해도가 낮아서, 업무 강도와 업무량에 비해 사례비가 적다.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매개활동 경험자들은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비경험자보다 경험자에게서 높았다. 급여 수준이 객관적으로 보면 낮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낮지 않은 것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좋아해서 하는 활동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보수는 적고 업무는 많지만, 매개인력은 자신이 좋아해서 매개활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개활동 유형과 관련 없이 모든 매개인력이 그렇다. 다만 상대적으로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좋아하는 활동이란 응답 비율과 만족도가 다소 낮은 특징이 있다.

여덟째, 매개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상당히 많았다. 참여 경험자의 재참여 의향은 90%를 넘었고, 비경험자의 신규 참여 의향은 78% 정도였다. 재참여 의향이 많은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기에 자연스럽고, 아직 매개활동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직접 예술 활동이든 매개활동이든 참여 의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라. 매개인력의 교육과 역량

첫째, 매개인력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다. 면담조사에 따르면 접근성 매니저들은 공부 모임을 구성하기도 하고, 음성해설이나 수어통역은 최근 회사가 설립됐는데 업무 경험을 통해서, 예술단체 구성원들 역시 업무 경험을 통해서, 강사들은 가르치는 교육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간다.

둘째, 2022년부터 장문원에서 매개자(접근성 포함) 교육 과정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매개활동 경험자의 교육 과정 참여율은 약 33% 정도이고, 다른 기관 교육 과정 참여율은 이보다 조금 높았다. 장문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교육 참여 의향 비율은 높은 편이다. 매개활동 관련 교육 과정이 더 많이 자주 개설된다면, 더욱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매개인력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면담조사에 따르면 일부 젊은 층과 프리랜서는 예술 능력과 장애 이해보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규모가 큰 단체에서는 예술적 전문성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아직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경향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매개활동 참여자의 역량을 묻는 질문 응답은 대체로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장애인과 장애(인)예술을 대하는 태도,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 관련 경험의 순서다(매개활동 경험자 기준). 답변 보기를 7개로 나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질문하면, 장애인의 삶,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장애인 접근성 일반이란 응답이 많은 편이다(매개활동 경험자 기준). 이처럼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인)예술에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또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마. 매개활동 활성화 정책 방향

첫째, 매개활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면담조사에서는 매개유형 별로 다소 의견이 다른데, 접근성 관계자들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술단체에서는 매개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매개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수요도 적고 인력이 적다는 의견,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적다는 의견의 순서로 나타났다.(매개활동 경험자 기준). 이 같은 조사결과는 매개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둘째, 매개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강의형 교육보다는 학습 모임이나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의견, 자격 제도를 부여하자는 의견, 매개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자는 의견, 예술 전공 대학생들에게 매개교육을 포함하자는 의견 등이다. 경제적 보상 강화는 매개활동뿐 아니라 장애예술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항상 언급되는 사항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매개활동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준비 작업 및 시간에 대한 인정(경제적 보상 영역의 확대)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매개활동 경험자 기준). 경제적 보상 강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설문조사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인력과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에게 각각 문화예술과 장애(인) 교육을 추가하자는 응답이 많았다. 면담조사와 달리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결합을 통해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 답변 보기를 제시한 것과 제시하지 않은 질문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셋째, 면담조사에서 매개활동 지원 정책을 질문하면 예산 지원 확대, 특수학교 문화예술 교육 확대, 전문예술단체 지원 같은 장애인 예술 일반의 활성화 정책 사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매개활동 플랫폼 구축, 비수도권 지역의 매개자 교육 및 일자리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매개활동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매개인력과 함께하는 사업의 별도 지원 단위 설정, 플랫폼 구축(매개활동 희망자와 수요처의 정보 교환과 매칭), 사례연구 지원 및 장애예술계 공유 등의 순서였다(매개활동 경험자 기준). 매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 구축을 적극 시도해 볼 만하다.

넷째, 매개활동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직접 진행하는 방안보다 지역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매개활동 경험자 기준). 다만 장애인 당사자는 중앙정부 진행을 우선시했다.

2.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장애인 예술 정책의 시작은 2008년 「문예진흥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15조의2) 조항 신설과 함께누리 지원사업(국고사업) 시행이며, 본격화는 2015년 장문원 설립, 제도화는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정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책의 주된 대상은 장애예술인(단체)이다. 장애예술인(단체)의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인을 지원하는 인력 그리고 향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 곧 매개인력의 수가 많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매개인력 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장애예술인뿐 아니라 매개인력까지 포괄해야 한다.

둘째, 매개인력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매개활동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앞에서 세부 쟁점으로 분류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① 첫 번째로 매개활동과 예술 활동(기술 지원 등)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원 정책에서 매개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② 두 번째로 장애인의 매개활동 참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뿐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③ 세 번째로 장애인 부모의 매개활동 참여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④ 네 번째로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장애인 매개활동 본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 매개활동 참여자의 장애예술계 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첫 번째로 매개유형에 따라 정책을 펼쳐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 3장 2절에서 답변 보기로 제시한 아홉 가지 활동 유형 등을 재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현재는 매개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매개활동을 해야 하는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계자들까지 포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두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특히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예술 전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매개활동에서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③ 세 번째로 현재 매개인력과 미래 매개인력을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교육과 신규 교육에 걸맞은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④ 네 번째로 매개인력은 공연과 미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근성 관련해서는 거의 공연에 한정되는데, 지원 정책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해야 한다. ⑤ 다섯 번째로 프리랜서인지 단체 소속인지에 따라 욕구가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 형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넷째, 매개활동에서 필요한 역량, 매개인력에서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매개인력에게 필요한 자질은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 예술에 대한 지식, 문화예술 정책 이해, 복지 정책 이해 등이다. 현재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덧붙이든 아니면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든, 이 같은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매개활동은 일은 많고 보수는 적다. 다만 현재 참여자들은 급여 수준에 큰 불만은 없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주관적 의지로 객관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엔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매개활동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인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매개활동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처와 공급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예술계에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 매개활동 참여자를 소개받는 일이 많은데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수요처와 공급자 모두 적절한 인력과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지원
정책의 과제

제1절 기본 방향과 쟁점사항 대응 방안

1. 정책 과제 설정의 기본 방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지원 정책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향해야 할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포괄성, 연계성, 탄력성, 현실 적합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이다.

가. 포괄성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창작과 실연에 속하는 예술인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창작과 실연 이외에도 장애예술계를 구성하는 인력과 활동에 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현장은 특정 예술 장르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개활동 정책은 서로 연계되고, 배제하는 집단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포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매개활동 지원 정책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진행돼야 하고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과 향유, 장애예술인 작품의 활발한 유통,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을 위한 교육까지 정책 대상이 확장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일시에 펼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매개활동 지원 정책은 창작뿐 아니라 향유와 교육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매개활동 지원은 포괄적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창작과 향유 그리고 교육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개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정책 사업 계획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매개유형, 활동 지역, 활동 장르, 예술단체 규모, 장애유형 등에서 우선순위에 이르지

못한 집단이 있는 게 현실이다. 모든 집단을 균등하게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내에서 포용적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 연계성

1차 기본계획과 6차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 정책과 장애 정책을 연계한 사업을 제시했는데,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력과 관련된 정책 연구는 대체로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이들의 활동과 연계된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지원 정책은 연계성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정책들과 매개활동 지원 정책의 연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문화예술 매개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보다 문화예술 매개활동이란 본질은 같기 때문에,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교육 과정에 장애(인)와 장애예술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장애인 매개활동 정책을 포함하고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인력들이 문화예술 매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장애인 복지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장애인 복지인력 자격 취득자 가운데 일부가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제도화하여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에 문화예술을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장애인 복지 정책과 문화예술 매개활동 정책의 연계다. 1차 기본계획에서도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결합을 제시했는데, 실제 두 가지 정책의 연계와 결합을 매개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 정책과 활동 지원 정책의 연계다. 현재는 매개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것이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 일할 기회가 늘어나 교육 참여자도 늘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다시 매개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다. 탄력성

2장과 3장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술인(기술 지원 등)과 매개인력의 관계, 매개활동의 복합화 및 분류의 어려움, 장애인의 매개활동 참여, 장애인 부모의 매개활동 참여 등이 그것이다. 개별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 입장은 엄격하게

분류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사람 단위의 인력보다 업무 단위의 활동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하나의 역할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보다 여러 역할을 다양하게 해내는 것이 현장의 요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욕구일 수도 있다. 장애예술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역할이 미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은 매개활동의 분류 및 유형화, 그것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맞춤형 지원대로 계획하여 실행하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라. 현실 적합성

장애예술계는 복잡하다. 포괄성에 언급한 것처럼 집단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욕구도 다양하다. 이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기존 정책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성의 첫 번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

두 번째는 기존 정책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문원의 기존 정책 사업 내에서 매개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을 먼저 시행해 보고 새로운 지원 단위 사업으로 설정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할 사업들과 매개활동 지원 사업을 연결하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구매제, 정기적 공연전시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문화 정책 기관 내에서 매개인력의 지원이 필요하고, 예술누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매개인력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에서 매개활동 지원을 시작하여, 매개인력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 미래 지향성

매개활동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접근성에 대한 관심 증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강화에 따른 현상이다. 우선구매와

정기적 공연전시 같은 정책 변화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인식과 정책의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매개활동 지원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접근성은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매개활동 지원 정책을 본격 시작하는 현시점에는 기존 유관 사업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개선·개발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염두에 뒀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자격 제도의 도입이 몇 년 후에 매개활동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덧붙여 정기적 공연전시 정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 같은 수요 진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몇 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미래 지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양성과 일자리의 관계를 예상하면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의 개념 정리

2장 3절과 3장 3절의 쟁점사항에서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의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개인력 및 매개활동 용어 사용

장애예술계에서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장애예술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장애예술인 지원 중심인데, 이때 장애예술인은 창작자와 실연자에 해당한다. 현재 장애예술인에 해당하지만 기획자와 기술 스태프 등에 대한 정책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뿐 아니라 장애예술계를 구성하는 매개활동, 곧 창작 지원, 교육, 행정·기획·유통·판매·홍보, 그리고 접근성 제고 등의 활동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개활동의 참여자로서 매개인력 용어의 사용은 이중적이다. 장애예술계를 구성하는 주체의 성격, 전문성을 강조한다면 매개인력 또는 전문인력이란 용어 사용이 적절하다. 그런데 인력이라고 하면 하나의 일자리 사업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선불리 자격 제도 신설과 연결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굳이 매개인력이란 용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나.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vs.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1장 3절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 매개인력은 예술가는 아니지만 향유자(소비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혹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⁷⁶⁾ 이번 연구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 개념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비장애인 매개인력은 예술인이 아니라는 전제(前提)가 있지만, 장애인 매개인력은 ‘예술인이 아니지만’이란 문구를 생략했다.

예술인이 매개인력이 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문구 생략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비교하여 향유 지원뿐 아니라 창작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정부·지자체 소속 및 산하 기관, 민간 매개기관 구성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로 향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향유 지원뿐 아니라 창작 지원의 역할도 수행한다. 비장애인 매개활동에서는 향유자의 문화예술 참여 여부(결과)가 중요하다면, 장애인 매개활동에서는 향유자의 참여뿐 아니라 창작자의 개별적 욕구 및 특성에 따른 매개의 방식·속도·내용을 유연하게 모색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창작 지원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만, 문화예술계(작품 창작과 향유)의 밀도와 완성도를 제고하는 역할이란 매개활동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창작자와 향유자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세세부적인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매개활동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점을 고려하면서 수행하면 된다.

76) 장세갈·조현성·신지원(2023), 앞의 보고서, 4쪽 참조

다. 창작 지원의 개념과 범위

2장에서 매개활동을 네 가지—창작 지원, 문화예술 교육, 예술단체, 접근성 제고—로 살펴봤는데, 창작 지원 이외에 세 가지 유형도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교육은 장애예술인 교육과 장애인 예술 교육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광의의 창작 지원이며, 단체 운영에서 기획자 역할은 창작 지원이며, 접근성 제고는 향유자의 이동성 확보뿐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창작 지원이다. 이처럼 매개활동 하나의 유형으로서 창작 지원은 개념화하기 쉽지 않다. 2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표현 행위를 다양화, 활성화,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의 교육, 제안, 조력, 협력, 협업, 기획”이라고 창작 지원을 규정했다. 교육은 문화예술 교육과, 제안과 기획은 예술단체 운영의 기획과 겹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창작 지원은 이처럼 광범위하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창작 지원을 주로 다룬다. 그것은 면담조사에 따라 “창작을 위한 재료 구비, 재료 사용 방법 안내, 나쁜 습관에 대한 가이드, 창작과정 기록”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장애인 곁에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의 활동을 창작 지원으로 보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답변자 유형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협업과 지원’을 주된 매개활동으로 인식한다.

3. 매개활동 참여자의 범위: 예술인, 장애인(부모) 등

가. 예술인의 매개활동

2장과 3장의 쟁점사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유형이 사람이 매개인력에 포함되는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 특히 기술 지원 등의 인력이 매개활동 참여자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장애예술계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상의 실연과 창작을 제외하고는 기술 지원 등을 매개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 공연단체에서는 연출자, 기획자, 기술 스태프 등을 매개인력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창작자·실연자를 제외한 예술인 그리고 모든 지원 인력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분류상 어려움은 장애인 예술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전문인력(문화시설 전문적 운영), 「공연법」시행령의 무대예술 전문인은 매개인력의 성격이 있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예술인(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정기적 공연전시 관련 고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4-35호)에서도 예술인에 해당한다. 고시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창작, 실연, 제작기획, 기술지원으로 구분된다. 작가와 실연자는 물론 제작자, 기획자, 기술 지원(자) 등이 모두 예술인이다.

기획자와 기술 지원 인력 등을 매개인력이 아니라 예술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개활동 참여자인 접근성 매니저는 기획자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법령에 따르면 예술인이다. 장애인 예술단체의 구성원 가운데 기획 인력은 매개인력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예술인에 포함된다. 접근성과 매니저와 예술단체 기획자는 예술인이면서 동시에 매개인력이지만, 현재까지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에서 구체적 정책사업의 대상은 아니다. 장애인 예술 정책이 창작자와 실연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매개인력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실연자와 창작자를 제외한 예술인 역시 매개인력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가운데 상당수(특히 기술 지원 등)는 「예술인 복지법」이나 「고시」에서 (장애)예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매개인력 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곧, 예술인을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

나. 장애인의 매개활동

장애인이 매개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2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장애인 매개인력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사업(2023) 같은 신규 사업의 개발, 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장애(예술)인들이 서로서로에게 매개활동을 하는 사례의 확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비장애인 매개활동과 달리 장애예술인이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장애예술인이 창작과 실연에서 한정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개 역할까지 활동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예술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 영역뿐 아니라 매개 영역이 두터워져야 하는데 장애예술계에 필요한 일을 장애예술인이

누구보다 많이 알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은 매개활동 참여자이며, 특히 장애예술인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장애인 부모의 매개활동

장애인 부모가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현실이지만 활동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부모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보상 체계가 형성되면 부모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인데 공정하게 선발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셋째, 공공 정책을 사적(私的)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실제 부모가 매개 역할을 하는 분명한 현실을 감안하면, 보상 체계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매개활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싶다면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단체를 구성하여 자녀를 포함한 장애예술인과 활동하는 것에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장애인 부모의 매개활동에 경제적 보상은 불가하지만 나머지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라. 문화시설·복지시설 관계자의 매개활동

현재는 구체적으로 매개활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앞으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문화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매개인력으로 간주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복지시설은 주로 문화예술 교육과 짝을 이루고, 문화시설은 정책기관과 짝을 이뤄 지원 사업을 설정할 수 있다.

4. 매개활동 유형화 및 통합적 지원

체계적 매개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매개활동의 유형화이고, 다른 하나는 매개인력이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에 적합한 지원 방안 설정이다.

가. 매개활동 유형화

설문조사에서 답변 보기로 제시한 것처럼 매개활동을 범주화해야 한다. 아홉 개 유형이 각기 특성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다섯 개 정도로 재분류하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곧, ① 예술 창작 지원, ② 문화예술 교육, ③ 예술단체 운영(프리랜서, 기획·행정, 유통·판매 포함)⁷⁷⁾, ④ 접근성 제고, ⑤ 공공기관(정책 및 지원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그것이다. 2장에서 제시한 유형화에 공공기관 하나가 덧붙여진 것이다.

① 첫째, 창작 지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장(場)에서 이뤄지는 제반 활동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넓은 의미의 창작 지원은 기획·교육·협력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서 창작 지원은 현장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의 활동으로 한정한다.

② 둘째, 문화예술 교육은 매개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유형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 매개인력 관련 사업은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 체계화와 지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성되는데, 9개 세세부사업 가운데 7개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다. 덧붙여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복지 분야와 연계되어 진행된다. 2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는 이뤄지는 (평생)교육,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파견사업, 예술(교육)단체 내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는 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며, 뒤의 것은 장애예술인 교육이다.

③ 셋째, 장애인 예술단체의 매개 역할은 하나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단원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작품을 완성하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수행된 매개활동은 문화예술 교육, 작품 구상과 기획, 단체 행정과 단원 관리, 단체 및 작품 홍보, 유통 및 판매 등이다. 교육, 기획, 행정, 홍보, 유통 등은 예술단체 단위에서 이뤄지지만, 개인 단위로 활동하기도 하고(프리랜서), 몇 개의 매개활동에 한정해서 단체 단위로 이뤄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유통·판매 회사, 기획·홍보 회사). 따라서 프리랜서, 특정 매개활동들을 묶어서 예술단체 운영이라고 이름 붙인다.

77) 2장 2절에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이라고 쓰고, 단체 운영자와 구성원에 대해 기술했다. 창작 지원 활동, 교육 활동, 접근성 제고 활동과 짝을 맞추기 위해 활동이라고 했다. 3장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는 단체 구성원보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예술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활동이라고 하면 단원의 예술 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 운영이라고 썼음을 밝힌다.

④ 넷째, 접근성 제고는 최근 관심이 부쩍 늘어난 매개활동 영역이다. 접근성 매니저 역할이 하나고,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해설처럼 접근성 제고 활동이 다른 하나다. 작 지원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예술단체 운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른 매개인력과 다르게 분명한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접근성 제고 역할은 다른 활동과 구분되는 분명한 업무가 있기에 접근성 제고를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한다.

⑤ 다섯째, 공공기관은 문화 영역과 복지 영역을 포괄한다. 먼저 정책기관과 문화시설은 공공 문화기관이다. 정책기관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의 기획자이며, 문화시설은 그것이 실현되는 장(場)이다. 정책기관은 국가지자체와 그것의 소속 및 산하기관을 의미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문화예술 정책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문화 관련 부처·부서·기관들을 정책기관이 할 수 있다.

문화시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 관련 기관 가운데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의미한다. 현재는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부 국립시설에서는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실현하고 있다. 덧붙여 국공립 문화시설은 「문예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한편, 복지시설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행사가 이뤄지는 장(場)이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직업 및 고용시설을 포괄하는데, 당분간은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나. 유형별 교육과 통합적 지원 정책

위에서 다섯 가지로 매개활동을 구분한 것은 적합한 교육 방안을 찾는 데 유용하다. 그런데 매개활동 현장에서는 이 같은 유형이 엄격하게 구분돼서 작동되지 않는다. 창작 지원은 개념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술단체에는 교육과 기획이 동시에 이뤄지고, 접근성에서는 매니저가 창작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매개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낸다. 장기적으로는 유형별로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게 적절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성 단계에서는 유형별로 교육을 실시하지만 지원 정책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유형별로 실시하지만 지원 사업은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5. 맞춤형 지원

가. 비수도권 지역 매개활동 기회 확대

문화예술 정책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방 이양되어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서 지역 단위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장애예술 정책이 초기 단계여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역 단위 사업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다른 문화 정책 영역보다 지역화를 서둘러야 한다. 지역 쿼터제 같은 것을 실시해 볼 수도 있고, 지역 간 협력 사업 같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매개활동 정책 지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지역화 또는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볼 수 있다. 비수도권 광역시, 기초 시군 몇 군데에서 매개인력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예술 특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서 장애인 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매개활동 정책이 중앙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지역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 이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 매개활동 지원 사업을 대폭 늘려야 한다. 덧붙여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매개인력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나.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 교육 과정 분화

장문원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접근성) 과정의 참여자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무경험자부터 접근성 강사까지 폭이 다양하다. 이들이 하나의 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교육 과정 내 장애(인) 교과 포함,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 내 문화예술 교과 포함은 신규 인력을 위한 교육 방법이다. 반면에 현재 매개활동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 분석하는 학습 모임 구성이 필요하다. 이음 아카데미도 역시 온라인 교육을 신규 교육, 오프라인 워크숍은 심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신규 매개인력 교육 과정과 심화 교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에 매개활동 참여 의향

자와 기존 참여자가 멘티-멘토로 짝을 이뤄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을 기획해 볼 수 있다.

교육보다 중요한 점은 교육이 아니라 이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신규 참여자와 재참여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문조사에서는 매개활동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적절한 인력이 적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은 장애예술계 관심자의 입장이지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면서 매개인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 공연·전시 같은 제도화된 사업의 실시뿐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 예술 작품의 창작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개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래야 전문성에 따라 매개인력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 예술 장르와 장애유형에 걸맞은 매개활동 지원

현재는 매개활동이 음악, 공연, 미술 장르에 집중돼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장애인 예술단체는 공연과 음악이 많으며, 접근성 제고는 공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예술단체는 발달장애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 많으며, 접근성 제고는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것은 매개활동의 특성이 라기보다 장애인 예술 현장 자체의 특징이다. 다른 장르에서도 매개활동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다른 장애유형과 관련된 매개인력 양성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예산 상황에서 일부 장르와 장애유형에 매개활동이 집중된 것을 해소하고자 사업 개체 수와 예산을 장르와 유형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관련 지원 사업과 예산을 증액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장르와 다른 장애유형에 걸맞은 매개활동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

라. 단체 소속과 프리랜서: 적합한 정보 제공

예술단체에 소속돼 정해진 급여를 받은 소수를 제외하고 매개활동 참여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보통이다. 예술단체 직원들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단체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표직을 맡은 사람이며, 이들은 장애인 부모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단체 소속 직원이든 프리랜서 등 매개활동 참여자들은 매개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고, 적합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프리랜서는 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프리랜서에 준해서 매개활동 참여자 한명 한명을 개별자로 인식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자인 매개인력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이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뒀야 한다.

6. 자격 제도 및 실태조사

가. 자격 제도 도입

면담조사를 진행할 때, 어떤 피면담자는 걱정을, 반대로 어떤 피면담자는 기대를 내비쳤다. 매개활동 연구 일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자격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랬다. 최근 관심이 부쩍 늘어난 접근성 관련하여 자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고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현시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관련하여 자격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격 제도가 되려면 업무와 교육에 대한 충분한 조사, 누적된 시계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매개활동 실태조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자격 제도는 충분한 수요를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일자리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자격 제도를 도입하면, 곧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제도 신설은 (교육, 매개활동) 참여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자격 제도 도입은 매개활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일이다.

나. 매개활동 참여자 조사

2장에서 보았듯이 매개활동 참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언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개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인력과 그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매개인력 모집단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람들을 모아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수첩'을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첩은 매개인력 스스로 결사체를 결성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결사체는 적절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수첩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장애 예술계에서도 예술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술 창작자 집단 관련된 조사는 현재 ‘예술인 실태조사’(1991~)가 진행 중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화 예술인 실태조사’와 짝을 이뤄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가 진행됐는데 모집단 파악 등이 어려워 조사를 중단했다. 현재는 ‘공연예술조사’를 통해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미술시장조사’를 통해 미술관 실태를 파악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개인력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비장애 예술계에서도 매개인력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장애 예술계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 예술단체는 대체로 공공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조사를 기획·실시해야 한다.

제2절 매개인력 양성 방안

1. 학습 모임과 사례 연구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교육은, 독립된 교육 체제를 설계하기에 아직 관련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문원의 이음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처럼 참여자가 체감하는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학습 모임 지원을 통해 유경험자들 간 학습과 교류의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개활동 사례 비교연구, 세 번째는 관련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가. 학습 모임 지원

설문조사에서 매개활동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법 가운데 연구 모임 지원이란 응답이 많지 않다. 현재 직업이 매개자이거나 매개활동 경험자 모두 ‘비장애인 매개인력 교육 과정에 장애인 교과목 포함’,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교과목 포함’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면담조사에 따르면 접근성 관계자와 젊은 층에서는 학습 모임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접근성 매니저가 워크숍이나 학습 모임을 선호하는 것은 접근성이 새로운 직무이기에 정형화된 강의형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이고, 젊은 층에서 그러한 것은 이들이 스스로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온 경험 때문일 것이다. “렉처라기보다는 워크숍이나 스터디 형식”이란 말은 접근성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표준화된 형식이 있지 않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 전문성을 쌓아온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숍 형태가 적절하다. 실제 이음 아카데미도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2024년 매개자 과정에서 강의형은 ‘장애예술 기획 매개 입문’ 하나이고, 나머지는 워크숍 형태다. 기획 매개 워크숍(15명 내외, 7회차), 교육 매개 워크숍(연

극교육 워크숍, 예술가의 협업과 역할 워크숍,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예술교육 워크숍 각각 15명 내외)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워크숍을 장문원에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매개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장문원 주최 워크숍에 참여하기 어렵기에 지역 단위에서 활동가 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매개활동 경험자와 참여 의향자가 스스로 학습 모임을 통해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는 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참여자) 중심이기에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학습 모임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및 논의 주제를 선택하고, 장문원이나 지역 단위의 지원 예산을 통해 모임 운영비, 자료 구입비, 관계자 자문 사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장문원은 처음으로 학습 모임을 지원했다. 이음 아카데미 접근성 과정의 ‘접근성 매니저 연구모임’ 지원이 그것이다. 2편 이상 활동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자들의 학습 모임으로 최소 5회 정기 모임을 갖고 활동 결과물을 발표하면 된다. 이 같은 학습 모임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습 모임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개인 단위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이 매개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학습 모임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만드는 자료를 장문원이 그냥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불식시켜야 한다. 결과 공유는 몇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교육 과정 개발이 첫 번째고, 두 개의 학습 모임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두 번째다. 경험이 많은 학습 모임과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학습 모임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전자가 후자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 단위 학습 모임 발표회 개최가 세 번째다.

나. 매개활동 사례 비교 연구

학습 모임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매개활동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닌 개별성으로 인해 사례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습 모임은 경험자들의 워크숍 또는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워크숍 행태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신의 매개활동 경험, 자신이 속한 기관의 현황 등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경험을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매개활동 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지역에 따른 유사성과 상이성, 장르 간 특성 등을 비교하여 개별성과 구분되는 매개활동의 고유성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는 정책 연구자, 학술 연구자뿐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매개인력이 참여해야 한다. 아직까지 학술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들은 매개활동의 현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비교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예술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례 비교 연구는 결과물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제반 자료를 보관·제출하여 매개활동 DB에서 관리한다. 또한 학습 모임 지원과 마찬가지로 연 단위로 발표회, 그리고 이음 온라인 게재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다. 교육 자료 DB 구축과 교재 개발

지원받은 학습 모임과 사례 비교연구 자료들을 취합하여 DB를 구축한다. 초기에는 자료를 취합하는 형식이 되겠지만, 자료가 누적되면 이를 분류하고 연구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매개인력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한다. 교재는 공통 과정과 특화 과정(매개활동 유형별, 예술 장르별, 장애유형별)으로 분류한다. 수준(단계)은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인쇄 자료와 영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시범 교재를 개발하여 온라인에 탑재한 다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다.

2.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

가.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내 장애인 교육

일반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제도 내 교육(대학 교육)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의 단기 집중 교육(대학 밖 교육) 형태로 이뤄진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 또한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자격 취득 없이 전문성을 쌓기도 한다. 현재 비장애인 문화매개자 양성은 대부분 대학 밖 교육, 비자격 전문성 확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것의 대표 사례가 지역문화진흥원 지역주관기관이 실시해 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문화 아카데미 사업’인데,

2024년 기준으로 사업이 휴지기 상태다.⁷⁸⁾ 2024년 기준으로 대학 밖 교육 사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 매개인력 양성사업’을 참조할 수 있다.⁷⁹⁾ 3개 분야(공예 큐레이터, 머천다이어지, 에듀케이터) 실무 과정과 심화 워크숍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12강으로 구성된다.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공예 매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공자 혹은 관련 분야 종사자이며, 분야별로 20명(실무 과정), 3명(심화 과정)이 참여한다.

제도 내 교육 사례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자는 2급 교육 과정(5과목 10학점)을 이수하면, 비전공자 또는 고교 졸업자는 2급 교육 과정(15과목 40학점)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면 2급 자격을 부여 받는다. 제도 내 교육이든 비제도 교육이든 강의형 수업 참여가 전문성 확보의 주된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 분야 매개인력 양성 단기 과정에서 장애(인) 이해, 장애인 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장문원의 이음 아카데미가 장애인 예술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타 기관의 매개인력 양성과정과 연계는 새로운 인력을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의 주관기관은 문체부 산하기관이거나 지역문화재단일 경우가 많기에 협의를 통해 장애(인) 이해 과목을 포함시킨다.

나.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 내 문화예술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매개활동 참여자의 획득을 위한 교육 방법을 질문했을 때, 응답자 속성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교육 관련 과목 포함’이란 응답이 가장 많다.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일하려는) 사람들이

78) 2023년에는 7개 기관(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도봉문화원, 울산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이 2023~2025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춘천문화재단에서는 ‘적당한 각도와 결정의 밀도’라는 주제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문화기획자 양성과정(강의, 워크숍, 멘토링)을 진행했다.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춘천형 기본과정 모집 참조. https://www.cccf.or.kr/Home/H10000/H10500/H10501/boardView?board_key=11574 (검색일: 2024년 8월 12일)

7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024 공예매개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참조. <https://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1&bbldx=7776&brdCodeValue=> (검색일: 2024년 8월 12일)

문화예술을 이해하면 매개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도 장애인 복지인력이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기획·행정 일을 담당하거나 복지관에서 문화예술 교육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현재 참여자의 전문성 제고는 유형별 교육을 실시하는 게 적당하다.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에 문화예술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신규 인력을 양성한다. 근로지원인 교육은 일반과 발달 특화로 나뉘며, 기본(25시간)-단축(13시간)-실습(3시간)으로 구성된다.⁸⁰⁾ 장애인 정책과 협력하여 25시간 기본 교육 시간에 문화예술 관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은 장애(8시간), 활동보조(15시간), 실천 I·II(17시간), 실습(10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과목은 없다.⁸¹⁾ 현실적으로 실습 시간에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1장 3절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은 “의자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이라고 했는데, 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⁸²⁾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이다.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기관인 지역 내 장애인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등인데 이 가운데 몇 군데서 시범 교육을 실시해볼 수 있다.

다. 대학교육 내 관련 강의 개설

현재 대학에서 몇몇 학과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매개인력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서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 등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득한다. 학예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본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을 하나의 자격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1절 참조), 다른 문화예술 매개인력 역시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문화예술인 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학과에서 매개활동에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여, 매개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80)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근로지원인 교육안내 및 신청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교육은 25개 과정이 예정돼 있다. <https://hub.lead.or.kr/lbSpEduAplyPage.do> (검색일: 2024년 8월 15일)

8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활동지원인력 참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검색일: 2024년 8월 14일)

82) 수어통역사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매개인력으로 활동한다.

문화예술 매개활동과 관련된 예술경영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과목을 개설한다. 6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예술 전공학과 내 장애예술 교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이것은 음악, 미술, 공연 관련 학과에서, 곧 미래의 예술가 교육 과정에서 장애예술을 포함하자는 의미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문화예술 매개 관련 학과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과목을 개설한다면 장애인 예술이 학문과 직업의 세계에서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이 같은 과정을 개설한다면 장애예술 현장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3. 매개유형별 양성 방안

가. 창작 활동 지원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곁에서 노동과 일상의 업무를 지원한다. 창작지원이란 개념을 정확히 개념화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장애예술인과 함께 한다면 이들은 창작 지원 업무 담당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화발전시키면 창작 지원인력 또는 창작 협력자라고 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창작 지원 또는 창작 협력을 여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핵심적 역량을 지니고 있지만 장애로 핵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때 창작 지원인 또는 창작 협력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창작 협력자(creative enabler)는 영국 장애예술인 전문극단인 ‘그라이아이 시어터 컴퍼니(Graeae Theatre Company)’에서 주창된 것으로 시·청각장애인 또는 신경발달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⁸³⁾ 장애예술인이 창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의 자율성 유지, 리허설을 포함한 제작 과정에서의 장애예술인-공연장 스태프 간 소통을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창작 협력자(창작 지원인)의 주요한 역할이다. 창작 협력자 양성은 두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83) 그라이아이 시어터 웹사이트 참조 <https://www.takingflighttheatre.org.uk/creative-enabler-training/>

첫 번째는 기존 교육 체계 연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내 문화예술 이해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다섯 가지 유형에서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은 장애예술인과 함께 생활근무하면서 창작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두 번째는 창작 협력자의 소모임 지원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매개활동 유형 가운데 다른 네 가지(문화예술 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역할은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창작 지원 또는 창작 협력은 그라이아이 시어터의 개념을 참조하든 2장에서 언급한 개념을 참조하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창작지원의 범위는 장애인이 작은 표현도 시도하도록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구체화된 창작 및 작품 활동을 공식화된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스스로 이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모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 결과를 제출하고 발표회 등에 참석하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창작 협력자 모임은 대체로 강의 프로그램 없이 워크숍과 사례 연구를 지속하도록 지원한다.

나.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예술강사의 장애 이해와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도화돼 있지 않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술강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교육에서 교육 참여자(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그렇고, 교육 참여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교육 시각에서도 그렇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기관과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강사가 장애와 인권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90% 정도였다. 예술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바우처) 인정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장애인이 판단하여 선택하므로, 강사의 사전교육 이수는 요건이 되지 않아도 된다	강사의 장애와 인권 이해 정도가 중요하므로, 강사의 사전교육 이수는 요건이 되어야 한다	계	
기관 유형	제공기관 전체	601	8.2	91.8	100.0
	장애인 복지관	146	4.8	95.2	1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9.4	90.6	100.0
	장애인평생교육시설	68	7.4	92.6	100.0
	장애인 예술단체	71	7.0	93.0	100.0
	문화예술회관	80	6.3	93.8	100.0
	생활문화센터	51	3.9	96.1	100.0
	문화의 집	21	4.8	95.2	100.0
	민간학원	100	18.0	82.0	100.0
강사 전체	121	10.7	89.3	100.0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8쪽

1)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내 장애(인) 이해 포함

교육진흥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강사는 대부분 교육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누림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자격증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개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접 예술강사를 뽑아야 하는데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에는 장애인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성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과목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인) 이해 교과목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장애유형 중에는 비장애인의 구어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수어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 사회적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거나(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가 있다.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에서 장애(인)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강사 또는 실습 현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2) 장애인 예술강사 아카데미

교육진흥원은 아르떼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활동할(하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의무 연수를 제공하다가 현재는 선택 연수로 전환했다. 연수 시수가 부족한데다 선택 연수로 전환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파견된 예술강사는 교육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 같은 연수에 참여하는 (예비) 예술강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에 장애(인)이해 과목 신설이 예비 예술강사의 장애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예술강사를 위한 장애 아카데미는 현재 복지시설 예술강사의 매개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워크숍, 현장 탐방 형태로 진행한다. 아카데미라는 표현이 과도하지만, 아르떼 아카데미(교육진흥원), 이음 아카데미(장문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아카데미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장문원과 교육진흥원이 공동 기획하고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 예술단체 운영

예술단체 구성원이든 프리랜서든 기획협력자이든 매개활동 참여자를 위한 교육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심화 교육과 신규 교육(교육 단계), 비장애 매개인력 교육 활용과 장애인 복지인력 교육 활용(기존 대학 밖 교육 연계), 그리고 매개유형별 교육이 그것이다. 민간기관 구성원 또는 프리랜서는 위의 교육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문제는 세부 유형의 교육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예술작품의 유통·판매의 경우, 이음 아카데미에서 2022년에 한 번 진행했는데 현재는 관련 교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공식적 교육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술단체 종사자(프리랜서 포함)는 매개유형별 교육에 참여함은 물론,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학습 모임 형태로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매개활동 전담부서에 요청을 하고, 플랫폼에서 스스로 필요한 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 접근성 제고⁸⁴⁾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돼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접근성 제고가 제1차 기본계획(문화시설의 접근성 매뉴얼 제작·배포, 온라인 접근성 강화)에 포함돼 있을뿐더러, 관련 정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장문원은 이음 아카데미 내 접근성 강좌 개설(2022~) 문화시설의 접근성 가이드 책자 발간(2024), 접근성 직무 관련 연구 진행(2024)을 통해 접근성 이슈를 정책 사업으로 실현한다. 다른 문화예술 기관에서도 접근성을 주요한 이슈로 다룬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예술계 청년 인턴십)에서 직무 공통 교육 주제는 접근성이다.

[그림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장애인 접근성 강좌)

<p>직무 공통 교육</p> <p>접근성으로 더 가까워진 예술</p> <p>김시락 다원창작자</p> <p>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p>	<p>태도로서의 접근성</p> <p>신재 Oset(제로셋) 프로젝트 연출</p> <p>다른 이동, 소통, 존재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질문하는 태도, 태도로서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p>
--	--

접근성 영역에서 인력 교육 방안을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공립 문화시설(기관) 종사자 대상 접근성 직무 교육이다. 국공립 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에 소속된 공연장 운영팀이나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고객서비스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정기적 공연·전시가 활성화 되려면 관객 접근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접근성에 대한 기초 이해 및 장애 감수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한다. 접근성 관련 기초적인 내용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실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이때 국공립 문화시설에서는 직무 연수는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임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순히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84)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룬다.

것이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임원이 공감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국공립 문화시설 종사자들 가운데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성 심화 과정 워크숍을 진행한다. 기관 및 시설 관점에서 향유뿐 아니라 창작 접근성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교육한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현재 진행하는 접근성 요소에 특화된 워크숍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어통역, 자막해설, 음성해설 등의 접근성 요소가 공연 및 전시 창·제작과 결합하는 경우, 주어진 예산과 환경 안에서 무엇이 ‘접근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부터, 실제 이들 접근성 요소(수어통역, 자막해설, 음성해설 등)와 창·제작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세밀하게 교육이 적절하다.

세 번째는 장문원본 아니라 국립 문화기관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2022년부터 배리어 프라·접근성 공연제작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왔는데, 공연예술 현장의 예술가들이 주로 참여한다. 접근성 공연제작 관련 사례 중심 강의이며, 자막제작·음성해설·쉬운글쓰기 등 특정 접근성 요소에 특화된 워크숍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에 접근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두 차례 운영하기도 했다.

[그림 4-2] 국립중앙박물관: 접근성 관련 워크숍(2023)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립박물관미술관, 국립극장·국립극단, 예술의전당 등에서 는 접근성 공연 및 전시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교육 참여자는 자기 기관(시설)의 종사자일 수도 있고, 접근성에 관심 있는 사람, 특히 다른 문화기관(시설) 종사자일 수 있다. 접근성이 향유뿐 아니라 창작 영역과 직결되어 기획되면 의미가 배가 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장애 및 장애예술에 대한 기초 이해나 접근성 관련 기초 교육을 넘어서서 장르별로 접근성 창작 및 기획이 어떻게 실제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설계한다.

마. 공공기관

1) 문화기관 담당자 교육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842개(소속기관 포함 시 7,673개)다. 연간 구입하는 예술 창작물의 3%를 장애예술인의 것으로 구매하면 되는데, 앞서 보았듯이 장문원이 구매 대행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상 기관 담당자가 장애인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거나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화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적어도 적절한 작품을 구매할 역량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공연·전시의 연 1회 이상 시행에 따라 적어도 공공 문화시설에서는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전국의 759개 공공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대상이다. 그런데 문화시설 이용자 가운데 장애인 이용자 비중이 5% 미만인 데서 보듯이, 문화시설은 별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아서 정기적 공연·전시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지는 알 수 없다.

〈표 4-2〉 문화시설의 이용자 중 장애인 비율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없다	5% 미만	6~9% 미만	10% 이상	계
문화예술회관	80	6.3	78.8	10.0	5.0	100.0
생활문화센터	51	27.5	64.7	5.9	2.0	100.0
문화의집	21	19.0	71.4	4.8	4.8	100.0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화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39쪽

문화시설 담당자는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만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예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장과 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문화시설별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사업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장문원의 이음 아카데미보다 접근하기 쉬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참조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문원과 협력하여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년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장애학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장애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생태계와 접점을 탐색하고,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를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5차시로 구성된다.⁸⁵⁾

[그림 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장애학과 만나다(2024)

「2024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협력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X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협력 프로그램

**문화예술,
장애학과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프로그램

구분	학습목차	강사명
1차시	장애학의 이해 I - 장애학이란 무엇인가?	조한진
2차시	장애학의 이해 II - 장애학의 원칙과 적용	조한진
3차시	연대의 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은
4차시	농문화, 언어적 소수자의 이해	곽정환
5차시	인문학적 장애학의 가능성	조원일

두 번째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단이나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세종시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한 전략과제’를 진행 중이다. 연구 과정과 결과 공유를 통해 지자체 문화예술 담당자의 장애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가능하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hrd.arko.or.kr/course/active/detail.do?courseActiveSeq=3865&srchCategoryTypeCd=&courseMasterSeq=499¤tMenuId=900> (검색일: 2024년 8월 14일)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에 지역에서는 특히 사군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다. 매개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장애인 체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센터가 2027년까지 총 150개 소가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장애인 예술을,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2) 복지시설 담당자 대상 예술교육

문화 매개인력인 복지시설 담당자의 문화예술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예술누림 이전에는 교육진흥원이 장애인 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 이해를 위한 시간이 마련됐지만, 예술누림 사업에서는 개별 복지시설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대부분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지만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표 4-3〉 장애인복지시설: 최근 1년 동안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진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진행한 적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진행한 적 없다	계
장애인 복지관	146	95.9	4.1	1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60.9	39.1	10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8	94.1	5.9	100.0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5쪽

〈표 4-4〉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 교육 부서 및 인력 유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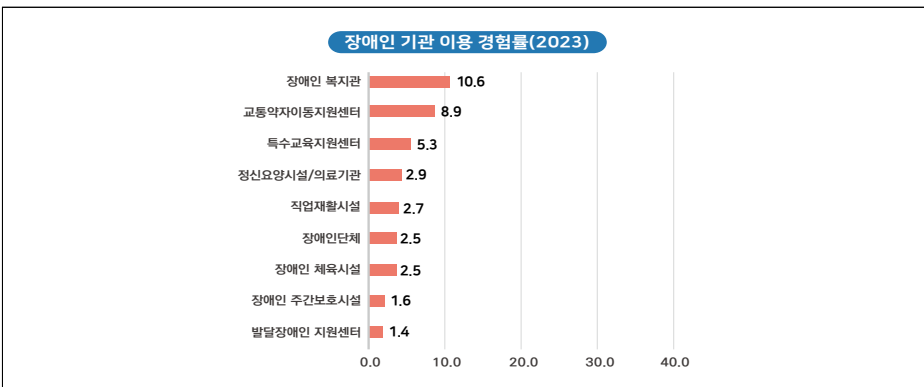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 전담 부서 및 관련 부서			
		전담 부서	관련 부서	없음	계
장애인 복지관	146	34.2	58.2	7.5	1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3.1	45.3	51.6	10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8	5.9	50.0	44.1	100.0

구 분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 전담인력 및 관련 인력			
		전담자	관련 담당자	없음	계
장애인 복지관	146	37.7	57.5	4.8	1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1.6	56.3	42.2	10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8	10.3	73.5	16.2	100.0

자료: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37-138쪽

적어도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교육 기획은 물론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점검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복지기관 담당자의 문화예술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관뿐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 담당자 및 운영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복지관에 비하여 평생교육시설과 자립생활센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복지시설 담당자 교육은 관내 장애인 복지관-다른 장애인시설을 짝으로 묶어 시행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멘토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기초지자체 단위에 하나씩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다른 장애인 기관에 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률은 10.6%로 다른 장애인 기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들이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면 지역 단위의 다른 장애인 복지관에 문화예술의 중요성 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매개활동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지역 단위에서 이것을 실현하려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

[그림 4-4] 장애인의 복지기관 이용 경험(20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참고자료」, 28쪽

제3절 매개활동 지원 방안

1. 매개활동 플랫폼 구성

가. 수요와 공급, 정보 공유

매개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역할, 또는 관련 정보가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개활동의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들이 새롭게(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매개활동이 필요한 예술인(단체)에게 매개활동 참여(의향)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이 필요한 곳(사람, 단체, 공간)은 장애예술인, 장애인 예술단체, 문화 정책 및 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매개인력이라고 유형화한 사람과 공간들인데, 현재는 매개인력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상당한 정도의 공공지원을 받는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도 적절한 매개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에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매개인력은 자주 바뀌고, 소수의 매개인력이 남아서 일을 처리한다. 그리고 무급의 전문 예술가와 매개자가 일종의 자원 활동으로 매개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전문적 장애인 예술단체도 적합한 매개인력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지역의 소규모 단체, 장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할 문화기관과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행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복지시설은 매개인력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른다. 매개인력과 사업을 해본 경우에는 계속해서 활동한 사람과 함께하거나 주위에서 소개받기도 한다(장애인 복지관의 자체 교육 사업). 이것은 매개인력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전문성을 펼칠 공간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 활동하게 보통이다.

매개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현재 교육진흥원이 이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는데, 예술누림 방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강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강사를 선택하는 복지시설의 담당자 역시 장애인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이 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예술누림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다. 매칭 시스템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가능하고, 누군가 매칭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매개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모이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교류 사례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센터’ 웹사이트를 들 수 있다.⁸⁶⁾ 사이트는 구매자 매뉴얼, 판매자 매뉴얼, 창작물 판매접수, 장애예술인 창작물, FAQ, 장애예술인(단체)로 구성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316개의 작품이 소개돼 있다.⁸⁷⁾ 제공되는 정보는 예술 작품의 장르, 제목, 제작 연도, 창작자, 가격 등이다.

우선구매 지원센터처럼 장문원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매개인력의 수요처와 공급자가 각각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버 공간(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편차를 고려하면 초기에는 장문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점차 지역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같은 정보 공유 사이트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수요처와 공급자, 특히 공급자가 자기 기입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불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임이 필요하다.

86) <https://kdac.or.kr/contents/view?contentsNo=27&level=2&menuNo=52>(검색일: 2024년 8월 14일)

87) <https://kdac.or.kr/creations/purchase/view>(검색일: 2024년 8월 14일)

[그림 4-5]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센터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사업안내' (Business Guide), '공모사업' (Competition Projects), '제도운영' (System Operation), '운영시설' (Operating Facilities), '알림마당' (Notice Board), '열린경영' (Open Management), and '기관소개' (Institution Introduction).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right.

The main section is titled '우선구매' (Priority Purchase) with the contact information: '우선구매 지원센터 문의: 02-760-9733 / nrone@kdac.or.kr'. Below this is a filter section for '장애예술인 창작물' (Works by Disabled Artists) with checkboxes for various categories: 공예품 (Crafts), 공연 (Performance), and 미술품 (Artworks). The '미술품' (Artworks) category is selected, showing sub-categories like '회화' (Painting), '조각' (Sculpture), etc.

A '선택초기화' (Reset Selection) button is on the right. Below the filters, a '창작물 유형 선택 보기/닫기' (View/Close Work Type Selection) button is present.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grid of artworks with details such as title, creation year, creator, price, and view count. The first row shows four artworks: '덤불' (Bump), '물수련1' (Water Lilies 1), '강구안볼품경' (Ganggu-an Bolpum-gyeong), and '초원의 동물들' (Animals of the Prairie).

그리고 장문원이나 지역문화재단에서 매칭 대행 업무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장문원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정보 제공과 공유뿐 아니라 우선구매 중개기관 역할도 한다. 그런데 매개인력과 관련해서는 장문원이나 지역문화재단이 직접 매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요처와 공급자의 매칭을 돕는 것까지가 역할이다. 만약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매개인력 매칭을 시도한다면 장문원이 직접 연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공유가 주된 역할이다.

매개활동 유형으로 보면 문화예술 교육 강사는 예술누림 사업과 일부 중복될 수 있다. 예술강사들이 교육진흥원의 사업 관련하여 자신의 이력과 강의 계획을 올리는 예술누림

은 전체 문화예술 교육의 일부다.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실시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섭외를 위해서는 예술누림 이외의 별도의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다.

매칭이 현실화될 수 있는 수요처는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를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매개인력)와 매칭을 통해 정기적 공연 전시, 그리고 우선구매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 더욱이 문화시설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2024) 책자 출간에서 보듯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은 관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접근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많지 않기에 문화시설에서는 접근성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다.

나. 전담부서 역할 담당

매개활동 관련 정책을 실현하려면, 그리고 2절에서 언급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포괄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수요처와 공급자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 장문원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정보 공유 뿐 아니라 2절에서 제시한 매개인력 연구 모임 지원, 매개활동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분야별 매개인력 교육 체계 등의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매개인력 교육과 활동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장문원에서 담당하는 게 현실적이다. 지역 단위에서는 현재 장애예술인 지원 관련 시행 계획을 만드는 단계이기에 장문원에서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현재 장문원에서 진행 중인 매개활동 정책 사업은 이음 아카데미 운영(매개자 과정, 접근성 과정)과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사업(장애예술인 강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접근성 관련 사업이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4~5명 정도다. 당장 하나의 독립된 부서를 구성하기는 어렵기에 TFT 형식으로 조직을 구성해 볼 수 있다. 현재 업무 담당자, 유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 전문인력(비상근)이 협력하여 매개활동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유관 업무 담당자는 ‘모두예술극장’의 접근성 담당자, 수요처와 공급자 정보 공유 사이트 담당자, 그리고 매개와 접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웹진 이음 담당자 등이다. 외부 전문인력은 정책, 담론, 현장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

전담부서는 매개인력과 매개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곳, 관련 교육과 정책 사업을 수행한 곳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플랫폼 운영 주체다.

2.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매개활동뿐 아니라 장애예술계 전반에서 경제적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공연 비용에서 배우나 연출가가 자신의 몫 일부를 각출하여 접근성 매니저에게 사례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접근성 매니저는 보수가 낮지만, 자신 때문에 배우의 몫이 줄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매개활동 참여자는 ① 전체적으로 매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② 때로는 다른 역할을 하면서 덧붙여 매개활동에 참여하여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적(私的) 관계에 따라 일하기도 한다. 적합한 보상 체계를 마련되지 않으면 매개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보상 체계 마련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의미한다.

가. 매개활동 보상을 위한 세 가지 방법

매개활동을 단기간 내에 활성화하려면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진행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내에서 일정한 비율의 사업은 반드시 매개인력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② 두 번째는 매개인력과 함께하는 사업을 별도의 지원 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③ 세 번째는 기존 관련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1) 매개인력 참여 할당제

어떤 공연예술 축제에서는 접근성 공연을 전체 행사의 일정한 비율로 시행하거나,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의 경우, 2022년부터 접근성 매니저를 고용하여 일부 공연의 접근성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19개 국내외 공연 가운데 5개의 접근성 공연(국립정동극장

-세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여행자극장 등 3개의 극장에서 진행)을 진행했는데 공연장에 접근성 매니저가 상주했다. 2024년에는 모든 공연장에 접근성 매니저 상주를 전제로 진행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장문원이 2022년부터 운영하는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⁸⁸⁾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성 매니저(매개인력 혹은 팀)를 고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접근성 관련 매개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인건비 활용이 가능함에도 기관 및 시설 상주를 전제로 접근성 매니저를 고용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접근성 관련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매개인력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장문원의 지원 사업 체계(대분류)는 장애인 예술인 역량 강화(창작, 향유, 지역 등),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 대분류 사업에서 매개인력을 활용하고 전체 지원 예산 가운데 일정 비율을 매개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개인력 활용 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의 20%, 매개인력 예산은 지원받는 단위 사업당 20%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할당 사업의 비중과 매개인력 예산 비중은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매개인력 활용 계획을 기입하도록 한다. 이때 매개활동의 유형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게 현실적이다.

2) 새로운 지원 단위 사업 진행

할당제가 전체(대분류) 사업에서 일정 비율로 매개인력 활용 사업을 뽑는 것이라면, 매개인력과 함께하는 사업을 별도의 지원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대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신규 지원 단위 설정(창작 매개인력과 함께하는 사업, 접근성인력과 함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매개자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원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매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88)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기관의 접근성 역량 내재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4년에는 9.4억 원의 예산을 통해 11개 기관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비, 접근성 서비스 운영비, 인건비(접근성 매개인력 고용: 접근성 매니저, 상주 통역인력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예술인(단체)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또는 장애인단체(시설)가 예술 프로그램에 접근하고자 할 때, 매개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매개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사업계획서 포함시켜 신청하면 적절성을 따져서 매개자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되면 매개활동 비용을 프로젝트 단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한다. 지원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청한 주체[장애인(단체), 장애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하나고, 매개활동 참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다.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전자가 수월하지만, 매개인력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매개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적절해 보인다.

할당제를 하든 새로운 지원 단위를 설정하든 중요한 것은 관련 예산 총액이다. 전체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접근성 매니저 경우처럼 매개인력이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총액이 늘어나 매개활동 할당이나 신규 지원 단위 설정이 유의미한 정책이 된다.

3) 기존 관련 사업 개선

기존 관련 사업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2년부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근성을 고려한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한다. 2024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문화재단, 문예회관, 박물관 등이 선정됐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은 접근성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높지 않을 것이기에 해당 사업을 통해 접근성 역량을 내재화하겠다는 정책적 맥락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런데 이미 예술 현장에서 매개활동을 꾸준히 해 온 민간단체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본다. 제6회 페미니즘연극제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총 6개 작품이 7월~8월 동안 2개의 민간 소극장에서 진행됐다. 대학로 소극장의 물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낮지만 예술공간 혜화에서 진행된 3개의 작품은 접근성을 고려한 공연이었다. 연극제에 참여한 작품별 연출진의 의지로 결정된 것이다.⁸⁹⁾ 만족할 만한 환경은 아니지

89) 예술공간 혜화에서 진행된 3개 작품은 각각 '4평의 시간(자리, 하소정 연출/배우)', '시스터 액트리스(극단 문, 정진새 연출)', '땀을 맞지 않고 사는 것이 전부(여기 당연히, 극장, 구자혜 연출)'이다.

만 이처럼 민간단체는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민간 차원에서 접근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기
확실히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들이 선택한 민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외에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문예회관 등 일부 국공립 시설과의 연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유연한 지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이 모두 참여
할 수 있어야 장애예술 매개활동 지원의 효과가 배가된다.

나. 매개활동 비용 산출

매개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이란 총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활동비(사례
비)의 수준 책정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면담조사에서 보면
예산 부족으로 매개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원 총액, 예산 총액이 많
지 않아서 매개인력에게 적절한 보상을 못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것은 매개인력에 한
정된 것은 아니다. 장애예술인(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 비장애예술인, 비장애 매개인
력, 장애인 복지인력 등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 많은 자료와 연구 역량이 축적되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창출하
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매개활동별 적절한 보상 수준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재로서는 매개활동 유형, 예술 장르, 지역별로 매개인력의 보수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매개활동 내 비교 분석에 이어, 장애예술인, 비장애 매개
인력, 장애인 복지인력의 보수 체계와 비교 분석한다. 적정 보수 산정을 위한 연구를 실
시한다.

예술공간 해화의 경우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환경이지만, 사전 신청에 따른 음성위스퍼링음성해
설, 자막해설(일부 지정회차), 수어통역(일부 지정회차) 및 터치투어 등을 마련하여 장애 관객의 접근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연극제 전체 정보는 인터파크 티켓 제6회 페미니즘연극제 안내 페이지 참조.
<https://tickets.interpark.com/contents/bridge/24008544> (검색일: 2024년 8월 24일)

3. 매개유형별 지원 방안

가. 창작 활동 지원

1) 복지제도 연계 지원⁹⁰⁾

① 예술 특화 근로지원인⁹¹⁾

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는 낮은 업무 환경에서 장애인이 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⁹²⁾ 현재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는 예술 직무와 관련된 업무가 없는 편이다. 지금까지 취업한 장애인이 담당하는 직무는 고객 응대, 환경 미화, 사무보조 등의 단순직, 노무직 등이 대부분이었다.

〈표 4-5〉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서비스 내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 때 지원 ·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 방문자 응대, 업무상 비품지원 등 서비스 관련 부수 업무
청각장애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발달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업무지도 등 · 사무 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
정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물 검수, 포장 등 생산 및 작업 지원 · 사무 보조, 고객 응대 등 근무지원
기타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보조, 생산 및 작업 지도

90) 구체적 사항은 4장 1절의 2.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나.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 내 문화예술 교육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91)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예술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문영민(2021), “예술과 노동 사이, 활동을 지원하기,” 『웹진 이음』(2021. 7. 28.)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ieum.or.kr/user/webzine/view.do?idx=149> (검색일: 2024년 8월 14일)

92) 근로지원인 제도의 개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지원 근로지원인 사업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kead.or.kr/sprlbsprt/cntntsPage.do?menuId=MENU0632> (검색일: 2024년 8월 14일)

예술 직무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되는 장애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인 정책을 포괄하는 장문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예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예술강사 경력자문화예술교육사 같은 매개인력이 파견되도록 사업 수행기관⁹³⁾에 권고할 수 있다. 실제 장애예술인의 근로 현장에서는 예술강사 또는 예술인들이 근로지원인으로 선발되어, 이들은 단순 근로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⁹⁴⁾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지원인 양성 체계를 개선하여 예술 특화 근로지원인을 양성하여 이들이 장애예술인과 계속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예술 특화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한다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곧,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⁹⁵⁾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의 1:1 지원을 통해 전달되는데, 활동지원 내용은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 활동의 세부 내용은 등하교출퇴근 지원과 외출 시 동행 정도다.

현재 일부 소수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닌 활동지원사가 지원하여 활동하지만 업무 부담과 아울러 열악한 보상 방식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장애예술인 근로자를 예술 관련 근로지원인과 매칭을 권고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예술에 관심 있는 활동지원사를 매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⁹⁶⁾ 이것의 하나의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93)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전국의 사업수행기관은 모두 174개다.

<https://hub.kead.or.kr/lbspEduAplyPage.do> (검색일: 2024년 8월 15일)

94) 근로지원인의 역할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담당부처의 구체적 협의가 요구된다.

95)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참조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검색일: 2024년 8월 14일)

96) 근로지원인 역할에 교육이 포함되지 않기에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담당부처의 구체적 협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활동지원사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술과 관련된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지원인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술특화 활동보조인이 장애예술인과 계속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창작 협력자 지원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는 창작 협력자를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 사업은 없다. 장애예술인이나 장애인 예술단체를 지원하면 예술인 개인이나 단체가 창작 협력자 역할을 하는 인력과 함께해 왔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창작 협력자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활동지원사 또는 근로지원인 가운데 협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창작 협력자와 장애예술인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때 창작 협력자의 협력 대상은 장애인 예술단체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창작 협력의 역할 범위가 아직 불안정하여 장애인 예술단체까지 포괄할 경우, 문화예술 교육행정접근성 등과 업무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장애예술인과 협력자의 매칭에 한정하다가 이후 장애인 예술단체, 관객으로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예술 특화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과 창작 협력자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창작 협력자는 장애인 예술 창작 지원에 더욱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은 장애인 지원 정책 체계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반면에 창작 협력자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례가 지급된다. 창작 협력자는 상대적으로 전문 장애예술인과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을 것이기에 전문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때 창작 협력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문화예술 교육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는 자신의 영역인 강사 지원보다 플랫폼(수요처-공급자 연결)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매개활동 수요처와 매개활동 참여(의향)자가 일차적으로 예술누림 사업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예술누림 사업에서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강사의 정보를 매개활동 플랫폼에서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예술누림 사업에서 예술강사 정보를 공유한다. 현실적

으로 정보 공유가 어렵다면 매개활동 플랫폼의 강사 정보 제공 양식을 예술누림과 유사하게 설정하여 강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예술누림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 교육 공간에서 강사를 선택하지만, 매개활동 플랫폼은 수요처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기 때문에 수요처인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자신의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보는 예술누림과 연계된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내 예술교육은 플랫폼이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은 굳이 구분하자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가깝다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교육은 창작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플랫폼보다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편하겠지만, 적절한 사례비 책정 등을 위해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플랫폼이 유용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행해야 할 일은 예술누림 사업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 예술단체 운영

공공의 문화기관이나 문화시설이 아닌 경우, 우선구매와 정기적 공연·전시에 참여하지 않기에 의무적으로 수행할 일은 없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일찍이 배리어 프리 공연과 전시, 접근성 공연과 전시 등을 수행한 대규모의 공연장이나 전시관에서는 이 같은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의 우수 사례를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외국의 기관과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소규모의 장애인 예술 기획·행정 단체(인력), 유통·판매 단체(인력)는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구매와 정기적 공연·전시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고, 지역 단위 장애인 문화예술행사를 기획·실행할 수도 있다. 민간이 공공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대 민간의 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장애예술인 작품의 유통·판매 업무로 장애인 작품 판매와 굿즈 판매(제작 포함)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장애인 예술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장애예술인 고용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라. 접근성 제고

접근성은 매개활동 유형 가운데 정책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데 지원 정책은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방안 내에 포함되지만 최근 접근성이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한다.

첫 번째는 공연예술·시각예술 창작유통 사업에서의 접근성 매개 서비스 통합 지원이다. 자체 공연 및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극단·단체·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제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예술인이 결합된 창작에서의 접근성 지원, 향유 관점에서의 음성해설·자막해설·수어통역·관련 장비 대여 등 기관·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접근성 관련 (기술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창작과 유통(향유)으로 분야를 나누어 지원하는데, 창작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창작 협력자 지원 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기획-연습-준비-공연·전시 실연과정까지). 또한 향유 차원의 기술 서비스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 보조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위에서 제시한 매개활동 보상 방안 내 새로운 지원 단위 설정의 세부 내용이다.

두 번째는 접근성 활동 인력 플랫폼 활용과 인력 제도 시행이다.⁹⁷⁾ 접근성 활동 인력은 기존 접근성 매니저 활동 경험자, 그리고 신규 인력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관객과 접근성 활동 인력을 매칭하는데,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라인만이 아닌 사람 중심(전화 등의 응대 필수)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관객이 공연장에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관객 이동을 보조하는 개념이다. 국공립 공연장 물리적 시설 조건이 열악한 대학로 소극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관람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접근성에 집중한 활동 인력 제도이며, 장애유형(휠체어 사용자,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 따라 활동 지원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공연장 접근성 활동 인력의 역할

신청을 통해 매칭 ⇒ 지하철역/대중교통(택시 등) ⇒ 공연장 이동 ⇒ 공연 관람(함께) ⇒ 귀가(지하철역 등)까지 장애인 관객의 이동 동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력

97) Oset 프로젝트가 2018년 진행한 ‘대학로 공연장 및 거리접근성 워크숍’의 결과로 제안한 것임을 밝힌다. 문영민(2020), “공연장 접근성의 틈을 메꾸는 사람들,” 『웹진 이음』(2020. 11. 13.) 참조. <https://www.ieum.or.kr/user/webzine/view.do?idx=36> (검색일: 2024년 8월 16일)

장애인 관객의 수요·요청에 따라 매칭하는데, 장애인 관객이 원하는 사람을 활동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활동 인력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때 가족과 친지는 제외한다.⁹⁸⁾ 장기적으로 공연장 접근성 활동 인력 제도는 국공립 공연시설의 경우 기관 내 접근성 부서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고, 민간 소극장같이 시설이 열악한 극단·단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접근성 활동 인력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이력(경험, 사전교육, 신뢰성 등) 체크 필요하다. 공연장 우선 검토, 이후 시각예술 분야(국공립 박물관·미술관)로 확산시킨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플랫폼의 일부이지만, 현재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 관리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공립 문화시설 내 접근성 직무를 포함한 부서 운영이다. 일차적으로는 공연장과 전시장의 고객센터 담당 부서(하우스 매니지먼트, 관람서비스 응대 담당)에서 접근성 관련 직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전담팀이나 부서를 운영한다. 국공립 문화시설에 제도화하여 적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 기관운영과 유기적으로 접근성 의제가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는 국공립 문화시설 홈페이지 웹 접근성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적용이다. 모든 국공립 문화시설의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마. 공공기관

1) 문화기관 근무자의 매개활동 참여

문화기관 근무자는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장애인 예술인의 정기적 공연·전시의 활성화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는 담당자들이 장애인 예술에 대한 교육에 참여해서 스스로가 전문성을 쌓아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문화 정책과 문화시설 담당자가 장애인 예술 업무를 중복해서 맡을 경우, 다양한 형식과 사례의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내외

98)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친지가 매개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급여를 지급하면 매개활동의 가족 의존성이 높아져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 현장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인 예술 업무를 덧붙여진 업무가 아니라 자기 성취와 개발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이든 아니든 최고의 예술 작품과 행사를 접할 기회(시간과 비용)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예술의 공감대가 넓어져 몇몇 기관에서는 장애인 예술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외부 전문가와 협력의 경우, 지역 내 협력이 바람직하지만, 지역 내 책임자가 없는 경우 다른 지역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문화시설의 매개활동 참여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기초지자체 지역 단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 지역과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전문인력과 단기 계약을 하거나 민관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광역 내 기초지자체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문가 계약 또는 협의체 구성은 지역 단위 장애인 예술 정책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예술 정책을 기획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속 발전하면 광역의 문화재단, 그리고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등에서 지역 단위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특화 장애인 복지관 운영

2장에서 보았듯이 문화예술에 특화된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는 이 같은 복지관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은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지만, 문화예술 특화 복지관은 예술단체 운영, 창작 레지던시 제도 운영, 장애인 예술인의 취업과 고용 연계 등의 활동을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장애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장애인이 복지관을 찾아서 예술 교육과 향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장애예술인의 교육과 취업 연계, 관내 장애인의 문화 예술 교육과 향유 프로그램 자체가 창작과 향유의 매개활동이다. 이처럼 예술에 특화된 복지관이 지역마다 있다면 매개활동뿐 아니라 장애예술계가 활성화된다.

현실적으로 문화예술 특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을 쉽지 않다. 대도시에서는 구(區)를 넘어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에 특화 복지관이 두세 개 있으면 도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반면에 도 지역에서는 시군(市郡)을 장애인이 넘나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특화 복지관이 있어야 한다. 도 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특화 복지관 이용자는 기초지자체 권역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적 한계에도 특화 복지관 사업을 실시해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 1개 도시, 비수도권 도 지역에서 2~3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매개하는 차원,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매개하는 차원뿐 아니라 지역 내 장애예술인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을 선도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제5장

맺음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는 두 가지 점에서 연원한다. 하나는 정책 의지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계와 관객의 인식 변화다. 우선구매제와 정기적 공연·전시 등에서 보듯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은 제도화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공연의 증가는 장애(인) 예술의 공급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실연자·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정책은 장애예술인 지원뿐 아니라 창작과 향유를 지원하는 매개활동까지 포괄해야 한다.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매개활동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면담자들은 매개활동 또는 매개인력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들의 활동인 교육, 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등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매개활동은 음악, 공연,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매개활동 참여자는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매개활동 관련 소득은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매개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을 진행되지 않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직무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축적한다. 다섯째, 매개활동 참여자의 전공은 예술 분야인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매개활동은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무 유형(공공 vs 민간, 단체 소속 vs. 프리랜서), 매개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매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점사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①-① 첫 번째로 용어·개념·범위를 재설정한다. 매개인력보다 매개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창작 지원은 현장에서의 협업과 지원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며, 실연자·창작자를 제외한 예술인을 매개인력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한다. ①-② 두 번째로 매개활동은 창작 지원, 교육, 예술 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업무로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유형별로 실시하지만 지원 사업은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매개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위와 같은 매개활동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①-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개인력 교육과 워크숍을 많이 개최하고, 예술

장르와 장애유형에 따른 매개활동 지원을 실시한다. 매개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쟁점사항별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매개활동 지원 정책: 방향과 쟁점사항 대응 방안

구분		기준, 쟁점사항	내용
기본 방향	기본 방향	포괄성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매개활동 지원 정책 수행 장르와 지역 등에서 포용적 정책 수행
		연계성	문화예술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연계 양성(교육)사업과 활동 여건 조성의 연계
		탄력성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범위의 탄력적 적용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지만 현장에서는 탄력 적용
		현실 적합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실태조사 필요) 기존 정책 사업 활용하면서 신규사업 계획
		미래 지향성	현실적인 사업을 개발하지만 중장기적 효과 고려 양성과 일자리 관계 예상하고 사업 개발
쟁점사항	매개인력과 매개활동 개념	용어 사용	매개활동 용어 적극 사용: 창작 지원, 교육, 행정·기획·유통·판매·홍보, 그리고 접근성 제고 등의 활동에 지원 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함 매개인력 용어: 일자리 사업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선불리 자격 제도 신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유의하면서 용어 사용
		장애인 매개인력 vs. 비장애인 매개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은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과 비교하여 향유 지원뿐 아니라 창작 지원 역할을 수행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이 창작 지원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만, 문화예술계(작품 창작과 향유)의 밀도와 완성도를 제고하는 역할이란 매개활동의 본질은 다르지 않음
		창작 지원 매개활동의 범위	넓은 의미의 창작 지원은 광범위함(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근성과 겹침) 하지만 연구에서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창작 지원을 다룸(장애인 곁에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의 활동)
	매개활동 참여자 범위	예술인의 매개활동	실연자와 창작자를 제외한 예술인(기술 지원 등)을 매개인력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
		장애인의 매개활동	장애인은 매개활동의 주체임 장애예술인의 적극 참여 유도
		장애인 부모의 매개활동	장애인 부모가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현실이지만 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불가함 경제적 보상은 불가하지만 나머지 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담당자의 매개활동	앞으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문화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매개인력으로 설정 (정기적 공연 전시, 예술누림 사업 등에서 중요 역할 담당)
	매개활동 유형화	매개활동 유형화	① 예술 창작 지원: 현장에서 예술적 표현 지원 ② 문화예술 교육 활동: 장애예술인 교육 및 장애인 교육 ③ 예술단체 운영: 프리랜서, 기획행정, 유통·판매 포함

구분		기준, 쟁점사항	내용
			④ 접근성 제고: 접근성 매니저, 접근성 제고 활동(음성해설, 수어 통역, 자막해설 등) ⑤ 공공기관: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 정책 및 지원기관, 국공립 문화시설, 공공 복지시설
		통합적 지원정책	교육(전문성 제고)은 유형별로 실시하지만 지원 사업은 통합적으로 실시함
	맞춤형 지원	비수도권 지역 매개활동 기회 확대	비수도권 광역시, 기초 사군 몇 군데에서 매개인력 교육 워크숍 개최 예술 특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 장애인 예술단체의 참여 유도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 교육 분화	교육과정 분화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의 멘티-멘토 참여 학습 모임 지원
		예술 장르와 장애유형 고려	장애예술계 일반에서도 예술 장르와 장애유형이 편중됨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장르와 장애유형 다변화
		단체 소속과 프리랜서	소속이든 프리랜서이든 정보 부족, 적합한 보상 받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프리랜서 정보 부족 매개활동 참여(의향)자를 개별자로 인식하고 정보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자격 제도 및 실태조사	자격 제도	매개인력 관련하여 자격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자격 제도 도입은 매개활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장기적인 관점 검토
		실태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조사 기획실시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수첩 제작

매개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②-①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학습 모임을 지원한다. 매개활동이 표준화될 수 없고, 개인들이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의형 교육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임과 워크숍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점차 사례 비교 분석, 교재 개발 등까지 수행한다.

②-② 두 번째로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하여 비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 덧붙여 대학교의 예술 전공학과와 매개 관련 학과의 장애인 문화예술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②-③ 세 번째로 매개유형(창작 지원, 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업무)별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창작 지원에서는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교육 과정에 일부 문화예술 교육 과목을 포함하고, 창작 협력자의 소모임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다. 매개인력 양성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매개인력 양성 방안

구분	사업, 유형	내용
학습 모임과 사례 연구 지원	학습 모임 지원	매개활동이 표준화될 수 없고, 개인들이 경험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의형 교육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임과 워크숍 형태의 교육 확대 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많은 학습 모임과 적은 학습 모임의 멘토링 제도 연 단위 학습 모임의 발표회 개최
	매개활동 사례 비교 연구	정책 연구자, 학술 연구자, 현장의 매개인력 참여 매개활동 유형, 지역, 장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개별성과 구분되는 매개활동의 고유성 추출 우수 사례 비교 연구 외국 사례 비교 연구
	DB 구축 및 교재 개발	학습 모임과 사례 비교 연구 자료를 취합하여 DB 구축 DB 바탕으로 교재 개발(공동과정 및 특화과정,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인쇄물과 영상물)
기존 교육 체계와 연계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비장애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내 장애인 교육 문제부 및 지역문화재단의 매개인력 교육과정에 장애인) 이해과목 포함시킴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에 문화예술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신규 인력을 양성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기관인 지역 내 장애인단체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시범 교육 실시
	대학교육	대학교의 예술 전공학과와 매개 관련 학과의 장애인 문화예술 과목 개설을 지원
매개유형별 양성 방안	창작 지원	장애인 복지인력 양성과정(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내 문화예술 이해 과목을 포함시키고, 몇 군데에서 시범적 운영 창작 협력자의 소모임 지원과 교육 지원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내 장애인) 이해 포함 장애인 예술강사 아카데미 진행(장문원, 교육진흥원)
	예술단체 운영	매개유형별 위의 교육에 참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학습 모임 형태로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
	접근성 제고	국공립 문화시설(기관) 종사자 대상 접근성 직무 교육 국공립 문화시설 종사자들 가운데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성 심화 과정 워크숍 장문원뿐 아니라 국립 문화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타 기관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사람 포함)
	공공기관	문화시설 담당자 교육: 정기적 공연·전시 대비(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 문화 정책 담당자(정부 및 지자체) 교육: 이음 아카데미 대비 쉬운 교육, 지역문화재단이나 연구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를 중심으로 워크숍 실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체육과 연계하여 진행 복지시설 담당자 교육: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운영자 및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관내 장애인 복지관과 다른 장애인 시설을 짝으로 묶어 복지관이 멘토 역할 수행(지역문화재단이 아니라 지자체 직접 수행)

매개활동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③-① 첫 번째로 매개활동 플랫폼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매개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장문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향후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요처와 공급자의 매칭을 대행하지는 않는다. 한편, 플랫폼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 모임, 매개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장문원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TFT를 구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③-② 두 번째로 매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데, 매개인력 참여 할당제(장문원 전체 사업 가운데 매개인력 활용 사업의 할당, 활용 사업 내 매개인력 예산 할당), 새로운 지원 단위 사업 진행(매개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군(群) 설정), 기존 사업 개선(공공만이 참여하는 무장애 향유사업 내 민간 참여) 등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총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할당이든 새로운 지원 사업 단위 설정이든 예산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존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된다. 매개활동 지원과 장애예술인 지원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한편, 매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매개유형, 장애유형, 예술 장르, 지역별로 매개인력의 보수 관련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적정 보수 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③-③ 세 번째로 매개유형(창작 지원, 교육, 예술단체 운영, 접근성 제고, 공공기관 업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작 지원에서는 장애인 복지인력의 활용 방안과 창작 협력자 지원 방안을, 교육에서는 적극적 플랫폼 활용을, 예술단체에는 외국과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의 대행자 역할을, 접근성 제고에서는 접근성 활동 인력 플랫폼 활용과 인력 제도 시행을, 공공기관에서는 외부 전문가 협력하여 업무 수행, 전담 직원 지정, 예술 특화 복지기관 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매개활동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매개활동 지원 방안

구분	사업, 유형	내용
매개활동 플랫폼 및 전담 부서 설치	매개활동 플랫폼 구축	매개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성 초기에는 장문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향후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

구분	사업, 유형	내용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요처와 공급자의 매칭을 대행하지는 않음
	전담부서 역할 담당	플랫폼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 모임, 매개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 장문원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TFT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담당 전담부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플랫폼 운영 주체임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방법 ① 매개인력 참여 할당제	장문원 전체 사업 가운데 매개인력 활용 사업의 할당, 활용 사업 내 매개인력 예산 할당
	방법 ② 새로운 지원 단위 사업 진행	매개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군[群] 설정 매개자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매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방법 ③ 기존 관련 사업 개선	기존 관련 사업을 개선하는 것 예를 들어, 기존 공공만이 참여하는 무장애 향유사업 내 민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하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총액이 증액돼야 함(총액이 늘지 않으면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나누는 것이에 불합함)
	매개활동 비용 산출	매개유형, 장애유형, 예술 장르, 지역별로 매개인력의 보수에 대한 자료 적정 보수 산정을 위한 비교 분석 및 연구
매개유형별 양성 방안	창작 지원	복지제도 연계 활동 지원(예술 특화 근로지원인, 예술 특화 활동지원사) 창작 협력자(복지 전문인력보다 예술적 전문성 있음) 지원 정책 수행
	문화예술 교육	예술누림 사업을 포괄하는 플랫폼 활성화
	예술단체 운영	외국의 우수사례 적용, 외국과 협력 공공과 민간의 연계자 역할 수행 작품 판매 굿즈 제작판매, 신기술과 장애인 예술 접목, 장애인 예술인 고용 창출 및 관리
	접근성 제고	접근성 매개 서비스 통합 지원(자체체 공연 및 전시를 준비하는 기관 대상) 접근성 활동 인력 플랫폼 활용과 인력제도 시행 국공립 문화시설 내 접근성 직무를 포함한 부서 운영 국공립 문화시설 홈페이지 웹 접근성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공공기관	문화시설: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여 매개활동 참여, 외부 전문가 협력하여 매개활동 참여, 담당자에게 최고의 예술 작품 접할 기회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직원 지정,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기초 지역 단위로 업무 수행, 도 지역과 비수도권에서는 광역 지자체(협의체)에서 기초 단위 업무까지 수행 복지시설: 예술 특화 복지기관 운영, 대도시에서는 두 세 개의 특화 복지관이 있으면 대도시 지역 내 모두 참여 가능하지만 도 지역과 비수도권에서는 기초 지자체별로 특화 복지관이 있어야 함. 몇몇 지역에서 시범 사업 진행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장애예술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매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리고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한 다음, 정책 방향과 시행해야 할 단위 사업들을 제시했다.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데 연구 범위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활동 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연한다.

참고문헌

- 고영준(2022), “모두를 위한 박물관의 디자인과 서비스,” 「2022 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 모두를 위한 박물관 공간 조성교 교육」(국립중앙박물관, 2022. 8. 30.)
- 관계부처 합동(2022),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 국립특수교육원(2022),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김규원(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민정(2020), “극장 접근성과 장애인 관객 서비스: 적당한 편의가 아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극장이 되기까지,” 『연극평론』 통권 96호
- 김용범(1997),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진화·고영화·권채현·정민주(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규(201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규·이상열(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영민·김원영(2015),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 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 박근화 외(2021), 『2021년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백령 외(200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변경화·전동일(201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몸짓과 소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서린·김보섭(2023), “장애학적 접근에서 살펴본 접근성 담론과 디자인: ‘보편성’의 정치성,” 「한국디자인학회 2023 가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2023. 10.)

- 소소한소통(2023),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 용어』(소소한소통)
- 심보선(2019), “문화매개(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문화 정책과 문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2
- 아만다 카시아(2023), “접근성을 미학적으로 전유하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모두 예술주간 2023: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자료집』(2023. 11. 1.~11. 12.)
-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2023 SPAF 접근성 기획 아카이브_공연장을 배리어프리 하기』
- 오성호 외(2024), 『2023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총론편』(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원),
- 이상길(2010), “문화매개자 개념의 비판적 재검토: 매스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52
- 이소원·이용표(2015),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변화 경험 연구,” 『GRI 연구논총』 제17권 제3호
- 이진희(2021), “불화가 없다면 변화도 없다: 관계 맺기와 동료성,” 『웹진 이음』 22호
- 장세길(2012), “문화적 삶의 질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로부터: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핑』 86(전북발전연구원)
- 장세길·조현성·신지원(2023),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전북연구원)
- 장애인문화예술 판(2019), 「꿈틔움 예술창작소 결과보고 자료집: 행복한 여정」
- 장훈(2019), 『공공부문 문화매개인력 공급체계 개선 연구: 재정지원 문화매개인력을 중심으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갑영 외(2005), 『문화복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갑영 외(2006), 『문화복지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현(2023),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현황 및 계획,” 「모두를 위해, 모두가 함께, 박물관 접근성 개선 교육프로그램」(국립중앙박물관, 2023. 9. 14.)
- 조현성 외(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조현성 외(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통계보고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최보연·정종은(2024)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념적 고찰: 접근성 개념 및 관련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16(2)

- 최석규·장수혜(2020), 『국립극단 장애와 연극 창작·제작 방향성 연구』(국립극단)
- 충북문화재단(2020), 「2020 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결과자료집: Let it be」
- 한국고용정보원(2023),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위한 신직업 연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언러닝, 뮤지엄(Unlearning at the Museum),” 「2019 포용적 예술작가 육성 워크숍 자료집」(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시립미술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2020 결과자료집」
- 김수현(2023. 12. 13.), “접근성 매니저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함께 즐기는 예술을 위해!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SBS 커튼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9630&plink=ORL&cooper=NAVER
- 문영민(2020), “공연장 접근성의 틈을 메꾸는 사람들,” 「웹진 이음」(2020. 11. 13.)
참조. <https://www.ieum.or.kr/user/webzine/view.do?idx=36>
- 문영민(2021), “예술과 노동 사이, 활동을 지원하기,” 「웹진 이음」(2021. 7. 28.) 참조.
<https://www.ieum.or.kr/user/webzine/view.do?idx=149>
- 이충현(2023), “장애인 공연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 불확실하지만, 유쾌하게 관객을 만나러 가는 길,” 「웹진 이음」(2023. 6. 28.)
<https://ieum.or.kr/user/webzine/view.do?idx=518>
- 장슬기(2024), “[인터뷰] 완전한 배리어프리는 불가능하다: 이충현 문화기획자,” 『월간참여사회』 2024년 4월호.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62095>
- 조대성(2023), “[서수연 음성해설작가 인터뷰] 공연예술접근성은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다,” 『예술경영』 495호(2023. 10. 26.)
https://www.gokams.or.kr/webzine/mobile/plan/view.asp?idx=2658&page=1&c_idx=85&searchString=
- 최주성(2024. 1. 13.), “공연자막 수정부터 객석안내까지...늘어나는 ‘접근성 매니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3025800005>
- Holden, J.(2008) *Democratic culture: opening up the arts to everyone*(London: DEMOS)
- Access Smithsonian <https://access.si.edu/about-us>

- Creative Australia <https://creative.gov.au/about-us/accessibility/>
- E美지 E사람 장애예술단체 http://www.emiji.net/bbs/sub4_2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지원 근로지원인 사업
<https://www.kead.or.kr/sprlbsprr/cntntsPage.do?menuId=MENU0632>
- 그라이아이 시어터
<https://www.takingflighttheatre.org.uk/creative-enabler-training/>
- 극단 함께사는 세상 <http://www.hamsesang.com>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16744>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활동지원인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 서울시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s://www.shc.or.kr/main/main.html>
- 스페셜아트 <https://www.specialarts.co.kr>
- 인터파크 티켓 제6회 페미니즘연극제 안내 페이지
<https://tickets.interpark.com/contents/bridge/24008544>
-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센터
<https://kdac.or.kr/contents/view?contentsNo=27&level=2&menuNo=52>
- 조금다른 주식회사 <http://alittledifferent.kr>
- (주)오롯플래닛 <https://www.orotplanet.com/>
-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소 <https://www.kcarc.co.kr/about>
-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춘천형 기본과정 모집
https://www.cccf.or.kr/Home/H10000/H10500/H10501/boardView?board_key=11574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024 공예매개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https://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1&bbIdx=7776&brdCodeValue=>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근로지원인 교육안내 및 신청
<https://hub.kead.or.kr/lbspEduAplyPage.do>

ABSTRACT

Support Policy for the Activities of Culture and Arts Mediators for the Disabled

Jo Hyeonseo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olicy to support mediating personnel by suggesting ways to cultivate and revitalize culture and arts mediators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current mediating activities and to develop policy projects to revitalize the activities of mediating personnel in the present and future.

Culture and arts mediators for the disabled are people who play a supporting role in helping the disabled participat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people who play a supporting role in helping disabled artists. They can be divided into ① support for creative activities, ②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③ operation of art organizations, and ④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In many cases, one person (one group) plays a role in more than one type. Although income related to mediating activities is not objectively satisfactory, participants tend to endure the salary level because it is an action they like. Mediating activities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regio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working type (public vs. private, group affiliation vs. freelancer), and mediating type.

The basic direction of policy setting can be set in five ways: inclusiveness, connectivity, flexibility, practicality, and future orientation. Customiz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each issue. In order to foster mediators, support for learning groups, education linked to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 to improve expertise by mediator type are necessary.

Three things were suggested in the mediation activity support plan. First, it is the composition of a mediation activity platform. Second, it is to derive support plans for each mediation type. Third, it is to form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for mediation activities.

Keywords

culture and arts mediators for the disabled, culture and arts mediation activities for the disabled, support for creative activities,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operation of art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집필 내역

연구 책임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괄, 2장과 4장의 예술단체 운영 부문,
1장과 5장

공동 연구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4장 2절과 3절의 일부

정병은 작은물결연구소 대표: 3장 2절의 설문조사, 2장과 4장의 문화예술 교육 부문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3장 1절의 면담조사,
2장과 4장의 접근성 제고 부문

총괄 자문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총괄, 2장과 4장의 창작 지원 부문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발 행 인 김 세 원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4년 10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10월 23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20-8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13>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조현성·김홍규·정병은·최보연·최선영(2024),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13>



www.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 791171 980208
ISBN 979-11-7198-020-8